東亞日報 1987年5月22日 金曜日
【可認物(가)급郵便物】

「은폐의혹」4개월만의 확인

꼬리문 의문 한겹한겹 벗겨진셈

물拷問의 다른 가혹행위 의혹도

拷問경관 煙幕호송 경찰은 지난 1월19일밤 趙、姜 두 고문 경관을 구속수감하면서 사건은폐 축소조작극을 숨기기 위해 여러 경찰관에게 똑같은 방한복을 뒤집어 쓰게 한 뒤 여러대의 차량에 분승, 연막호송작전을 폈다。

최근 고朴鍾哲군 고문치사의 진상(경찰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검찰이 朴군고문치사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2명외에 사건발생당시 대공수사2단요원이었던 경찰관 3명도 공범임을 밝혀냈다。이에따라 이들을 추가구속함으로써 그동안 계속제기됐던 朴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에 대한 의문과 의혹이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건의 진상에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朴군사건에 대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짙은 의혹을 갖고있던 것은 사건발생당시 진상조사를 검찰이 하기로 했다가 사건을 저지른 경찰이 자체조사를 통해 발표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검찰은 지난1월14일오전 朴군이 대공수사단취조실에서 신분을 밝던중 사망하자 처음부터 30여시간동안 쉬쉬하기에 급급했다。그러나 사망사실이 알려지자 「朴군을 신분하던중 경찰관이 책상을 「탁」하고 치자「억」하고 쓰러져 사망했다」고 터무니없이 허위로 사망경위를 밝혔었다。

검찰은 朴군이 사망직후 왕진을 했던 중앙대부속병원 의사 吳演相씨등의 진술이 보도되면서 고문치사사실을 은폐하려한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자 자체조사를 실시, 당시 姜玟昌치안본부장이 고문치사사실을 시인, 고문경찰관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이 자체조사를 한 것 자체에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 상태에서 과연 당시 범인으로 발표된 趙漢慶경위와 姜鎭圭경사 2명만이 고문을 해 朴군을 사망케 했겠느냐는 것은 당초부터 의혹이 많았다。

이들 2명의 고문행위이전에 다른 경찰관에 의한 고문이 있었다는 의문은 朴군의 가족들이 朴군의 몸에 수십브데의 피멍이 맺혀있었다는 진술에서 더욱 짙은 의혹이 커졌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朴군이 경찰의 발표대로 물고문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다른경찰관의 고문행위가 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던것이다。

즉 관련경찰관의 수를 의도적으로 축소키위한 은폐록 책임을 몽땅 떠맡기는 식으로 사후대책을 수습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던것이다。

한창 젊은 대학생이 극한 상황에 몰릴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을 경우 두사람이 좌우에서 팔을 비튼다고 물고문을 당해 사망까지할수가 있었느냐는데에 대한 의문이 계속제기됐다。

趙 姜 두경관의 물고문 이전에 다른경찰관의 고문행위가 있었다는 의문은 朴군의 부검현장을 목격한 가족들이 朴군의 몸에 수십브데의 피멍이 맺혀있었다는 진술에서 더욱 짙은 의혹이 커졌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朴군이 경찰의 발표대로 물고문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이

관련上司 모 犯人축소造作

檢察、은폐배후 철저 수사키로

1월18일 비밀회의서 "家族 돌본다" 각본 짜 趙경위 폭로기미 보이자 上司가 무마기도

숨진 朴鍾哲군

위경위 黃正雄

潘金坤경장

李正鎬경장

고 朴鍾哲군고문치사 사건의 범인5명을 2명으로 줄여 발표하게했던 범인축소은폐기도 배후자는 당시 대공수사2단5과장劉井邦경정이며 이조작에는 치안본부5차장(대공담당) 朴處源치안감, 대공수사2단5과2계장朴元澤경정이 직접 가담했다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성명발표등과관련, 검찰이 범인은폐배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수사당국은 천주교사제단의 성명내용및 당시 경찰자체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수사간부등의 제보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알아내고 관련자들을 소환, 강제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鄭銖永서울지검장은 21일 재수사결과를 발표한뒤 『고문경찰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상급자가 지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인은닉죄로 처벌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趙경위등의 신병을 송치받은후 검찰수사에 잘못이 생긴 경위도 자체감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소에 앞서 지난 1월23일 趙경위등 피의자를 참여시키지않은채 실황조사만을 실시, 현장검증을 생략한게 실수였다』고 밝혔다.

2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치안본부5차장 朴치안감, 대공수사2단5과장 劉경정, 5과2계장 朴경정등은 경찰자체조사가 시작된 지난1월18일 새벽0시경 치안본부 특수수사2대(新吉洞소재)수사관회의실에서 趙경위등 범인5명과 함께 비밀회의를 열고 朴군고문치사사건의 범인5명가운데 趙姜두형사가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인으로 구속된 趙경위는 구속된지 4, 5일이 지나면서부터 심경변화를 일으켜 면회온 대공수사단 동료에게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털어놓았으며 劉경정과 朴치안감은 趙경위의 심경변화사실을알고 劉경정이 직위해제기간중에 수시로 趙경위를 면회가 무마하는 책임을 맡았으며 진행내용을 朴치안감에게 보고해온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사건 담당검사도 趙姜두고문경찰관이 수감된후 두사람에 대한 면회는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조치해와 趙경위의 심경변화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李永昶치안본부장은 21일 『대공수사2단장田錫麟경무관, 5과장 劉井邦경정, 5과2계장 朴元澤경정등이 범인조작에 관련됐는지 여부는 현시점인 문제이기때문에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조사에나서지않겠느냐』고 말하고 『「본부는 관련경찰관이있을경우 징계등 행정처분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작회의=朴군고문치사사건이 알려지고 경찰자체조사결과 관련, 『民正黨은 일반적인 정치일정을 즉각 백지화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경색정국을 풀기 위해 우리가 제의한 실질대화를 적극 수락하라』고 요구하고 『金대통령은 영구집권음모에서 비롯된 4·13조치를 즉각 철회, 국민의 民主化개혁안을 발표, 民主化개헌을 단행해야한다』고 말했다.

金총재는 이어 『현정권이 현행 헌법으로 정치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촉구하고 『만약 현행대로 강행할 경우 우리는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金총재는 특히 『국민의 진정한 여망인 民主헌법으로 개정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88년 2월에 정부를 인수, 이 정부에 의해 서울올림픽이 주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헌은 오는9월말까지 합의해도 정치일정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작引責 內閣사퇴요구

金泳三총재會見 國會열어 國調權발동하라

"改憲 9월까지 合意면 政治일정에 지장없다"

【巨濟=崔孟浩기자】統一民主黨의 金泳三총재는 22일 『현내각은 고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과 沉洋상선사건등과 관련, 국민앞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요구했다.

金총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朴군사건과 관련, 고문경찰관 3명을 추가 구속한데 대해 『이 사건을 권력의 실층부에서 사건자체를 축소 호도하고 은폐하기 위해 꾸며진 구조적 조작극』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4면에 관련기사〉

총재취임이후 고향인 慶南巨濟에 처음으로 내려온 金총재는 또 『全斗煥대통령은 이 조작극에 대해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해야한다』고 요구했다.

金총재는 또 『朴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위해 임시국회를 즉각 소집해야 하며 이같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조사권의 발동및 국회내 인권상설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총재는 또 『朴군사건을 비롯, 그간의 많은 인권유린 사건과 容共조작사건에 대해 대통령은 원천적인 재수사를 검찰에 명령해야 한다』고 말하고 『특히 현정권은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총장과 치안본부장및 이사건 관계자 전원을 즉각 파면, 구속해 조작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총재는 이어 『사건으로 현정권이 헌법으로 정치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촉구하고 『만약 현행대로 강행할 경우 우리는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金총재는 특히 『국민의 진정한 여망인 民主헌법으로 개정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88년 2월에 정부를 인수, 이 정부에 의해 서울올림픽이 주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개헌은 오는9월말까지 합의해도 정치일정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統一民主黨의 金泳三총재가 巨濟郡 玉浦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玉浦=吳岡錫기자〉

野圈3黨、政治문제화

統一民主黨과 新民黨 국민당등 野圈3黨은 22일 朴鍾哲군 고문경관 추가구속사건과 관련, 임시국회의 즉각소집과 국정조사권발동및 내각총사퇴 그리고 사건의 전면재수사를 각각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곧바로 정치문제화됐다.

民主黨은 이날오전 임시당사인 民推協에서 李重戴수석부총재 주재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어 金泳三총재의 巨濟회견내용을 재확인하는 한편 23일오전에 金총재 주재의 임시정무회의, 25일오전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잇달아 소집해 이번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睦堯相(단장) 許京萬 張基旭 辛基夏 安東善 文正秀 宋千永 金東周의원등 朴군사건 범인조작 조사단은 별도회의를 열어 25일의 의원총회에서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보고키로했다.

이날 睦의원은 이번 사건이 폭로된 경위와 관련, 『趙경위의 가족들이 金壽煥추기경과 가연을한 사정을 누구에겐 호소하자 아주 가까운 측근 金추기경은 자체내 회의를 거쳐 정의구현사제단이 사건조작내용을 지난18일 발표키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있었다』고 말했다.

新民黨은 이날 鄭在原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 무모한 조작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정권퇴진의 감력한 압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천적 재조사△임시국회 즉각소집 △국정조사권발동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국민당도 이날 李萬燮총재 주재의 긴급간부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한편 崔容安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국민을 속이고 사건을 얼마든지 조작은폐해도 상관없다는 발상이 타성화된 민주반역적인 달국의 부도덕성과 기만성을 드러낸 일』이라고 신랄한 비난했다.

이날 睦의원은 이번 사건이 폭로된 경위와 관련, 『趙경위가 죽음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企圖는 절부에 대한 신뢰감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압도적인 지지로 再選되었던 「닉슨」미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물러나게했던 「워터게이트」사건도 따지고 보면 사건 그 자체보다 진실을 은폐하려던 헛된 시도때문이었다. 애당초 작은 기사로 다루어지던 盜聽사건이 크게 확산된 것은 대통령주변에서 녹음테이프를 변조하는등 은폐기도가 노골화되면서 부터였다◆대부분의 미국민들은 「닉슨」이 유능한 정치인임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不正直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높은 道德性이 요구되는 정치인에게 있어 은폐기도란 가장 지탄받아야할 惡德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罪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도청사실보다는 그걸 암장시키려던 不正直함이 더욱 혐오의 대상이 된 셈이다◆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어디서나 국민의 미움을 받는다. 또 그것은 반드시 꼬리가 잡혀 종국에는 베일을 벗게 된다. 왜냐하면 진실은 신성한 것이며 진실에 대한 하는 것은 무력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사건직후에 진상을 말끔히 털어놓고 심판 받았던들 한번 맞은 매로 충분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神씃들의 성명이 나온 훗날까지도 사실이 아니라고 펄펄 뛰던 달국인지라 이제 곤혹스런 입장에 빠져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정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眞實앞에 謙虛할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極限政局」국민은 불안하다」오늘 쉽니다.

'88서울올림픽공식백화점

관련上司 모임에서 犯人축소造作 모의

朴鍾哲 拷問致死 警官 3명 더 있었다

물拷問범인 추가拘束

「둘만犯行」묵계…公判앞두고 심경변화 폭로

檢察발표

고朴鍾哲군(사망당시21세·서울대언어학과3년)의 고문치사에 가담한 고문경찰관은 당초 치안본부가 「2명」이라고 발표한데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검은 21일 朴군고문치사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계류중인 趙漢慶경위(41)와 姜鎭圭경사(29)외에도 전치안본부대공수사2단소속 蔣正雄경위(41) 潘金坤경장(44) 李正鎬경장(29)등 3명의 경찰관이 더 가담한 사실을밝혀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오후5시경 이들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고문치사)혐의로 구속, 議政府교도소에 수감했다.

이날 朴군고문치사재수사결과를 발표한 鄭銖永서울지검검사장은 수사반장인 趙경위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을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숨진 朴鍾哲군

黃正雄경위

潘金坤경장

李正鎬경장

檢察, 인폐배후 철저 수사키로

1월18일 비밀회의서 "家族 돌본다" 각본 짜

趙경위 폭로기미 보이자 上司가 무마기도

고 朴鍾哲군고문치사 사건의 범인5명을 2명으로 줄여 발표하게했던 범인축소은폐기도 배후자는 당시 대공수사2단5과장劉井邦경정이며 이조작에는 치안본부5차장(대공담당) 朴處源치안감, 대공수사2단5과2계장朴元澤경정이 직접 가담했다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성명발표등과관련, 검찰이 범인은폐배후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게됐다.

천주교사제단의 성명내용및 당시 경찰자체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수사간부등의 제보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알아내고 관련자들을 소환, 강제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鄭銖永서울지검장은 21일 재수사결과를 발표한뒤 고문경찰과의 숫자를 줄이도록 상급자가 지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인은폐로 혐의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趙경위등의 신병을 속치받은후 검찰수사에 잘못이 생긴 경위도 자체감사할 방침이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소에 앞서 지난 1월23일 趙경위등 피의자를 참여시키지않은채 실황조사만을 실시, 현장검증을 생략한게 실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수사2단5과장 劉경정, 5과2계장 朴경정등은 경찰자체조사가 시작된 지난1월18일 새벽0시경 치안본부 특수수사2대(新吉洞소재)수사관회의실에서 趙경위등 범인5명과 함께 비밀회의를 열고 朴군고문치사사건의 범인5명가운데 趙 姜 두형사가 책임을 지기로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공수사2단5과장 劉경정, 5과2계장 朴경정등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소에 앞서 지난 1월23일 趙경위등 피의자를 참여시키지않은채 실황조사만을 실시, 현장검증을 생략한 게 실수였다」고 밝혔다.

22일 수사결과에 따르면 趙경위는 지난12일 이사건주임검사인 申昌彦부장검사가 찾아갔을때 심경변화를 일으켜 종전의 진술내용을 번복하며 자신을 2명의에도 3명이 더 朴군에 대한 고문행위에 가담했다는 진술을 듣게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들 2명의 진술을 토대로 朴군조사시 지원근무한 黃경위등 3명의 신병을 지난20일 경찰의 협조로 확보, 議政府교도소 부속건물에서 비밀리에 수사를 벌여왔다고 鄭검사장은 밝혔다.

鄭검사장은 이들 피의자들은 당초 朴군이 고문으로 숨지자 수사반장으로서 현장지휘책임을 진 趙경위와 조사팀중 가장 나이가 적은 姜경사등 2명만이 책임을 지고 수사지원을 해준 다른 3명은 빼주기로 서로 짜고 입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그후 趙경위와 姜경사는 4개월가까운 구금생활을 하면서 공관을 앞두고 자신들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중형을 받게될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심경변화를 일으켜 진상을 밝히게 된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사건재판장인 서울형사지법 孫晋坤수석부장판사는 추가구속된 세명에 대한 기소, 이미 구속된 2명에 대한 공소장변경에 필요한 시간등을 감안, 첫공판을 오는6월13일이나 15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21일 「대공수사2단장田錫麟경무관, 5과장 劉井邦경정, 5과2계장 朴元澤경정등이 범인조작에 관련됐는지 여부는 현사건의 문제이기때문에 혐의가 있다면 검찰이 조사에나서지않겠는냐」고 말하고 「치안본부는 관련경찰관이있을경우 징계등 행정처분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작회의=朴군고문치사사건이 알려지고 경찰자체조사가 시작되자 수사를 맡은 자체전담조사반(반장 李康年치안본부수사부장)은 新吉洞소재 특수수사2대에 趙 黃경위 姜경사 李, 潘경장등 범인5명을 연행, 1월17일 본격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들은 범행여부를 말하지 않은채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사팀은 계속 조사가 되지 않자 치안본부5차장 朴치안감, 대공수사2단5과장 劉경정, 5과2계장 朴경정등 대공간부에게 「묵비권으로 조사가 안된다. 설득해서 자백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이 얘기를 받은 朴치안감, 劉과장 朴계장등 직상급자는 이날밤12시경 특수수사2대 간부들이 도착하자 수사2대의 반장등 조사팀은 일부러 자리를 피해주었다는 것이다.

朴치안감 劉과장 朴계장등은 범인5명과 함께 특수수사2대장실 옆방인 수사관회의실에서 문을 닫아걸고 2시간가까이 비밀회의를 했다는것.

구속된 趙경위가족과 수사간부들에 따르면 이때 劉과장 朴계장은 아무말없이 앉아있는 범인5명에게 「어차피 이제는 누가 희생돼도 돼야한다」면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설득했다는것.

이들은 1시간이상 끝며 침울한 분위기속에서 대책을 논의했으나 적극적인 대책이나오지않자 劉과장이 「다섯명이 모두 다칠 필요가 있겠느냐. 趙경위가 반장으로 지휘해서 두사람만 「충대」를 메는게 어떠냐」고 제안했고 끝내 부인했다는 것.

◇무마공작=趙경위는 구속수감된 직후인 1월말경 심경변화를 일으켜 면회온 대공수사2단 동료에게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鄭검사장은 이날 趙경위가 법정에서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말했던 것은 朴군이 고문으로 숨지자 수사반장으로서 현장지휘책임을 진 趙경위와 조사팀중 가장 나이가 적은 姜경사등 2명만이 책임을 지고 수사지원을 해준 다른 3명은 빼주기로 서로 짜고 입을 맞추었다」고 밝혔다.

그후 趙경위와 姜경사는 4개월가까운 구금생활을 하면서 공관을 앞두고 자신들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중형을 받게될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심경변화를 일으켜 진상을 밝히게 된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사건재판장인 서울형사지법 孫晋坤수석부장판사는 추가구속된 세명에 대한 기소, 이미 구속된 2명에 대한 공소장변경에 필요한 시간등을 감안, 첫공판을 오는6월13일이나 15일에 열겠다고 밝혔다.

횡설수설

眞實이란 영원히 은폐될수 없는 것인가 보다. 朴鍾哲군을 죽게한 고문警官이 세사람인 본도를 더 있다는 충격적인 말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된다. 사건조후부터 어쩌지 경찰발표에의문점이 많다고 느끼데다 公判개정이 늦어지는게 수상쩍다고 생각한 국민들은 또 진상을 숨기려다가 들통이 난 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번 「沉洋」사건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졸부발표, 특히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公信力을 잃게 된 큰 원인이 아닐수 없다◆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造作하려는 企圖는 졸부에 대한 신뢰감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압도적인 지지로 再選되었던 「넉슨」미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물러나게 했던 「워터 게이트」사건도 따지고 보면 사건 그 자체보다 진실을 은폐하려던 허튼 시도때문이었다. 애당초 작은 기사로 다루어지던 盜聽사건이 크게 확산된 것은 대통령주변에서 녹음테이프를 변조하는등 은폐기도가 노골화되면서 부터였다◆대부분의 미국민들은 「넉슨」이 부정한 정치인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不正直에 대해 깊은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높은 道德性이 요구되는 정치인에게 있어 은폐기도란 가장 지탄받아야할 惡德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野圈3黨, 政治문제화

統一民主黨과 新民黨 국민

이날 睦의원은 이번사건이 재판계류중인 2명을 금명간 치안본부대공수사단 사건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공수사단 건물을

會長 金
社長 金
幾行人 金
編輯人 權
印刷人 崔
編輯局長 南
서울鍾路區世宗路
交換(代) 733-
編輯局 733-
廣告局 733-
配達事故 733-
購讀申請 734-
出版局 文化센터 783-
購讀料 月
本報는 新聞
그 實踐要綱을

신개발상품안
대한상
보험상담

民主政治 4명 檢察 2차출석요구서

봉일민주당 정강정책의 국가보안법 위반여부를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1부(金澤秀 秦昊(42·金大中씨 전투위원) 安炅律씨(39·崔炯佑민주당부총재보좌관)등 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88서울올림픽고시배한전

심층취재

人權유린 아직도 많다

不法연행 拘禁 폭행 강압수사 잦아

수사異議신고센터등 제구실 못해

時局사건엔 더 심해… 용의자 마구잡이 구타도

고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이 먼저준 충격은 만 넉달이 지난 지금에도 국민들 가슴에서 가셔지지 않고있다.

朴군의 죽음은 그동안 일부에서 줄기차게 주장되고 제기돼온 고문문제가 결코 「남의 일」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이란 사실을 국민들에게 실감시켜 주었고 또한 더이상 고문이 이땅에 존재해서는 안될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고문등 가혹행위는 더이상 용납할수 없다는 국민적 자각과 다짐을 던져 주었다.

점두도 朴군고문치사사건에 큰 충격을 받고 「뼈를 깎는 아픔과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다시는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없애겠다고 다짐하고 고문추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 발표했다.

그러나 朴군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한지 넉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의 직무집행과정에서 관행처럼 돼온△불법연행△장기간 불법구금△피의자에 대한 폭행과 폭언△불법연금등 인권침해의 사례등은 사라지지 않은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개선 朴군 고문치사 사건이후 치안본부가 인권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수사관들의 편파 부당수사및 가혹행위를 막기위한 「수사의의신고처」를 전국경찰관서 2백20개소에 설치(2월10일)△모든 범죄수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증거와 자료에 의해 하라는 치안본부장의 「합법합리수사 특별지시」(2월11일)△수사요원 관리규정을 제정시행(4월1일)△수사요원 교육확대실시 △무적격 수사요원 39명 교체△법인식별실(라인업 시스템) 설치지시(4월13일)등이었다.

搜査官의식 개혁돼야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대부분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수사일선에서의 개선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경찰내부의 현신적인 제도개선자체도 미흡한데다 일선수사관들 사이에서 근본적인 의식개혁이 뒤따르지못해 경찰의 인권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에서 습관적인 인권침해와 인권유린행위가 계속되고 있는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실태 경찰이 고문 가혹행위근절을 위해 마련한 주요대책중 하나로 설치한 수사의신고처가 실제 인권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있는 실정. 수사의신고처는 설치된지 만 석달이 넘었으나 접수건수가 적은데다 실익을 본 시민은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서울의 경우 청량리경찰서 1건 북부경찰서 2건 태릉경찰서 3건등 「수사의신고」건수는 대부분 5건이하인데다 남대문 서대문 용산경찰서등에서는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은 실정.

실제로 서울북부경찰서는 수사의신고처를 위민실과 함께 설치해 상부의 지시를 마지못해 따르고 있다는 분위기속에 「수사의 접수대장」을 아예 작성치도 않아 그나마 2건 접수된 수사의 의사건이 「위민접수처리대장」에 기록돼 있을뿐이다.

시민들이 수사의신고처를 통해 공정한 재조사라는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신뢰감을 얻지 못한다면 이같은 신고처 설치는 무용지물이라는 중간결론이다.

輪禍에 첫 搜査시정

지금까지 수사의 신청을 벌여 권익을 찾은 경우는 서울冠岳구奉天동 沈奉燮씨(47·상인)처럼 드물기만 하다.

沈씨는 지난1월14일 서울江南구廉谷동 대로에서 강도가 탄 승용차를 추격 공원 金모씨(29)는 지난 15일 새벽1시경 북부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받던 중 담당직원으로부터 수차례 뺨을 얻어맞아야 했다. 金씨는 밤늦게 스탠드바에서 술을마시다 종업원과 싸움을 벌인 혐의로 연행된뒤 훈방조사받다 『젊은놈이 이따위냐』는 욕설과 함께 뺨을 맞고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

華城용의자도 不法구금

최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華城부녀자 연쇄살인사건만 하더라도 용의자로 몰린 洪모씨(43·회사원)는 지난 10일 경찰에 연행돼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7일간 불법구금됐다가 풀려났다.

洪씨는 평소 자주다니는 단밤에서 여종업원과 사건에 얽힌 얘기를 나누다 유에 대해서는 몇차례 발표했지만 그를 연행한뒤 7일간이나 풀어주지 않고 조사한 배경에대해서는 『임의로 동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석방」된 洪씨가 기자회견을 하던 지난16일밤 경찰은 『당분간 洪씨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겨 더 큰 의혹을 샀다.

이처럼 공개적인 수사를 벌이는 사건에서도 불법연행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국관련사건은 그 늘진 수사에서는 불법연행이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생李모군(27·미학과4년)은 지난4월10일 저녁7시경 서울鍾路2가에서 친구를 만나러 부근 다방으로 가던 중 경찰에 연행돼 21시간만에풀려났다.

李군은 당시 「간편한 복장에 운동화 착용」때문에 불심검문하던 경찰에 의해 운동권학생으로 오인받아 전경버스에 강제로 태워져 연행됐다.

"운동화신었다"고 연행

李군은 연행과정에서 무수히 얻어 맞은뒤 서울관악경찰서에 옮겨졌고 조사과정중 혐의가 없음이 드러나자 「훈방」이라는 명목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지난13일 새벽5시경 연세대에 들어가 단식농성중이던 張淑璹양(22·신학과 4년)등 36명을 연행 조사를 벌였으나 48시간을 훨씬 넘긴 16일오전 신병처리방침을 확정하고 구속대상에서 제외된 27명을 훈방처리했다.

또 서울대생 金泰完군(22·해양학과 3년휴학)등 3명은 지난7일 江南구論峴동 한 식당에서 반정부유인물을 갖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돼 연행1박시간이 지난 11일자정경에야 구속및 즉심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공원인 韓모씨(21)는 지난4월26일새벽1시경 城東구道詵동 權모씨(61)집을 누나집으로 착각, 담을 넘어 들어가다 경찰에 붙잡혀 30시간뒤에 풀려날수 있었으나 뒤늦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고충을 겪었다.

韓씨는 당시 저지른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 오해를 풀고 일단 귀가할수 있었다.

한편 현재 경찰이 수시로 가두검문색을 실시 「용의자」란 명목으로 연행하는 것은 불법연행이다. 경찰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검문은 할수있으나 시민들이 경찰의 검문에 응해야할 법이나 규정이 없기때문에 피검문자가 검문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검문을 강제로 하면 이것은 불법검문이 된다.

검찰 검찰은 각지검별로 인권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운영과 그에따른 실적미비로 인권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人權상담소」직원없어

서울지검의 경우 검찰청사 별관에다 「인권상담소」라는 간판을 내걸었을뿐 독립된 사무실이 아닌데다 전담직원조차 없는 형편.

이 상담소에는 전담요원이 별도로 배치돼 있는것이 아니라 「법률상담소」에 근무하는 검찰직원3, 노동부직원1, 사법서사 1명이 나와 인권상담도 겸하고 있는 형편이로 「인권상담활성화」는 여전히 뒷전에 물러난 느낌이다.

검찰의 인권상담 주무부서인 대검형사2과에서도 인권대책발표이후 이 분야에 대한 점검을 한차례도 하지않아 시행실적과 보고사례 등을 찾아볼 수가 없다.

법원 시국사건관련 피의자및 피고인들에 대한 영장기각과 선고유예, 무죄선고등이 잇달아 「기대」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었다.

「2·7추도회」관련 시위자 즉심재판에서 전주지법 金仲坤판사는 『이 추도회의 목적이 고문퇴치와 인권의식을 고취하려는 것이라는등의 이유로 연행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또 부산지법 韓基春판사는 이 추도회와 관련, 연행된 盧武鉉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도주및 증거인멸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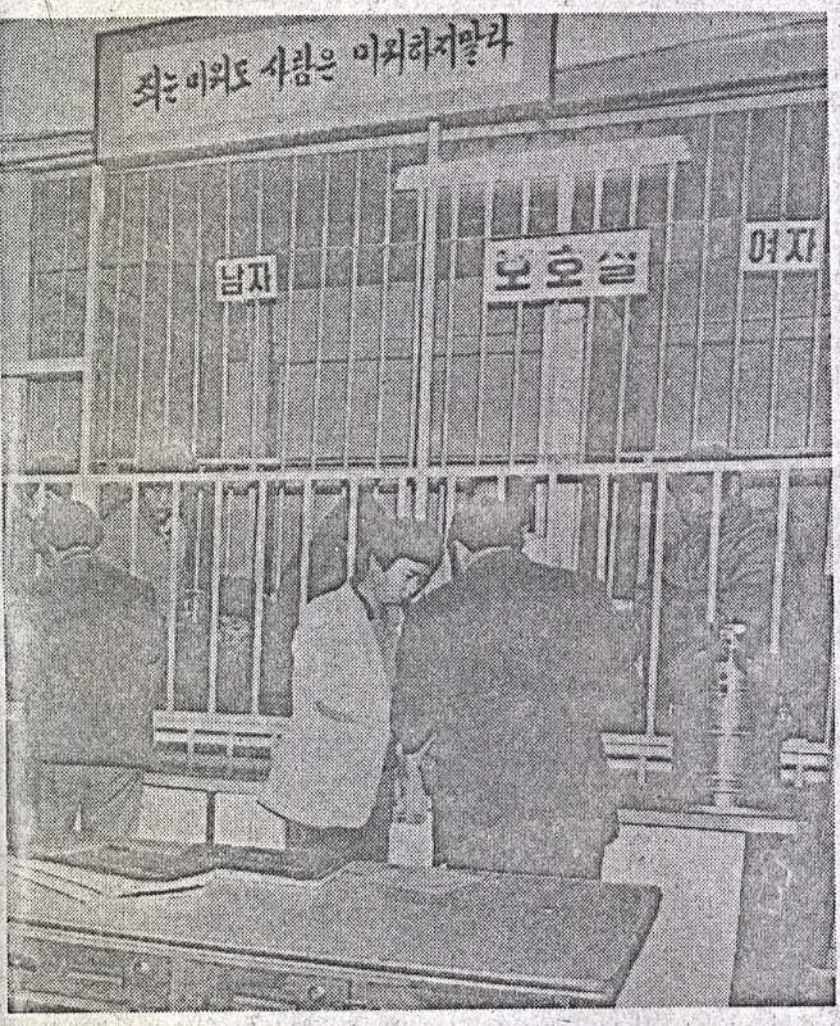
"옛날로 돌아간다"지적

朴군사건이후 법원에선 한때 시국사건관련 피고인들의 고문주장이 잇달았는데 법원은 종전과 달리 고문경찰관들을 증인으로 소환, 신문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같은 추세가 주춤하면서 다시 朴군사건 이전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재야법조인들은 「富川경찰서성고문사건」의 權모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관련」와는 다소 어긋나게 원심대로 징역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데 대해 실망을 표시하기도했다.

〈金次雄·蔣炳守·林彩靑기자〉



서울대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이후에도 각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朴군 사건 그후 넉달 人權개선 진전없다

경찰 용의자폭행 불법連行등 여전

고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지 만4개월째가 되고있으나 검찰이 이 사건을 계기로 다짐했던 합법수사등 인권개선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있다。치안본부는 朴군사건과 같은 불행한 인권침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불법연행장시간불법감금 용의자폭행등의 수사권남용이 절대없도록하라고 전국경찰에 지시했으나 일선경찰서에서는 아직도 이같은인권침해의 사례가 빚어지고있다。

정부는 지난2월25일 국무총리직속으로 인권위원회를 발족시켰으나 지금까지 두차례의 회합만 가졌을뿐 실질적인 인권보호대책마련과 개선책등의 실적은 전혀없는 실정이다。

치안본부는 당초 치안본부장 직속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아직까지도 이약속이 지켜지지 않고있으며 전국경찰에 설치된 「수사이의신고처」도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권보호와 신장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못하고 있다。

◇가혹행위=14일 오전6시경 서울麻浦경찰서에 연행된 폭행피의자 金斗永씨(31)는 진술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당형사에게 머리칼을 휘어잡히고 발로 등을 채이는등의 폭행을 당했다。

담당형사는 조서작성을 끝낸뒤 金씨에게 『야 이새끼야 저리가 앉아 있어』라는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했다。

지난2일 오전11시경 고려대생 朴東燮군(21·독문과 4년)은 교내에서 인근 중앙경찰서대공과형사 2명에게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됐다가 31시간만에야 풀려났다。

형사들은 朴군이 속해있던 독일철학회 회원인 金政旭군(22·사학과 4년)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 받고 있으니 『참고인으로 조사할게 있어 30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朴군에게 말한뒤 교수연구실에서 불러내 경찰서로 연행했던 것。

朴군은 조사과정에서 『金군과의 관계를 모두 털어놓으라는 위협을 받았으며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13일오전6시경 서울 泰陵경찰서에서 형사계 당직형사는 피의자대기실에 있던 20여명을 군대식으로 정렬시킨뒤 『앉아』『일어서』라는 구호를 몇번이나 반복시키는것이 목격됐으며 형사들이 피의자들에게 『일을늘리지말라。이새끼들아』라고 반말과 욕설을 마구해대는 광경을 볼수있었다。

지난 12일오전9시경 서울 冠岳경찰서 형사계에 을주운전을 하다 붙잡혀온 남편을 면회왔던 李明子씨(46·약사)는 남편에게 담배한갑을 건네주려다 당직 형사가 『야 ×할 년아, 나가』라고 대뜸 고함치는 바람에 크게 당황했다。 李씨의 『할구로 폭언

待機교의자에 앉혀 여섯시간

示威정보 나돌면 行人까지 마구 끌어가

佛經쪽지 유인물착각…燃燈행렬 덮치기도

이 목격됐으며 형사들이 피의자들에게 『일을늘리지말라。이새끼들아』라고 반말과 욕설을 마구해대는 광경을 볼수있었다。

지난 12일오전9시경 서울 冠岳경찰서 형사계에 을주운전을 하다 붙잡혀온 남편을 면회왔던 李明子씨(46·약사)는 남편에게 담배한갑을 건네주려다 당직 형사가 『야 ×할 년아, 나가』라고 대뜸 고함치는 바람에 크게 당황했다。 李씨의 『할구로 폭언

시반경이 대신 사과를 한 이었다。

◇불법감금=지난 7일오후5시경 서울江南구論峴동 영동백화점부근 레스토랑에서 반정부유인물을 갖고있다 연행된 서울대생 金泰完군(22·해양학과 3년휴학)등3명은 48시간이 훨씬 넘도록 조사를 받은뒤 金군은 연행된지 1백시간이 지난 11일 자정경에야 구속됐고 나머지 2명은 90여시간만에 즉심에 넘겨져 구류3일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48시간을 초과한데 대해 경찰은 검찰등 상급기관의 「지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하나 경찰조사가 법규상 정해진시간을 훨씬 초과하는데도 실제 은밀한 곳에서 이뤄지기때문에 불법감금등의 인권유린사례는 잘 알려지지않고 있다。

◇불법연행=지난9일오전10시경 서울관악경찰서는 新林2洞네거리에서 대학생연합시위가 있을것이란 정보에 따라 수백명의 경찰을 동원, 이근처를 지나가던 대학생62명을 막무잡이로 차에태워 불법으로 연행했다가 혐의가 없자 이날밤모두 풀어주었다。

지난달19일 4·19묘지부근 숲진에있던 Y병원 수송계장 金모씨는 사복경찰들로부터 무조건 수없이 얻어맞은뒤 카페방으로 끌려나가 시위도중 붙잡힌 학생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아야했다。

金씨는 이날 시위학생들이 인근 다방과 숲진등으로 도망쳐 색출에 나섰던 경찰에게 붙잡힌뒤 미리 선물로 사뒀던 딸기상자를 보여주며 무관함을 호소한끝에 겨우 풀려났다。

◇폭력행위=각종 농성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인권유린적인 폭력행위가 공공연하다。

석탄일인 지난5일, 밤8시경 서울阿峴洞부근에서 제등행렬행사를 벌이던 학생들에 대해 경찰이 반야심경의 한 귀절이 적힌 대형 연등을 반정부구호 글귀로 착각, 갑자기 행렬을 덮쳐 연등을 찢은데 학생들을 마구 때리는등의 폭력행위가 있었다。

20대 主婦 안방서 被殺

남편 豫備軍훈련간새 3개월된 아들도 질식 숨져

"비명소리 없었다" 이웃진술…面識犯추정 주변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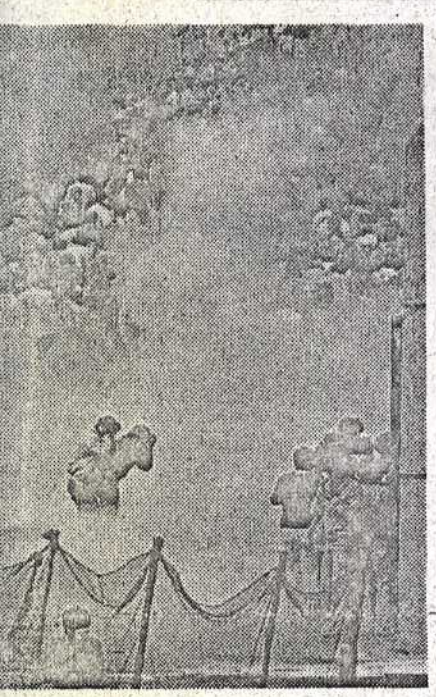
피살된 金仙伊씨

13일 오후3시15분경 서울 鍾路구昭格동30 金弘翼씨(30·회사원)집 안방에서 金씨의 부인 金仙伊씨(26)가 여자용 가죽허리띠로 목이 졸려 숨지고 생후 3개월된 아들 廷錫군도 질식해 함께 숨져 있는 것을 옆방에 세든 李鍾順씨(35·여)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집의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金씨의 사망당시 비명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다는 이웃 사람들의 진술에 따라 면식범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고 사건당시 이웃 세방에 놀러와 화투놀이를 했다는 남자 3명과 여자 1명의 신병을 확보, 알리바이를 캐고있다。

경찰은 金씨의 장롱서랍에 보관중이던 다이아반지 1개 산호 오팔세트등 귀금속(4백여만원상당)이 없어진 사실을 밝혀내고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와이셔츠 단추2개와 모발 10여개를 수거, 국립과학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숲진 金씨의 남편 金씨는 지난11일 5박6일간 풍원예비군훈련을 받으러가 집에 없었으나 金씨의 방 앞뒤로 네가구 12명이 세들어 살고 있으면서도 이날 낮까지 金씨모자가 숲진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명이 13일낮 「연행학생석방」을 요구하 위를 벌이다 경찰이 쏜 최루탄 연기 들아가고 있다。

「말」誌사건 公判에 선배言論

報道지침에관한 자신들의 見

살기때문에 현상황이 어둡고 사회가 극도의 흉악한 죄악으로 가득차있다』면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이 시대의 평화를 위해 하느님의 뜻에따라 살아가야할것』이라고 말했다。

「파티마」성모발현미사는 포르투갈중부의 작은마을 「파티마」에서 19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달13일 어린 목동앞에 성모가 나타나 회개와기도를 권고한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천주교의 주요 행사다。

시인과 권력 本質 날카로운 풍자

SALES CAREER
(Taegu)

A multinational American manufacturer of industrial maintenance products is offering exciting opportunities to join a rapidly growing Korean Branch. If you are highly motivated, a college graduate with a car and interested in a sales career that could lead to a management position if successful, send your resume with photo not later than May 25, 1987 to

Yoido P.O. Box 746
SEOUL, KOREA

휴지통

▼…13일 낮 1시35분경 慶南昌寧군靈山면 부곡하와이관광호텔 387호실에서 전 태광실업대표 朴東明씨(42·慶南梁山군機張면竹城리77)가 함께 투숙한 金영숙(24·카페종업원·서울龍山구漢江로1가)을 갑자기 칼로 위협하다 이윽고 자기 목을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 경찰은 3시간동안 대치한 끝에 붙잡혔는데…▼…朴씨는 泰善장로의 아들인 朴씨는 지난 1일에 「불안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미국 텍사스 휴스턴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10일 귀국,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경기도 광주군 곤지암읍 곤지암리 곤지암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10일 퇴원

趙경위 심경변화 다시 陳述

「축소조작사건」 오늘새벽 형·辯護士와 면담

犯人은 닉죄 추가적용

대학가 「6월時局」 대책부산

盟休결의 대학 5개校로 늘어

학생들 「6·10」 在野집회 참가 움직임 따라

朴鍾哲군 고문치사범인축소은폐조작 사건을 서울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전면재수사에나선 대검중앙수사부는 원점에서 다시출발한다는 수사방침아래 27일밤과 28일양일간 고문경찰관및 경찰상급자10명전원에대해 2차 피의자신문조서를 받는등 수사가 활기를띠고 있다。또 검찰수사에서 갑자기 진술을거부、임을다붙여온 趙漢慶경위는 28일아침부터 심경변화를 일으켜 진술을시작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고문경찰5명이 범인을 축소조작한것과 관련、공범 사이에도 범인은닉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례에따라 기소단계에서 이부분을 추가적용할것을 검토중이다。

◇趙경위 심경변화=대검중앙수사부는 27일밤부터 서울지검수사팀과 함께 철야로 수사를 벌였으며 28일새벽 趙경위담당변호인인 金茂森변호사와 趙경위의 형 漢俊씨(47)를 불러 趙경위와의 면담을 주선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면담뒤에 趙경위는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태도를 바꾸어 진술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같은 면담주선에 대해 『趙경위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도록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살급자가담」에 묵비권=검찰관계자는 『피의자신문결과 趙경위등 고문경찰관과 경찰상급자들이 한결같이 범인축소조작및 은폐에 경찰상급자들이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그러나 『그동안의 조사결과 이들의 진술가운데 앞뒤가 맞지않는 부분이 상당히 발견됐기 때문에 참고인조사등을 통해 조만간 협의사실을 밝혀내고 빠르면 28일밤까지는 이 사건수사를 매듭 지을수 있을것 같다』고 밝혔다。

◇1억원예금통장=검찰은 지난4월중순경 朴處源치안감이 의정부교도소로 趙경위를 찾아가 『사건이 마무리되면 넘겨주겠다』며 1억원이 든 예금통장을 보여준 사실을 趙경위와 경찰상급자들의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앞으로 수사전모발표때 밝히겠지만 그 예금통장을 찾을 필요나 조처는 이사건수사에서 전기가 될수도 있다』고 다른 의견을 펴기도 했다。

◇구속자가족지원금=대검중앙수사부는 27일 철야수사 결과 경찰이 최루탄을 쏘자 해산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徐義玄조계종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오늘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는 비폭력 단식투쟁은 최루탄이나 총칼로도 막을수없다』면서 『우리 불교인은 유한한 정치보다는 무한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순교자적자세로 정법수호에 힘써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7일째 한의 단식을 벌였던 승려등 12명은 이날 법회를끝으로 단식을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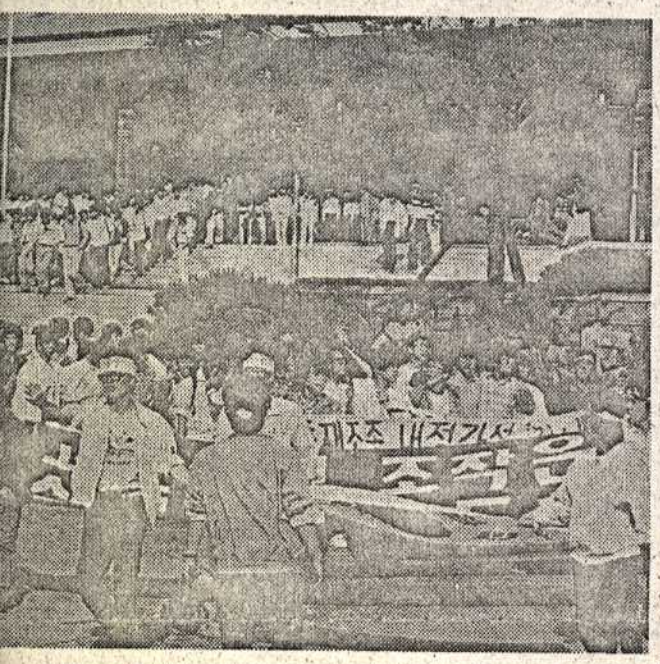
「法堂최루탄」항의 路上법회

光州승려 신도등 4千명…5백명은 示威행진

【光州=金會平기자】光州사암(寺庵) 연합회가 주최한 「圓覺寺법당난입 최루탄투척규탄 대법회」가 27일 오전11시 光州시 錦南路4가 圓覺寺앞 노상에서 1백50여명의 승려를 포함、신도 시민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중 청년신도와 대학생5백여명은 법회가끝난 낮1시10분경부터 「5·18불교탄압규탄한다」는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中央路를 왕복하며 시위행진을 벌이다 오후4시 東鶴寺 直指寺 학승 1백14명은 27일오후2시 경찰의 光州 원각사 법당 최루탄발사를 규탄하는 법회를 열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光州聯>



서울대생 5천여명은 27일오후 교내에서「고문살인 조작규탄및 동맹휴업결의대회」를 갖고 이중 1천여명이 투시위를 벌였다。

「收監 姜希南목사 36일째斷食」

民主黨조사단파견、학생1명은 自害

統一民主黨은 29일 姜希南목사(67·金提난산교회)의 36일째 단식사태와 관련、金東英부총재(단장)許京萬 金顯秀 崔洛道 金得洙 辛基夏 沈完求 姜三載의원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29일 현지에 보내기로 했다。

姜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全州교도소에 수감중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데 건강이 위태롭다고 民主黨관계자가 전했다。

睦堯相인권옹호위원장은 全州지역의 民主黨및 民推協관계자들로부터의 보고내용을 인용、「姜목사는 지난달24일 「4·13조치를 철회하고 직선제로 개헌하라」고 주장하면서 단식에 들어간 이후 가족들과 현지목회자및 재야인사들의 단식중지요청을 거부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睦위원장은 또이 교도소에 수감중 10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학생수감자 5명가운데 여학생1명이 26일 교도관과 시비중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 현재 全州시내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며 27일에는 또 한 학생이 울릭、중태에 빠진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除籍生등 16명 물拷問뒤 收監

民主黨에 제보해와

統一民主黨은 徐원기씨(고려대심리학과제적)등 청년16명이 지난달 26일경 가택과 직장에서 수사기관에의해 南營洞대공분실로 연행돼 물고문등을 받았다는 제보가 당내고문신고센터에 접수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제보자인 한 연행자 부인에 따르면 연행자들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은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고 民主黨은 밝혔다。

民主黨의 金泰龍대변인은 『시국을 호도하기 위한 용공조작음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낮 3人組강도

27일 낮1시반경 서울江西구禾谷本동102 金惠順씨(36·여)집에 20대 3인조강도가 들어 金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힌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나다 徐인석씨(22)등 2명은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고 나머지 1명은 그대로 달아났다。

金씨에 따르면 이날 이웃인 黃모씨(45·여)와함께 마루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20대 강도 3명이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와 칼로 위협、金씨가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이들중 徐군이 들고있던 흉기로 金씨의 얼굴을 찔렀다는것。

서울高檢長등 사표

金世權서울고검장 姜容求대검중앙수사부부장 朴一欽대검감찰부장등 3명이 27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시8、9회출신으로 후배인 고시12회출신 李種南신임검찰총장이 임명됨에 따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휴지통

▼…光州경찰서는 28일 시위현장에서 구경군의 호주머니를 턴 전과 8범金鍾植씨(31·光州시西구月山동90)를 붙잡아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신청…▼…光州발 연합통신보도에 따르면 金씨는 27일 오후1시45분경 光州시東구錦南路4가 圓覺寺앞길에서 경찰의 법당최루탄투척을 규탄하는 승려등의 시위를 구경하던 文承烈씨(29·회사원·光州시北구雲昌동)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28만9천원을 소매치기하다 시위진압경찰관들에게 덜미가 잡혔다는것…▼…金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나도 시위구경만 하려했는데 구경에 워낙 열중하고있는 행인을 보고는 마음이 움직여 슬쩍 한건하려다 잘못됐다』며 후회스런 표정을 짓기도…。

제조발매원

第20199號 ☆서울版☆ 【第3種郵便物(가)급認可】 東亞日報

大檢 "의혹없게 공개搜査하겠다"

「造作사건」수사 檢察주변

○…신임 李種南검찰총장은 27일 오후3시경 취임식을 마친 직후 鄭銖永서울지검장과 韓永錫중앙수사부장 등 대검간부를 긴급소집, 서울지검이 맡아온 이 사건수사를 대검중수부가 맡도록 지시. 이와관련, 검찰관계자들은 李총장이 취임전에 이미 법부고위층으로부터 명백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엄벌에 대한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추측해 보기도.

한편 대검의 한 관계자는 『총리가 바뀌고 안기부장과 내무 법부장관등 권력부처의 장들이 모두 물러나게 되는 판에 경찰간부 몇명을 봐줄 계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수사가 확대되고 있음을 암시.

○…韓永錫대검중앙수사부장은 서울지검으로부터 사건수사를 넘겨받은뒤 『이는 사실상 이번 수사를 맡아온 서울지검에 대한 감사(監査)의 성격을 지닌다』는 견해를 밝혀 관심.

韓부장은 이어 『명색이 감사인데 수사관들에게 수사를 맡길수는 없다』며 『이사건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검사에게 맡기겠다』고 덧붙이기도.

○…이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된 鄭銖永서울지검장은 27일저녁10시경 귀가하면서 『오랜만에 일찍 집에 들어가 쉴수있게 됐다. 홀가분하다』고 말했으나 무척 곤혹스런 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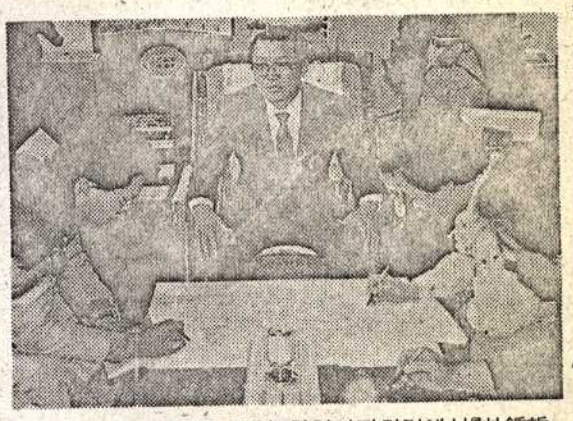
이에앞서 鄭검사장은 이날 저녁 7시반경 수사인계협의차 대검중앙수사부장실에 들렀다가 기자들을 만나 『대검중수부 수사에 많이 협조해달라. 나는 능력이부족해서…』 인축소조작에 은폐에 경찰 떠맡게되자 이번사건과관련, 전 현직 경찰고위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포석같다는 분석이 유력.

대검관계자는 『검찰은 물론 정부로서도 차라리 범중앙수사부는 李鎭江1과장이 수사결과를 종합하고 沈在瀚2과장이 경찰실무자, 朴舜用3과장이 고문경찰관, 姜信旭4과장이 참고인조사를 각각 맡아 조사하도록 업무를 분담.

중수부 韓부장과 4개과 과장들은 27일 오후6시반경부터 韓부장실에 모여 대책을 숙의한뒤 오후7시경 검찰청사 15층조사실에 가 서울지검으로부터 직접 사건을 인수, 밤9시경 검찰청사 9층과 12층 자신들의 사무실로 들아와 사건관계서류 복사물을 나눠들고 철야검토에 들입.

韓부장은 『수사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식사하러 갈때를 제외하고는 검찰청사를 나가지 않겠다』며 대단한 결의를 표명.

調査매듭까지 廳舍안떠나겠다"



李種南검찰총장은 27일 취임기자회견에서『朴鍾哲군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의혹을 씻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번 사건수사를 대검으로 이관,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國民신뢰 거당한 搜査의 格上

축소造作사건 大檢이관 배경

朴鍾哲군고문치사범인축소조작사건에대한 검찰의 수사주체가 서울지검에서 대검으로 이관돼 이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李種南신임검찰총장은 취임에 하루앞선 26일 三淸洞검찰청사별관에서 鄭銖永서울지검장으로부터 사건전모를 브리핑받은뒤 27일 취임식직후 朴군사건의 수사주체를 서울지검에서 대검중앙수사부로 교체했다. 李검찰총장은 고위층으로부터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란』 격려를 받아 자신감을 얻고 丁海昌법부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린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동안 서울지검은 결과적으로 경찰의 범인축소조작을 추인하는 실수를 저지른데다 이사건을 가장 먼저 알았으면서도 제단 대한변협 가족들로부터 받아왔다.

서울지검은 고문경찰관이 「2명뿐」이라고 발표한지 4개월만에 사제단의 폭로를 계기로 「3명이 더있었다」고 발표했다. 서울지검은 제2차수사결과 발표때도 『치안본부대공수사단 삼급자들이 범인의 축소조작및 은폐에 가담한 혐의점은 없다』 『고문가담경찰관5명이 입을 맞추었을 뿐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이틀만인 23일에 치안본부5차장 朴處源치안감등 5명의 신병을 확보, 수사에 들어감으로써 두차례에 걸친 수사결과발표에서도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주기에 충분한 수사를 하지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사는 「심증」에 묶여 「물증」을 확경우 아무리 공정하고 완벽한 수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대해 국민들이 수긍할것같지않는 상황에 이르게됐다고 판단했기때문이다. 시일이 촉박한데도 신임검찰수뇌부가 수사주체를 바꾸는 결단을 내린것은 이처럼 수사결과발표에대한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때문으로 풀이된다.

"밝혀내라" 고위층지시로 급선회

"현수사팀못믿는다" 여론 큰작용

머무기 이 사건을 한발앞서 터뜨린 사제단에서는 「2월에 사건의 진상을 알고나서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검찰에 수사를 맡길수 없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검찰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수사 성원데다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이있기 때문.

이같은 분위기에서 「법양사건」같은 대형경제사건도 서울지검특별수사부에서 맡아 할 정도로 대검은 직접수사 활동을 기피해왔다.

검찰총장이 직접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李검찰총장은 수사주체를 교체하고 낭뢰「수사팀이 바뀌었으니 참신한 감각이 나올 수 있을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사주체가 대검으로 격상되면서 수사의 흐름도 크게 교체에는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라는 대검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유력.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임검찰의 수뇌부가 책임을 질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수사주체가 대검으로 넘어가면서 서울지검의 관계자들은 침울한 분위기에 젖어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한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볼때 지검의 사기만을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고 수사주체를 교체한 타당성을 인정했다.

수사방식의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이번 사건은 「일관된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서울지검의 검사와 수사관들은 수사의 계속성유지를위해 대검으로 넘어가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것도 고려되고 있다.

지금까지 지검의 수사는 「치안본부간부들이 범인이 축소조작된 것을 알고나서 사실을 은폐하기위해 직무를 유기했다」는데 맞추어져있었으나 대검의 수사는 「朴치안감등 5명이 처음부터 조작사실을 알았다는 혐의에 집중될것으로 보인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그들의 진술에 논리적 모순점이 발견돼 심경변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했다. 또 사건이 무마된후 趙경위와 姜경사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가족들이 주장하는 1억원짜리 예금통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후 인책사임한 姜전치안본부장도 현재 내각이 대폭 개편된 분위기에서 단순히 「참고인」자격으로 소환되는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수사에는 신임 검찰수뇌부는 물론 검찰조직 전체의 명예가 달려있다.

따라서 이번 수사주체의 교체에는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라는 대검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유력.

발생직후사임한 姜전치안본부장의 소환은 수사의 강도와 촛점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搭標 牛黃清心元 東祐製藥〔株〕 永東 郵遞局私書函 520 TELEX:CHOIS K25315 代表電話:553-7328~9

廣告問議는 美洲東亞는 서울 (738) 8824

대구	대전	대주	광천	인산	부산	서울
250	251	22	72	42	730	
4	0	2	4	0	6	
9	0	5	9	7	1	
8	0	2	6	6	0	
8	8	4	9	6	7	

離散家族 統一祈願民俗祭

一、民俗놀이(以北5道 固有民俗)
一、端午놀이(씨름, 그네, 널뛰기, 어린이 달리기, 老人 경기)
一、景品券추첨(냉장고, TV, 세탁기등 家電製品多數)
一、早期入場者(一千名限)에 記念品 증정
※離散家族은 勿論, 一般市民들도 多數同參 望(家族同伴환영)

敎授招聘

學科	專攻分野	學科	專攻分野
農業敎育學	農業敎育學	自然科學大學	農業機械
敎學敎育	微分幾何學(大城)		家庭管理
獨語獨文	獨語學		産業美術
圖書館	圖書館學		
經貿易	會計學 國際經營學	醫科大學	醫豫組織學

人員: 各 分野別 若干名
資格
任用에 缺格事由가 없는 者
專攻分野 博士學位 所持者 또는 '87年 8月 博士 取得 豫定者를 原則으로 함. 단, 産業美術學科 碩士以上의 學位 所持者로서 硏究(敎育)經歷이 3年以上인 者
1942年 1月 1日이후에 出生한 者를 優先
書類
履歷書(명함판사진 첨부) 1부
(專攻分野 및 電話番號를 記載할 것) ..... 각 1부
卒業 및 成績證明書(大學 및 大學院) 1부
戶籍謄本 1부
硏究目錄 ..... 각 1부

직장인대학진학상담
◎일반기업체, 은행원, 공무원, 기타직장인 남·여
◎주부로서 계속 배우고자 하시는 분
◎주·야간 대학진학 하고자 하시는분
◎직장근무에 구애받지않고 대입공부를 하실수 있읍니다.
◎기초가 전혀 없으신분도 충분히 하실수 있읍니다. 주소, 성명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리며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대학진학연구소교육국 744-1398 744-1399
(종로구운니동98-78가든타워BD. 601号)

●20년 역사 개강 소자본자립·성공
공구교재지급 6월5일 (야간반개)
●고급시계전자시계 ●안경경영기술교육
시계·안경
(시경앞) 서울중구 남대문로3가30의 1 시계시장입구 유풍빌딩 3층
관인 한미시계학원 752-8180 757-8180

社員募集
당사의 사세 확장에 따라 서울·경기 거주자로 영업부서와 관리부서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①모집부문 (군필 및 면제자)
간부 후보 0명 대졸 35—40세 (공, 사직 3년이상경력) 고졸 35—40세 (공, 사직 7년이상경력)
일반 사원 00명 대졸 25세이상 고졸 27세이상 (공, 사직경력 2년이상)
관리 사원 0명 고졸 23세이상 건강한 남자

세례요한의 소리를들으라!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요한이 심판대에 섰다.
와 봐라, 주님의 강림하심을!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영광을 보리라!
세례요한
일시: 1987년 5월31일 (일요일 오후3시)

여사원모집
사업부 00명
고·초대졸24~35세
기간: 5月29~6月1日
이력서 사진첨부 1매
•서류지참본인래사요
중구구부교동7번지평창빌딩4층조흥은행건물
(주)시사영어사
☎754—4153~4 신성

7급 문제풀이
행정·검찰·감사·출입·
개강 6월2일 특수교재 저자직강

民正、統一政綱·對話문리방침

政治일정 예정대로 추진하며 協商

全斗煥대통령이 27일오후 신임 李種南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與圈은 「5·26개각」에 의해 民正黨 盧泰愚대표위원의 후계전망이 분명해진 가운데 시기적으로도 정부이양을 위한 대통령선거에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黨 중심의 정국운영방안을 검토 중이다。

與圈의 이같은 검토방향은 특히 「5·26개각」의 결과로 與圈의 실세가 행정부보다는 民正黨쪽에 형성되고있는 현상과 관련, 주목된다。

與圈의 한 소식통은 28일 정치일정으로 볼때 民正黨에 의한 정국주도가 불가피한 시기에 이르렀데다 「5·26개각」과정에 黨의 의사가 상당히 반영된결과, 黨政의 인적 구성이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할수있다는 관점에서 당정협조의 새차원이 검토될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民正黨의 한관계자는 『朴鍾哲군사건의 정치적 영향을 최단시간내에 극복하기위해서는 黨이 보다 활성화해서 정국을 주도해나가야된다』면서 공권력에 의한 정국주도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내각은 우선 朴군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할것이라면서 『당은 기존의 정치일정을 진행시키면서 民主黨의 통일정강정책문제로 막혔던 對野대화의 길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民正黨은 28일오전 盧대표위원주재로 당직자회의를 열고 朴鍾哲군사건으로 난관에 부닥친 정국운영문제를 타개하는한편, 「6·10전당대회」등 88년2월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정치일정의 차질없는 추진을위해 統一民主黨등 野圈을 포함한 정치적반대세력과 의대화를 적극추진키로했다。

民正黨은 統一관련 정강정책의 수정을 전제로 統一民主黨과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던 지금까지의 강경노선과는 달리 통일정강문제와 對野대화를 분리함으로써 금년 재개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날 회의가 끝난뒤 金正男대변인은 『朴군사건등으로 인해 야기된 민심의 동요를 수습하고 우리앞에 놓여있는 국가적 목표들을 수행하기위해서는 統一民主黨을 포함하여 각계각층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民正黨의 관단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여야대화의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統一·정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統一民主黨이 통일정강정책을 수정할것으로 믿고 있으나 이번 對野대화추진에는 그문제를 관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金대변인은 『우리의 대화추진작업은 즉각 착수될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盧대표위원이 직접 나서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盧대표위원과 民主黨 金泳三총재와의 회담추진의사도 있음을 시사했다。

民正 「6·10全黨大會」취소하면 時局수습안 제시

金泳三총재

統一民主黨의 金泳三총재는 28일 民正黨이 「6·10전당대회」를 취소할 경우 시국수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金총재는 이날오전 民推協에서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난국수습을 위한 일차적 해결방안이 실질대화』라고 강조하고 『현정권은 지체없이 이 대화에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金총재는 『현정권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갖가지 형태의 비폭력 평화적 투쟁을 벌국민적으로 무제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가 끝난뒤 金泰龍대변인은 발표를 통해 「실질대화」는 『全斗煥대통령과 의 대화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난국수습방안에 관해서는 시국수습을 위한 확고한 방안이 수립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을뿐 구체적 내용의 공개는 거부했다。

金대변인은 또 「6·10전당대회」가 취소될 경우 이날 벌이기로 되어있는 朴군사건 은폐 조작규탄 범국민대회의 취소가능성도 시사했다。

金총재는 그러나 『현정권이 「6·10전당대회」를 강행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될 것이며 이는 정권뿐아니라 국가의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총재의 한 측근은 시국수습방안과 관련, 『헌법의 재가동이나 권력구조변경문제 등까지도 포함될수 있을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民正 88후 內閣制 불변

政綱·黨規에 보완키로

民正黨은 28일 88년양대사 이후에 의원내각제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에따라 정강정책 중 「정책」부분을 수정보완, 권력분산의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民正黨은 또 당규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규정을 신설해 의원내각제개헌의지를 분명히 할 방침이다。

平統자문회의개최公告

全大統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장인 全斗煥대통령은 28일 제4차 전체회의를 오는 6월 3일 서울蠶室체육관에서 개최할것을 공고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통일정책및 南北대화추진경과와 전망에 대한 정부측 보고 △統6년간의 실적평가와 앞으로의 활동방향논의 △최근 주변정세가 韓半島안보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책수립 등이 의제이며 南北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對北결의문이 채택된다。

安前治

犯人축소조작

趙경위의 兄-辯護士 새벽 검찰 위를 설득하기 위해 28일 새벽 검찰 쪽)와 金茂森변호사。

주빠재國다는 『권 있외에견직가 韓國의 민주발전에 바람직하지않다는 우방으로서의 견해를 표명하면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한 권위있는 외교소식통은 27일 『韓國의 많은 계층에서 개헌논의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면서 『美國은 헌법개정논의가 당연히 재개되어야하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韓國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까지 계속된 與野간의 개헌논의는 서로가 타협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논의자체가 『시작되지 않은것과 같다』고 나름대로 분석하고 무엇보다 『상대방 서로가 자기들에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기꺼이 협상테이블에 내놓는 타협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교소식통은 이어 『내년초 새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 정부는 지금과는 다른 정치적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되면 서울을림픽이전이라도 헌법개정을 위 5개월안에 개헌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예측은 할수 없으나 그렇게 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교소식통은 韓國의 국내정치문제에대한 美國의 영향력에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사실상 한계가있다고 말하고 美國이 韓國의 정치발전 문제와 관련,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분명히」갖고있지 않으며 또 그같은 계획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국민당 20석으로 줄어 國會재적議員2百73명

국민당소속 崔致煥의원의 별세로 28일현재 국회재적의원은 2백73명 (정원 2백76명)으로 줄어들었다。

28일현재 정당별 의석분포는 民正1백47석, 民主69석, 新民28석, 국민20석, 民韓3석, 무소속 6석이다。

12대국회들어 타계한 의원은 崔의원과 金鍾哲(국민·전국)、金祿永(新民·光州西)、尹國老의원(民正·安養·始興)등 4명이다。

崔致煥 의원 (사진·南海河東)

이 27일 오후2시40분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64세。

고崔의원은 서울시경국장 공보실장 京鄕新聞사장등을 역임했고 5、6、7、10、12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의원이다。

장례식은 31일오전11시 국회장으로 거행되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영안실。

유족으로는 부인 宋孝淑여사와 3남3녀。☎2578 ☎4951~7。

民主헌법國民운동本部 不純책동땐 적극 차단

民正성명

民正黨의 金正男대변인은 28일 성명을 발표, 『우리는 소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만일 그들이 국민의 희망을 외면하고 불순한 책동을 하려는지 예의주시하면서 만일 그들이 국민의 희망을 외면하고 불순한 책동을 하려는 것이 民正黨의 관단이라고 말하고 그동안 여야대화의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統一·정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統一民主黨이 통일정강정책을 수정할것으로 믿고 있으나 이번 對野대화추진에는 그문제를 관련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金대변인은 『우리의 대화추진작업은 즉각 착수될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盧대표위원이 직접 나서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盧대표위원과 民主黨 金泳三총재와의 회담추진의사도 있음을 시사했다。

수가이 선택이 10년의

韓國의 민주발전에 바람직하지않다는 우방으로서의 견해를 표명하면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한 권위있는 외교소식통은 27일 『韓國의 많은 계층에서 개헌논의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면서 『美國은 헌법개정논의가 당연히 재개되어야하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韓國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해석을 낳기도했다。85년말에 나온 신년법어는 「칼칼한 발음을 붙은해가 비추니…선인 악마 사라지고 천당 지옥 흔적없다」는 것이었다。그전의 부처님 오신날엔, 「모든만물에는 불성이 있으니 (一切含靈皆有佛性), 천지는 한뿌리요 만물은 한몸이라」는 법어가 발표됐다。올해의 같은날 법어는 꽤 길지만, 「중생은 모두부처」이므로, 우리가 서로를 부처로 섬기면, 「이세상은 극락」이라는 뜻으로 요약할수 있었다◆이렇던 불교조계종이, 작년 9월7일 海印寺에서 열렸던 전국승려대회를 고비로, 대사회적 발언을 큰소리로 외치고 나온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특히, 「호국불교의 개념을 특정정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것은, 당시의 신문 제목대로 가위「폭탄적」인 것이었다。그이전에는 이미 「민중불교운동연합」(民佛聯)같은 조직이 형성되어, 불교의 현실참여가 실천화되고 있는등, 작금의 조계종은 여러가지로 탈피를 시도하고있다◆이런 일련의 행동은, 지난16일, 7백51명의 스님들이 서울 開運寺에 모여「4·13호헌조치 철회와 민주개헌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바로 그자리에서, 僧伽大스님들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으며, 그들은 물도 안마시고 있다고 듣는다。松廣寺·포교당인 光州 圓覺寺에서는, 광주사태 추모모임때 경찰이 법당에까지 최루탄을 쏜걸 규탄하는 단식투쟁을 전개한 끝에, 27일 승려와 신도4천여명이 路上법회를 열고 시위행진을 벌였다。「파사현정 정토구현」을 내세우는 불교의 뜻을, 새삼 생각케하는 마당이다。

姜 前治安본부장 출두요구

犯人축소조작 大檢서 전면 再搜査

"1億통장 보여줬다"

朴치안감 趙경위 모두 시인

내일 수사결과발표후 상급자 신병처리

서울지검으로부터 朴鍾哲군 고문치사 범인축소조작사건을 넘겨받아 전면 재수사를 벌이고있는 대검중앙수사부는 28일 사건의 열쇠를 쥐고있는 趙漢慶경위가 그동안의 진술거부태도를 바꾸어 이날 아침부터 다시 진술을 시작함에따라 趙경위의 진술을 사건발생초기부터 새롭게 받는 한편 朴處源치안감이 趙경위에게 제시한 1억원이 입금된 통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대검은 또 姜致昌전치안본부장에게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고 전화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28일 새벽2시20분경 趙경위와 변호인인 金茂森변호사및 趙경위의 형 漢俊씨(47)를 면담시켜 안정된 상태에서 趙경위의 심경변화를 유도, 진상을 털어놓도록 했다. <6·7면에 관련기사>

趙경위의 兄-辯護士 새벽출두 구속중 검찰수사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趙漢慶경위를 설득하기 위해 28일 새벽 검찰청사로 들어가고 있는 형漢俊씨(왼쪽)와 金茂森변호사.

改憲논의 再開되게

美서 外交노력 경주

서울駐在 外交소식통

美國은 4·13개헌유보조치가 韓國의 민주발전에 바람직하지않다는 우방으로서의 견해를 표명하면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한 권위있는 외교소식통은 27일 『韓國의 많은 계층에서 개헌논의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면서 『美國은 헌법개정논의가 당연히 재개되어야하고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韓國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라는 견해를 갖고있다』고 말했다.

이 외교소식통은 이어 『내년초 새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 점부는 지금과는 다른 정치적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되면 서울을 림 피이전이라도 헌법개정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가질수 있게 될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보다앞서 앞으로 4、5개월안에 개헌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예측은 할수 없으나 그렇게 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교소식통은 韓國의 국내정치문제에대한 美國의 영향력에는 일반적인 평가와는 달리 사실상 한계가있다고 말하고 美國이 韓國의 정치발전 문제와 관련,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분명히갖고있지 않으며 또 그같은 계획을 갖고 있지않다는 것은 옳다』는 견해를 표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외교소식통은 그러나 『국민들의 관범위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않고 있는정부는 어떤 우방이든 美국민들의 지원을 잃게되며, 그 점부에 대한 美國의 정책은 수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안보와 민주화문제는 우선이 있을수 없는 상호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제임스 릴리」駐韓美國대사는 4월21일 盧泰愚民正黨대표위원과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金泳三 統一民主黨총재와 만나 韓國정국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었다.

또 「해리스 먼톤」美대사관 정무담당참사관은 21일 統一民主黨부총재단을 만났으며 美대사관의 「알렉산더 아비주」 2등서기관은 19일 金大中 民推協공동의장을 방문, 요담했었다.

崔致煥議員 별세

국민당의 崔致煥 의원(사진·南海·河東)이 27일 오후2시40분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64세.

고崔의원은 서울시경국장 공보실장 京鄕新聞사장등을 역임했고 5、6、7、10、12대 국회의원을 지낸 5선의원이다.

장례식은 31일오전11시 국회장으로 거행되며 빈소는 서울대병원 영안실.

유족으로는 부인 宋孝淑여사와 3남이 있다.

이이앞서 李種南검찰총장은 27일 지금까지 서울지검에서 맡아해오던 범인축소조작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검중앙수사부에서 직접 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직접 맡아 하도록 수사주체를 바꾸고 원점부터 재수사를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李검찰총장은 『사건발생당시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은 결과적으로 경찰의 범인축소조작을 추인하는 등 수사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주체를 격상시켜 검찰총장의 직접 책임하에 있는 대검중앙수사부로 이관토록 한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29일오전까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편뒤 이날오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치안본부5차장 朴處源치안감 등 5명의 신병을 처리키로 했다.

대검은 경찰간부중 어느선까지 이 사건에 개입돼 왔는지를 명백히 가려내기위해 사건당시의 경찰총수였던 姜致昌전치안본부장을 28일 오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될때까지 朴치안감등 5명의 신병을 계속 검찰청사에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벌이기로했으며 이미 구속된 경찰관 趙漢慶경위등 5명도 재조사하고 있다.

韓永錫대검중앙수사부장은 『朴치안감이 趙경위에게 1억원짜리 통장을 보여주었다는것은 양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조작사실에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다』며 『통장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姜전치안본부장이 사건이후 언제 누구로부터 무슨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를 밝히기위해 참고인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황설수설

불교조계종 李性徹총정의 법어는, 일단 발표될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비교 자체가 무리일법도 하나, 카톨릭쪽의 金壽煥추기경이, 감론이나 강연을 통해 말하는것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다. 전자가 속인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포괄적이면서도 超脫한 의미부여를 천착케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구체적인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것도 당대의 정치권력을 맞바로 겨냥하기도 하고, 이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잠자는 양심을 때리는수가많았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도, 따라서 기막힌 「時代語」가 되었다◆李총정의 법어시리즈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로 시작되었다. 음미할수록 깊은뜻을 담고 있는듯하여, 구구한 해석을 낳기도했다. 85년말에 나온 신년법어는, 「칼칼한 발언을 붙은해가 비추니…선인 악마 사라지고 천당 지옥 흔적없다」는 것이었다. 그전의 부처님 오신날엔, 「모든만물에는 불성이 있으니 (一切含靈 皆有佛性)」, 「천지는 한뿌리요 만물은 한몸이라」는 법어가 발표됐다. 올해의 같은날 법어는 째 길지만, 「중생은 모두부처」이므로, 우리가 서로를 부처로 섬기면, 「이세상은 극락」이라는 뜻으로 요약할수 있었다◆이렇던 불교조계종

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人間·技術·未來

「造作규탄」大學街 시위 속출

서울大生 오늘부터 「盟休」…23개大시위

대학가시위의 이슈가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은폐조작규탄및 진상규명요구등으로 바뀌고있다。

서울대총학생회는 26일 3백여명의 학생이 모인가운데 27일부터 3일간 4·13담화철폐와 朴군사건은폐조작진상규명을 위한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데이어 27일오후3시 교내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수업거부결의와 朴군사건은폐조작규탄대회를 갖기로했다。

또 연세대생들도 27일정오 교내에서 朴군사건은폐조작진상규명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대학가시위의 이슈가 호헌철폐와 함께 朴군사건은폐조작규탄으로 점차바뀌고있다。

한편 26일 시위를 벌인 전국23개대학 6천7백여명가운데 서울대를 비롯, 한양대생및 전주대생들은 朴군사건은폐조작규탄대회를 가졌으며 나머지 대학들은 「호헌철폐」「독재타도」를 주장하거나 학내문제와 관련해 시위를 벌였다。

서울대총학생회가 동맹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27일오전 1교시부터 상당수의 학과에서 수강률이 극히 저조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신문학과의 경우 이날 1교시「비판커뮤니케이션」시간에 수강생89명중 3명만이 출석했으며 정치학과의 1교시「정치연구방법론」시간에는 수강생 60여명중 한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밖에 국사학과 사회복지학과등 상당수의 학과에서 수강률이 크게 저조해 사회대의 평균 수강률 20%정도였으며 법대는 30%에 불과했다。

서울대는 26일오후 朴奉植총장주재로 동맹휴업결의에 대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으며 이자리에서 수업거부주동학생을 학칙에따라 중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운것으로 알려졌다。

東國大 17개科도 盟休

한편 동국대도 국문과등 17개학과가 과별총회를 열고 27일부터 이번주말까지 광주항쟁희생자추모와 朴군사건조작에 항의하기 위해 동맹휴업키로 결의했다。

全北大學生 9명 삭발斷食 사흘째

총장사퇴등 요구

【全州】지난15일부터 구속학생석방 총장사퇴등을 요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여온 일부 전북대생 가운데 총학생회장 鄭燾군(사학과4년)등 여학생 1명을 포함한 학생 9명이 지난25일 학생6백여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삭발한뒤 오후2시반부터 단식농성을 시작, 27일 정오현재 학교본부저층부건물3층소강의실에서 농성을계속하고있다。

노후설계 연금보험 등 방생명

官選理事 구성때까지 釜山市서 복지원직영

朴원장 자격취소

【釜山聯】釜山市는 27일 형제복지원 원장 朴仁根씨(58)의 대표이사(시설장)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될때까지 이복지원을 시에서 직접 운영키로했다。

釜山市는 이에따라 복지원 사건발생후 북구청 李각우부청장을 책임자로 해 산하공무원 12명으로 구성한 운영지원단을 운영반으로 바꾸어 이 운영반에서 시가 복지원에 지원하던 생계비및 운영비를 5월부터 직접 수령해 운영하도록 했다。

釜山市는 朴씨가 지난1월 17일 구속된후 대표이사 자격을 계속 고집하고 있어 사회복지 사업단 규정에따라 시장직권으로 朴씨와 구속된 이 복지원 이사겸 총무 金敦永씨(48)등 2명의 임원자격을 취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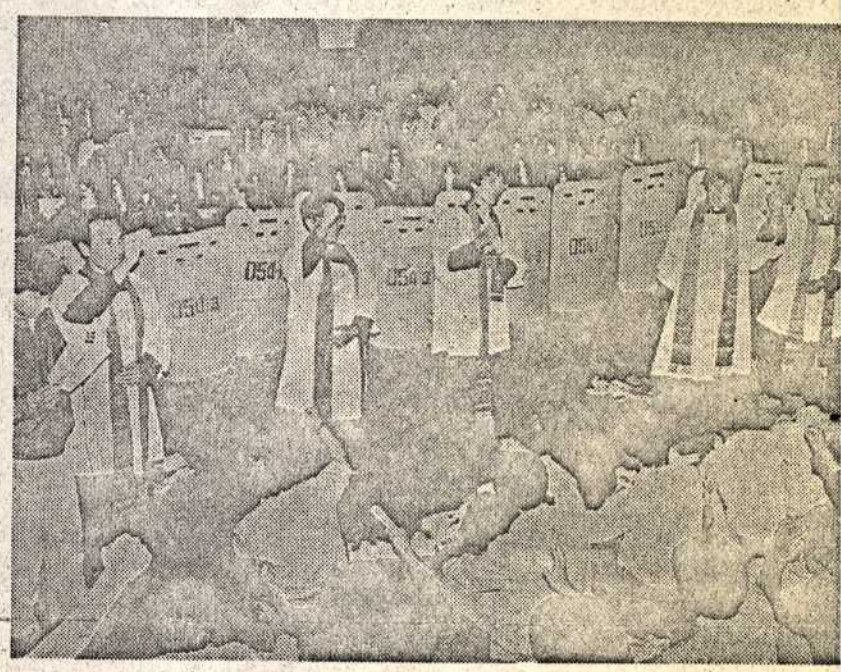
"金大中씨 不法연금" 市警局長등 2명고발

民主黨·民推協 統一民主黨과 民推協소속 변호사 20명은 27일 『金大中民推協의장에 대한 경찰의 장기연금조치는 불법』이라고 주장, 權福燮서울시경국장과 金相大麻浦서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金의장은 지난 4월8일부터 50일째 자택에 연금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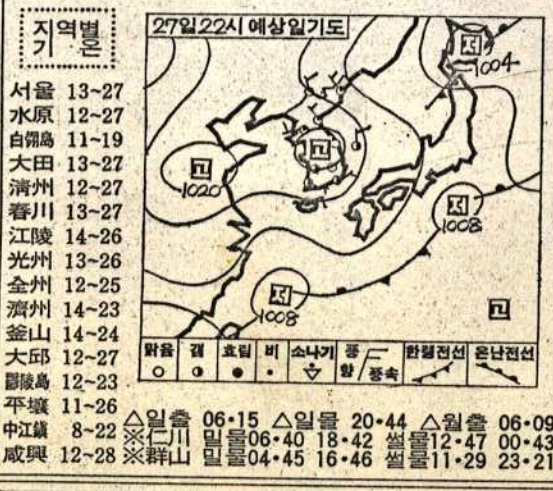
故金泰勳군 추모제

서울대총학생회는 27일 지난81년 교내도서관5층에서 반정부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다 투신해 숨진 金泰勳군(당시 22세·경제학과4년)의 6주기 추모제를 이날 오후3시 교내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동맹휴업 결의대회와 함께 갖기로 했다。



聖公會 노상기도회 대한성공회 전국사제단 신부 신도등 3백여명이 서울貞洞 서울대성당에서 「나라를 위한 특별철야 가진뒤 가두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성당마당에서 노상기도회를 표50여명과 신도 5백여명은 26일 저녁8시 서울中구貞동 서울대성당에서 金性洙주교의 집전으로 「나라를 위한 특별미사」를 가진뒤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천명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제단은 이 성명서에서 △민주적개헌을 위한 4·13호헌조치의 즉각 철회 △의혹을 낳기고 있는 실종변사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엄벌 △민주인사탄압중지와 구속중인 양심수의 즉각 석방 등을 요구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기업 악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두 警官 협박 面會」 집중조사

「축소造作」사건 경찰간부 5명 분리 신문

趙경위 감자기 「默祕」로 일관

가족들 "말못할 사정 생긴것 아니겠느냐"

朴鍾哲군 고문치사은폐축소조작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은 조작은폐의진상을 밝혀내는데 결정적 단서가될 경찰의 「1억원흥정」을 찾는데 전력을 기울이는등 부진하던 재수사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현재 신병을 확보, 조사중인 趙漢慶경위와 姜鎭圭경사의 상사인 치안본부5차장 朴處源치안감등 5명에대한 분리신문에 들어갔다。 검찰은 朴군의 고문치사 사건직후의 은폐공작과정과 구치소면회등을 통해 趙 姜두구속경찰관에대한 회유협박여부에「1억원흥정」이 어떤관련이있는지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趙경위와 姜경사를 다시 신문해 진상을 밝혀내는데 주력하기로했다。

검찰은 범인축소은폐공작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열쇠를 쥐고있는 趙경위가 범인축소를위한 모의과정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 진술을 거부하고있어 수사진전에 애로가있다고 밝혔다。

鄭銖永서울지검장은 27일 새벽 「趙경위가 입을 다물고있어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趙경위가 범인을 5명에서 2명으로 축소, 은폐한 사실은 순순히 시인하면서도 상사의 개입이나 묵인여부에 대해서는 일체함구하고있다」고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趙경위의 부인등 가족들이 주장해왔던 무마용으로 보이는 1억원이 예금된 통장과 그동안의 구치소 면회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등을 수록한 일지등을 확보하면 趙경위등이 상급자의 조작축소 가담여부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해도 진실을 밝히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참고인수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라며 「고문경찰관과 상급자들에 대한 대질신문등 약간의 보강수사와 수사결과를 종합정리하는 작업만 남겨놓고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朴치안감과 劉井邦 朴元澤경정 洪承相경감등 4명은 趙경위등이 기소뒤후에야 범인축소사실을 알았으며 田錫麟경무관은 당시 직위해제된 후였기 때문에 전혀 알지못했다고 진술하는등 범인축소조작및 은폐에 적극 개입하지않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것。

검찰에 따르면 趙 姜 두사람이 상급자들의 범행조작가담및 묵인여부에 대해 할구하고 있는것은 자신들로 인해 사건이 의외의 파문을 일으키며 확대되는데 대한 동료들로부터의 비난을 우려, 자신들의 최초발설을 후회하고 있기때문인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그러나 「趙 姜 두사람이 계속 할구하더라도 충분하고 철저한 주변수사를 통해 이사건 수사를 매듭지을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趙경위의 변호인인 金茂森씨는 趙경위가 진술을 제대로 하지않고 있는데 대해 「지난18일 사제단성명발표이후 趙경위를 접견한적이 없어 정확한 의도를 알수없지만 趙경위가 현재 진상폭로를 통해 사건전환을 이뤄놓은 상태에서 앞으로는 나는 말하겠다」고 말했다。

金변호사는 또 「趙경위가 이미 밝혔던 「고문현장에 없었다」는 주장과 지난 24일 현장검증상황에서 밝혀진 「고문을 지휘했다」는 사실이 서로 달라 趙경위의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느냐는점등도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趙경위와 가족들은 앞으로 법정에서 벌어질 공판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趙경위의 형 趙漢俊씨(47)는 趙경위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대해 「동생이 사실대로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최근에는 면회를 못해 정확한 이유는 알수없다」고 말했다。

당초 은폐한 사람의해 眞實은 밝혀질수 없다

金秉燠추기경 특별강연

金秉燠추기경은 제21회 세계홍보의 날(31일)을 앞두고 26일 저녁 서울明洞성당문화관에서 행한 특별강연 「언론과 교회」를 통해 朴鍾哲군 고문경관축소조작 은폐사건과 관련, 「그토록 진상과 다르게 조작하고 진실을 철저히 은폐하려 한 점은 국민을 한낱 폭도대상으로 밖에 보고있지않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金추기경은 「이 사건 은폐조작과정에 고위층이 간여했으리라는 추정은 당시 검찰의 수사권을 포기하도록하고 경찰이 자체수사하도록 한점만 보아도 판단할 수 있단」고 말했다。

金추기경은 또 「범행의 진상은폐와 조작사실이 폭로된 후 검찰이 수사를 재개하고 있지만 진상은 당초 은폐한 사람들에 의해 밝혀질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제라도 진상이 사실과 하나라도 다름없이 규명되지 못한다면 현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수밖에 없으며 또 한번 국민을 속이는 결과가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海印·法住·雲門寺등 승려3百여명 「法堂 최루탄」항의 斷食

지난18일 경찰이 대한불교조계종 光州 圓覺寺법당에 최루탄을 발사한 사건과 관련, 전국 여러사찰에서 이를 규탄 항의하는 단식기도 집회등이 잇따르고 있다。

△陜川 海印寺승가대학 학인승려 75명은 27일 아침부터 항의단식기도에 들어갔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 「폭력경찰의 사찰탄압」을 규탄했다。

△忠北 報恩 法住寺승가대학 학인승려56명은 圓覺寺경찰난입에대한 항의성명을 내고 25일부터 단식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慶北淸道 雲門寺승가대학 학인승려(비구니) 2백명은 27일오전 성명서를 발표, 「圓覺寺무력난입과 폭력사태에대해 관계당국의 엄중한문책과 부상자 법당기물의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단식기도에 들어갔다。

法堂 최루탄發射 洪道警局長 사과

【光州=金會平기자】 洪明均 全南도경국장은 26일오후3시 光州 圓覺寺를 방문, 지난 18일의 법당내 최루탄발사사태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洪국장은 이날 승려와 신도10명이 항의단식을 하고 있는 이곳을 찾아 예불을 한 뒤 「우리경찰관들이 시위진압과정에서 신성한 법당 경내까지 진입, 많은 누를 끼치게된데 대해 전남경찰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나라위한 기도일 6월7일로 지정

예수교長老會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張東珍목사)는 27일 오전 6월7일을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로 정하고 이날 교회가 일제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총회는 각 교회에 보낸 목회서신을 통해 「논리적으로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4·13선언은 또다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면서 4·13조치의 철회를 주장했다。

眞相 즉각公開하라 자유文人協서 성명

자유실천문인협의회(대표 李淸俊)는 27일 오전 「고문살인은폐조작극을 온국민과 함께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 「현정권은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은폐조작사실의 정확한 진상을 국민에게 즉각 신공개하라」고주장했다。

문인협의회는이성명서에서 「이번 사건으로 모든 진실을 억압하고 거짓명분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현정권의 작태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며 △朴군사건은폐조작중지 △개헌단소속 전국 4천1백여개교회가 일제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聖公會 신부 신도 성명발표후 示威

대한성공회 전국사제단 대표 50여명과 신도 5백여명은 26일 저녁8시 서울中구貞동 서울 대성당에서 金性洙주교의 집전으로 「나라를 위한 특별미사」를 가지며 민주화와 정의실현을 천명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제단은 이 성명서에서 △민주적개헌을 위한 4·13호헌조치의 즉각 철회 △의혹을 남기고 있는 실종변사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업벌 △민주인사탄압중지와 구속자 석방 △朴군사건은폐조작중지 △개헌서명기자 교수 문인등에 대한 탄압중지 △개헌논의의 즉각재개 △반도덕적정권 즉각퇴진등을 요구했다。

民言協서도 규탄성명

민주언론유통협의회(의장 宋建鎬)는 27일 「살인고문기만정권은 물러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에서 보여준 은폐조작성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극한적 상황에 이르게 함으로써 국가가 뒤흔들리는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 △현정권의 즉각퇴진 △은폐조작진상의 공개 △보도지침관련 구속언론인석방 △언론출판진흥회결사의자유보장등을 요구했다。

휴게통

▼…가수 金範龍씨(26)가 운전중 과실치사로 구속돼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는 지난24일부터 「金씨를 면회할 수 없다」는 10대소년들의 문의전화가 하루에 1백통이상 걸려와 경찰관계자들이 딴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특히 이경찰서 형사계에만도 하루에 50~60통씩 이같은 전화가 걸려와 범죄신고도 못받을 형편인데다 25일오후에는 金씨의 동료가수 8명이 金씨를 면회하기위해 경찰서에 들이닥쳐 민원인들이 이들을 구경하느라 한때 큰 혼잡을 빚기도…▼…인기연예인 구속으로 이처럼 일반업무에 지장을 겪고있는 서울강서경찰서는 서둘러 서류를 보완, 구속사흘만인 27일

여성大學 5月 강좌

자녀교육과 자기계발에 관심있는 고교생자녀를 둔 어머니를 초청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I. 청소년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 황 금찬(시인)

II. 大人 어려운 주요교과(英語) 이렇게하면 쉬워진다 주 수도(영재학원 원장)

특별프로그램 — 젊게 사는 비결—다함께 노래해요 남 일룡(가수·레크레이션지도자)

1987. 5. 28(목) 오후 1:40

■ 주최 : 사단법인 한국 평생교육기구

여성大學 교실 (강남전철역 태극당 예식부앞)

행사참가안내
1) 접수 : 전화접수(순위별 500명 마감)
2) 참가자 전원에 강의자료 제공

☎ 553-20

"이번사

새로와 졌습니다

英·韓·中 3개국

다락원 서울 종로 ☎ 736-

진주빌라 분양사무실

평형 실입주금 2층기준 500~

개봉 전철역에서 도보

타자事務

뉴

종로2가 YMCA옆 빠스정

YMCA 501호(종로2가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쪽

시청앞 동방플라자건너

기능이 약해지면……

第20198號 【第3種郵便物(가)급認可】

"이번사건 檢察 汚點… 역사에 남을것"

改閣두의 內務·검찰 주변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 축소은폐공작 회오리속에 재임4개월만에 물러난 鄭鎬溶전내무부장관은26일개각발표 후 장관실에서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제일성으로 『신문기자들 덕분으로 장관자리를 빨리 면하게됐다』고 가시돋친 농담을 던진뒤 『원래 떠나는 사람은 말없이 가는법』이라고 말하면서도 이번사건에대한 언론의 보도에 갚한 불만을 토로.

鄭전장관은 『사건진상이 도대체 어찌된 것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劉井邦경정등이 부하직원들을 살리기위해 사후에 알고 묵인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자기부하를 살리겠다고 묵인한것은 인정상 있을수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은폐공작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지적 보도한 언론을 원색적으로 성토。

그는 『이번 일은 언론의 책임이 크다。「근거없이」 마구 써대는 바람에 국민이 아무것도 믿지않게 된것이니냐。언론이 나라 망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言論」을 들먹이면서 은폐조작사실이 드러난 『책임』을 언론에 돌린뒤 『사실과 다르다면 언론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鄭전장관은 『어떤경우든 민만 해대서는 나라꼴이 안된다』고 말하고 『공부해야할 학생이 데모를 할때 언론이 앞장서서 공격을 해야된다』고 계속 언론을 몰아친뒤 『정치보다 언론에 더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 대한 「성토」로 일관。

鄭전내무는 이날오후 이임식을 가진뒤에도 기자들에게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하고 그동안 국회도 겪어보니 그래서는 안되겠더라。그런 비능률은 고쳐져야 한다』고 말해 이임소감의 대부분을 언론과 국회를 공격하는 것으로 마감한 느낌을 주었는데 이같은 鄭전내무의 「이임의 변」을 함께들은언론사기자들은 『鄭전장관이 4개월의단명장관으로 떠나게된 원망까지 언론에 돌리려는 푸념같다』고 한마디씩。

○…朴군고문치사은폐조작사건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단순히 범죄수사를 한다는 차원이라면 벌써 마칠수 있었다。이번 사건으로 빚어진 모든 의혹을 해소한다는 입장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것이라고 해명。

이 관계자는 또 『법부부장관과 검찰총장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경질케한 이번사건은 검찰이 「욕사발」된 사건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면서 『이렇게된 마당에 더이상 숨길것도 없고 감추지도 않겠다』고 덧붙이기도。

○…이번 개각에서 고시10회출신 丁海昌대검차장이 법무부장관으로, 고시12회출신 李種南법무부차관이 검찰총장으로 기용됨에 따라 막강한 「고시8회시대」가 법무부와 검찰에서 막을 내린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평가。

「고시8회군단」은 그동안 검찰총장 3명과 법무부장관 4명을 배출하는등 법무부 검찰에서 큰비중을 차지해왔고 현재도 8회출신 고등검사장 1명이 근무중。

고시12회출신 검찰총장의 부임에 따라 현재 검찰요직에있는 고시11회이상 6명도 관례대로 모두 퇴진할것이 확실시 되는데다 대검차장 법무부차관 법무부연수원장등 고등검사장자리 3개가 비어있어 연쇄적인 승진전보등 법무부 검찰수뇌부 대폭개편인사가 불가피。

○…검찰수사팀은 고문경찰관들과 삼사들의 대질신문을 마친뒤 26일밤 고문경찰관들은 일단 수갑풀인 서울城東구치소로 돌려보내고 삼사들은 검찰수사관들의 「감시」하에 검찰청사15층 조사실에 철야대기시켜 조만간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가 있을지 모르다는 추측을 낳기도。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趙漢慶경위등의 변호인까지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지는 않을 방침。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고문경찰관들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맞서 법정공방을 벌일 변호사를 수사과정에서 소환, 조사하는 것은 갖은 법조인으로서의 양식을 벗어난 때문』이라고 설명。

○…수사결과발표 시기와 구속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鄭銖永서울지검장은 27일 새벽「개각」으로 새로 들어서는 지휘부가 사건파악을 할수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있어야할게 아니냐고 밝혀 수사결과발표시기가 다소 유동적임을 시사。

수사팀장인 徐翼源2차장도 이날새벽 『조만간 수사가 종결될 것같다。그러나 오늘중 담장 발표나 구속은 없으면 이번 사건 수사결과 발표나 구속은 없으면 이번 사건 수사결과 발표나 구속은 없으면 이번 사건 수사결과

韓國

마지막人選카드…88까지 「교량內閣」성격

임시국무회의에서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나오는 장관들. 앞줄은 「5·26개각」으로 퇴진한 鄭鎭茶내무(우측)(좌)장관.

「5·26」3명 3개 자리 인선 난항

「교통」·「체신」·「내무」

「재정」·「상공」·「농수」

「국방」·「법무」·「문공」

「외무」·「재무」·「교육」

「총리」·「부총리」·「경제」

「대통령」·「국무총리」·「내무

【1955·2·21第3種郵便物(가)급認可】
【1964·1·1登錄番號 가—2號】

上級者 拷問경관 대질신문

朴군사건

檢察 劉井邦경정등 2명 拘束할듯

수사결과 今明 발표할듯

朴鍾哲군 고문치사조작축소사건을 재수사중인 서울지검은 이틀동안의 조사끝에 일단 귀가시켰던 치안본부5차장 朴處源치안감등 5명을 26일 다시 西小門검찰청청사로 불러 마무리 수사를 벌이기로했다。

〈6·7면에 관련기사〉

검찰은 금명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틀동 대공수사 2단5과장 劉井邦경정등 2명을 특수직무유기등 혐의로 구속할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6일에는 고문경찰관 5명과 조작모의혐의를 받고있는 상급자 5명의 대질신문도 벌여 고문범인축소조작에 처음부터 개입했는지의 여부와 조작뒤후 알고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질문중축궁키로 했다。

이중 劉경정은 고문경찰관 5명의 모의에따라 축소조작이 된 후에 이사실을 알고 폭로될것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은폐등조행위를 한것만을 시인했으나 나머지 상급자 4명은 일체 부인하고있다는 것。

鄭銖永서울지검장은 『신속한 사건종결을 위해 수사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며 수사결과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25일 범인축소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朴치안감, 사건당시의 대공수사2단장인 田錫麟경무관, 劉경정, 2단5과2계장 朴元澤경정, 2단5과1계장 洪承相경감등 5명에 대해 이틀동안의 조사를 마치고 이날 오후5시25분경 일단 귀가시켰으나 朴元澤경정은 26일 새벽 다시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25일밤 검찰의 조사를 받은 피의자와 참고인은 이미 구속된 趙漢慶경위등 고문경찰관 5명과 趙경위의 부인과 형 姜鎭圭경사의 부인, 朴鍾哲군의 하숙집주인, 朴군연행조중 하숙집에 잠류했던 鄭래인경장 金변식순경, 朴군사인의 1차보고서를 작성한 대공수사2단4반장 吳근두경위, 조사반원 李태훈경위와 朴元澤경정등 모두 14명이다。

검찰은 고문범인의 축소조작을 폭로한 金勝鄭신부에대해서는 정식소환은 하지않을 방침이지만 자진 수사협조를 요청할것을 검토하고있다。

한편 고문경찰관 5명은 이날부터 議政府교도소에서 실시되는 九老洞 시위사건 구속학생들의 순화교육때문에 25일 오후 서울城東구치소로 이감됐다。

學校주변폭력배 年內에 근절

全大統領 청소년대책회의 지시

全斗煥대통령은 25일 청소년대책확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 있도록 청소년들에 대한 실증적인 사상이념교육을 강화하라』고 말하고 『경로효친의 전통적인 미풍을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체질화할수 있도록 관련시책을 적극 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또 『학교주변 폭력배를 올해안에 완전히 뿌리뽑도록 단속을 강화하라』면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관련협회와 조합등이 자율적으로 단속, 규제토록 유도하라』고 말했다。

平統지역副議長 임명

全斗煥대통령은 26일 周永福수석부의장을 비롯,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지역별부의장들을 유임발령, 임명장을 수여한뒤 오찬을 함께했다。

民主黨 조사단 주장

"檢察 은폐조작 관련 의혹"

2월에 알고도 수사지휘권 발동안해

統一民主黨의 朴鍾哲군고문치사진상조작사건조사단(단장 睦堯相의원)은 26일 서울지검의 申昌彦부장검사와 安商守검사가 지난 2월26일부터 28일까지 永登浦교도소를 방문, 趙漢慶 姜鎭圭 두경관으로부터 고문사건전말을 얘기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수사지휘권을 발동치 않아 검찰이 은폐조작에 관련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 지난1월17일 법무 내무부의 공안관계자와 정부고위층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관계회의를 갖고 朴군사건 수사를 경찰에 맡겼는데 이 회의에서 범인축소및 은폐조작이 모의됐다고 주장했다。

民正黨 週末께 국회소집

民正黨은 朴鍾哲군고문치사진상조작사건을 다룰 임시국회를 이번주말경 소집할방침인것으로 26일 알려졌다。

李春九사무총장은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그러나 각당의 입장이 있는만큼 여야절충을 통해 회기와 소집시기등을 결정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議政府교도소에서 실시되는 九老洞 시위사건 구속학생들의 순화교육때문에 25일 오후 서울城東구치소로 이감됐다。

總心

安武 赫안기부장

鄭寬用부층리

丁海昌법무장관

高建내

金鐘鍵법제처장

司空壹

李種南검찰총장

한 국무위원 22명, 배석위원 4명등 모두 26명 (해외출장중인 건설 교통장관은 대

報勲處	法制處	政務	統一院	科技處	總務處
金瑾洙 (留)	金鐘鍵 (新)	曺淇相 (留)	許文道 (留)	李台燮 (留)	鄭寬溶 (留)
53	52	50	47	48	52
慶尙北州	全北益山	全南靈光	慶南固城	京畿華城	서울
安企部1차장	高麗大법대 정화위원장	연세대행정대학원 장제약회사사장	서울大문리대 실장	서울대농대 처장	東國大법정대
	안기부	서울大문리대	문교부차관	11대의원	출무처
	대통령사정수석비서관	長黨고교장	청와대정무	국회상공위원장	출무처
		중고교사격연맹부회	제1수석비서관	정무제1차관	보안사
		11, 12대民正黨국회의원			국정
					보안사
					보안사
					보안사

南奎등 14명 선발

탁구 출전 선수단 확정

전미오픈 미·6월 표선수단 을 확정

과 양영자(梁英子)를 비롯 일모직 여자팀 중심으로 됐다。

◇선수단 △단장=朴聖仁 독=朴性仁△코치=洪鍾辰 學 △남자선수=安宰亨 李正鶴 朴相哉 南宮在元 △여자선수=梁英子 李桂 美延 金淑 尹正沿 洪順 泰照

쿠바, 中共꺾고 우

天津 국제여자

【北京AP聯合】「쿠바」여 팀이 세계최강으로 불려온 여자대표팀에 3대 2로 갈매기컵 국제여자배구대 우승했다。

「쿠바」는 25일 天津에서 대회마지막날 경기에서 팀픽에 대비、팀을 개편 에、한세트씩 주고받는 접 마지막세트에서 15대 9로 했다。

△결승

쿠 바 3 (13—15, 15—13, 10—15, 15—12, 15—9) 2

(3승) (2승

팀 순위

		승	무	패
①삼	성	20		12
②O	B	17	1	11
③해	태	16	2	15
④롯	데	15	1	15
④빙	그 레	14	1	14
⑥M	B C	15	1	18
⑦청	보	11		23

타수 무안타를 기록、타 10으로 떨어졌지만 여전 문 선두는 유지하고 있 李萬洙 0.402)。

MBC 이광은은 이날 2안타 3타점으로 31타 록、삼성 이만수(30점)를 타점부문 선두에나섰다。

어제 大邱경기 비로

26일 열릴 예정이던 대구(삼성—OB)경기는 에 연기됐다。

스포츠短信

◇제1회 국민체력왕 한국선(禪)체육진흥 6월7일 효창운동장에 회국민체력왕선발대회 참가자격은 40세이상 굽혀펴기등 4개종목이다。

◇「탁구소식」誌 출간 전국가대표 탁구선수 이희(朴利熙)씨가 28일 시반 서울강남구 뉴 신관5층에서 「탁구소 념회를 갖는다。

내일의 경

프로야구 △O (잠실·오서울) 데(인천·MBC라디 레—삼성(대전·이상 제37회 4일째

아마야구 대문구장 제11회 배 전국 대회 3

아마복싱 잠실학생체육관)

박진오(17세)

아 빠가애타게기다림어서돌아오 너라연락주신분金50만원후사오

해남0634㉝1414

傳 林 賞 野

急 이천林野3천평當4천원 교환林2만평상가대지願(591) 4774

광 양신도시계획內자연녹지 當천7백원만2천4백坪(553) 0236

흐름 <독자투고>

<독자투고> 는 여론의 반응

致死사건」등 큰 절망감

力 올바르게 행사돼야

주경찰의 참모습은 민주 과 얼굴이다。다시 생각하 차 끔찍한 朴군치사사건 못한 무수한 비리와 부정 건이 오늘날 이땅에 존재 경찰의 얼굴이라해도 과 아닐 지경에 이르렀으니 은 과연 현정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참으로 기가 노릇이고 국민들은 절망 는것을 알아야할것이다。 복지원 원장은 왜 경찰 위까지 받으며 경찰서내 보할수 있으며 모 야당 당 참담을 방화와 폭력 불특지게한 폭력깡패집단 검거하지 않는가。엄청난 을 소유하고있는 경찰이 면 먹으면 얼마든지 검거 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고있다。이래가지고서야 민주국가에 산다고 말 얼굴이 붉어질수 밖에 않겠는가。또 학교기물에 고 들을던진 학생들에게 못한 짓이라고 무슨 이 맞설수 있겠는가。국가 족의 장래를 생각하여 국 은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釜山시釜山鎭구伽倻동

이상 민족생존을 위하여서라도 거짓을 방관하지 말자。

감 정 옥<서울 江東구 風納동 우일아파트14의405>

時局治安서 사회치안으로 警察 본연임무로 돌아가라

국민을 온통 분노와 비탄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고박종철 군고문치사 사건이 경찰의조작 수사로 드러나 4개월전 박종 철군 고문에 가담했던 경찰관 3명이 추가구속 되었다는 보 도는 다시금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으며 경찰이 그렇게까지 국민들을 우롱하고 감쪽같이 숨기려고 조작극을 벌였었나하 는 배신감과 함께 그 원성이 하늘에 닿고 있다。

그러지않아도 현재의 극한정 국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어수선하고 혼란만 거 듭하는 현시국의 올바른 질서 를 해줄수 있는가。

너무나 많이 속아서 분노하 는 것조차 유치해진다。백성들 은「한 두 번 속았나」라는 자 조의 병을 앓고 있다。만나본 적도 없고 말 한마디 나누어 본 적도 없는 박종철군 죽음앞 에 목놓아 운다。그러나 이 한 죽음을 각색하는 냉혈의 가슴 들을 생각하고 더욱 목놓아 울고싶다。

진실이라는 팻말을 목에 걸 고 백의 민족의 순결정신에 거 짓을 전염시키는 민족 정기의 공해범들은 어떤 벌을 받아야 할까。공식발표…、법대로…、엄 정처벌…、사실규명…등의 불 신의 단어들。차가운 물에 오 래들어가 있으면 차갑다는 감 각이 마비되어 가듯이 조금씩 판단능력을 상실해가는 우리의 이성이 두려워진다。이제는 더 부 타락된 권력층에도 그 책 임이 기인하겠지만 보다 중요 한것은 시국사건으로 불법연행 구속폭행 강압수사로 물의를 자 주빚는 사실로 미루어볼때 경 찰자체의 체질개선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된다。권력층의 눈 치만 살피고 과잉충성으로 아 부하여 급출세를 엿보는 부패 하고 무능한 기회주의자가 있 다면 과감히 제거하고 모순된 제제도는 시급히 정화해야 할 것이며 하루속히 「시국치안」에 서「사회치안」이라는 본연의 자 세로 사필귀정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박 인 배<大邱직할시壽城구池山동380 2통3반>

개인택시 讓渡讓受법안 직업선택권 제한아닌가

얼마전에 입법예고된(7월1일부터시행)개인택시 대리운전 일체금지및 양도양수법 개정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이 있음을 보고 개인적인 소견을 제시한다。새 입법은 ①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병일때 ②해외취업시 ③61세이상이어야만 양도양수가 허용된다고 예고했는데 지나치게 관 위주의 편법이란 느낌이다。

대리운전을 일체 금지시키면 하루에도 몇번의 위험속에서 살아야하는 운전자가 1년미만의 병고와 싸울때는 온가족의 생계수단은 무엇으로 해결하라는 뜻인지。또 30세에 개인택시사업면허자격이 생겨서 61세 환갑까지 양도 양수가 금지되는 조항은 지나친 월권조항으로 생각된다。한마디로 공익성의 서비스업에 대한 사명감 강조등은 이해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슨 직업이든 선택하고 또 전직할수도 있다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한듯한 기분이 들어 10년가까이 해온 운전수라는 내직업에 회의마저 든다。모든 운전자는 그 직업 자체가 「천직」일수도 있지만 자유민주국가에서 그것이 강요성을 띤다면 참으로 부당한 처사라 느껴진다。

유독 개인택시 권리금이 사회문제(일반택시권리금은제외)였다면 그것은 달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좁은 소견이지만 불법을 제외한 정당한 사유의 대리운전은 지금처럼 허용하고 61세 양도금지보다는 현행의 5년제한이 모든 운수종사자들에게 몇배 더 희망적인 생계의 터전이 되고 어떤 직업속에서든 꿈이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더 발휘할것이고 더욱 명랑한 운행풍토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재 규<서울江西구禾谷5동 제2주공아파트7동510호>

축소造作하는 현실 들 보기가 부끄럽다

화교 1학년 2학기 학 바른생활이 있다。이 바 두번째 이야기가 양치 에 관한 것이다。이를테 인 도덕교육 제1장에서 이어갈 후손들에게 심 자 하는 것은 「거짓말을 라」라는 것이 푸른 하늘 백하다。 나 지금 우리어른들은 저 눈동자앞에서 얼굴을 않고 양치는 소년 이야

최고권위·최대판매부수 新東亞

新刊

◆예술과 인간가 (멜빈 레이더·버트 예술의 미적가치 서 종교 도덕 역사 른 분야와 예술과의 명했다。김광명譯。 <이론과 실천

◆철학과 아카데 (

현대독일의 대표 저자의 「철학함이란 와 「대학이란 무엇 게 묶었다。 <종로서적

◆스스로 말하게

빈민지역과 교육 교육、민중현장에서

9회 사

白

馬

제2회전 제6

白, 5戶半勝

세계바둑은 東 日本 中共)을 제 勢가 그 다음이 든다。미주지역만 표선수가 韓國사 本사람이 뽑히는 분이다。이번에도 「브라질」이 우리 國대표는 日本人 나 英國 西獨 佛 지역에서는 순수 사람들로 실력도 들 정도로 좋은 고 있다。

兪선수는 局後 고두고 후회했다 곳에 두어 白한점 고 다음 白이 42 黑47하여 우상구

春江 趙東植博士 記念事業會 委員改編推戴公告

우리나라 國民敎育의 泰斗이시며 特히 女性敎育에 全生涯를 바치시었던 春江 趙東植先生께서 一九六九年十二月二十五日 永眠하신 後 社會 各界各層의 聲援에 힘입어 先生님이 生前에 이룩하신 빛나는 業績을 길이 追慕하기 爲한 記念事業會를 組織 發足하고 墓碑와 銅像建立、그리고 傳記發刊 等 많은 事業을 展開한 바 있읍니다。

그러던중 올해가(一九八七年) 先生님의 誕辰 一世紀를 맞는 뜻깊은 해로서 平素 先生님의 나라사랑과 겨레사랑의 崇高한 敎育哲學의 具現을 爲하여 春江賞制定과 學術세미나 等 劃期的인 事業을 擴大推進함으로써 本會 運營의 活性化를 圖謀하고자 하은데 本會 發足 當時의 委員中에는 이미 他界하신 분들이나 高齡으로 社會活動에 不便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 本 事業의 圓滑한 運營을 爲하여 委員會의 改編이 不可避하여졌읍니다。그러므로 同 記念事業會 委員을 다음과 같이 擴大改編하였아옵기 이에 알려드립니다。

一九八七年五月 日

春江 趙東植博士 記念事業會

會長 金相万

委員

尹潛善 李照昇 金相万 金玉吉 高奉淑 高鳳京 孔錫英 郭鍾元
金君稷 金大成 金台植 金相浹 金東仁 金東夏 金炳敏 金文嬉 金炳三 金尙俊 金錫元
金聖悅 金信溶 金演洙 金運俊 金容甲 金龍煥 金沅培 金有洙 金允植 金一斗
金一煥 金正厭 金在鉉 金鍾順 金鍾大 金鍾翊 金鍾漢 金鍾泌 金鍾協 金駿基
金俊喆 金俊燁 金芝壽 金千洪 金忠顯 金顯燮 金鍾翊 毛允淑 文鴻柱 関庚玄
関寬植 関復基 朴權欽 朴大善 朴東奎 朴允燮 朴一慶 朴正淑 朴哲雄
朴賢錫 朴南俊 方又榮 方一榮 方貞福 徐基源 徐明源 徐姬錫 石宙善
孫貞順 孫鍾國 宋慶國 宋元英 申明淳 辛鳳祚 沈揆亨 安東濬 安世熙 安鍾一
安椿生 安浩相 嚴圭白 吳仁甲 吳天錫 元吉鎭 元興均 柳九桓 劉成鍾
柳承潤 劉承潤 劉信榮 柳寅溶 柳在新 兪鎭午 兪致雄 陸鍾浩 陸泰城 尹日善
尹鍾玉 尹宅重 李康鎬 李光灼 李琦烈 李能雨 李東寧 李敏燮 李丙燾
李絆烘 李水東 李鶴源 李順陽 李順愛 李甯柱 李尹鎬 李達瑞 李仁喜
李鍾基 李鍾基 李鍾貫 李鍾喆 李俊邦 李振毅 李天煥 李春基 李潤子 李寅基
李賢洙 李憲鎬 李興洙 李寧順 任哲淳 鄭泰時 鄭漢模 任亨彬 張德鎭 張成 李泰極
田炳坤 鄭九鎬 丁潤鎭 丁一權 趙敬姬 趙折烘 趙南植 曹武成 張世昌 張在九
趙福英 趙水植 趙完圭 趙貞嬉 趙容烈 趙容觀 趙鍾九 趙容驥 趙容福 趙容奭
趙容祁 趙義英 趙容珏 趙重敏 趙容珏 趙鍾九 趙容驥 趙容福 趙容奭
崔愛卿 趙元英 趙義英 趙貞嬉 崔玉子 崔龍贊 崔儀卿 崔順英 朱尚宇 朱永夏 池達鉉 崔在旭 崔在裕 崔奎南
崔烈坤 崔德休 許雄 洪基昶 洪性旭 洪淑子 洪淳暐 洪允淑 洪逸杓 黃山德 黃善必 韓景職
韓唐頊 黃壽永

學校法人 同德女學團

ENTERPRISE, MON

투표의 是非

第20198號 【第3種郵便物(가)급認可】

수재민 전체 구호해야 [illegible]

本紙新聞 [illegible]

수재민 전체 구호해야 [illegible]

수재민 전체 구호해야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1955·2·21第3種郵便物(가)급認可】
【1964·1·1登錄番號 가—2號】
第20198號

檢察 부패와 범죄 소탕에 총력

부조사건 1億원 돌파 捜査力 집중

姜전治安本部長 참고인 소환 검토

朴鍾哲군 부조사 관련 수사 중요 단계 진입

검찰은 26일 2차 소환한 전 치안국 5처장 朴鍾哲씨를 밤늦게까지 조사한 결과 부조사 관련 수사가 중요 단계에 진입했다고 보고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전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朴씨를 조사한 결과 그가 지난 23일과 24일 조사를 받기 전

趙경위 면담거부 辯協서 항의성명

"金 前법무 교도소방문도 의혹"

대한변협의 朴鍾哲군고문치사 축소조작사건 진상조사단(단장柳銘錫변호사)은 26일 조사단이 25일 議政府교도소를 방문, 趙漢慶경위등에 대한 전견및 면회일지 신분카드열람요구등을 교도소측이 거절한데 항의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가 현장검증에 참여할것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아무런 통고없이 이른 새벽에 현장검증을 실시한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특히 이성명서에서 『지난2월27일 서울지검 安商守검사가 영등포교도소를 방문, 趙경위등을 만나고 간뒤 다음날 金聖基전법무장관이 극히 이례적으로 이교도소를 불시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는 이어 『3월3일에는 서울지검 申昌彦부장검사가 영등포교도소를 다녀갔고 사흘뒤인 3월7일 趙경위등은 갑자기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감은 절등으로 미뤄볼때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하는 검찰수뇌부가 이사건 축소및 조작은폐과정에 깊이 개입된것이 아닌가하는 깊은 의혹을 풀지 않을수 없다』고 주장했다.

拷問경찰관 5명 城東구치소 이감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議政府교도소에 수감중인 趙漢慶경위등 5명의 경찰관이 25일 오후 서울城東구치소로 이감됐다.

議政府교도소측은 九老洞연합시위와 관련, 구속된 60여명에 대한 순화교육을 위해 趙경위등을 이감시킨것으로 알려졌다.

「조작」혐의 劉경정 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 축소조작혐의를 받고있는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劉井邦경정이 25일밤 검찰의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지검청사로 들어가며「괴로운표정」을 짓고있다.

재판 지켜본후 眞相 또 밝힐터

金勝勳신부 "檢察소환요구엔 不應"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 金勝勳신부는 26일 검찰이 자신을 출두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대해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이와관련한 아무런 연락이나 접촉도 없었다』며 『현재의 검찰수사팀이 소환을 요구하는 등 어떤 조사협조요청을 해와도 절대 응하지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金신부는 『이번 조작사건에 직접 연루돼있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는일』이라고 주장하고 『사건의 진상을 올바로 파헤치기위해서는 대한변협이나 정치인 종교인 교수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에 이사건의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신부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는 우리 사제단이 알고있는 진상과는 큰차이가 있다』며 『이 사건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에 우리가 알고있는 진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李炳高 피고에 징역12년 선고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李鐵煥부장판사)는 26일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5년 자격정지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서울대지리교육과교수 李炳高피고인(49)에 대해 징역12년 자격정지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재판을 받은 전민주교육실천협의회사무국장劉相德피고인(37)에게는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을 ,任錫會피고인(27·전서울대지리과조교)에게는 징역1년6월 자격정지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大盟休결의

總學生會서 내일부터

서울대 총학생회는 25일정오 朴鍾哲군고문사건 조작진상규명과 4·13담화철폐를위한 동맹휴업을 오는27일부터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에앞서 총학생회장 李南周군(22·경제학과4년·수배중)과 단과대 학생회장등 학생회간부 10명은 25일부터교내 학생회관4층 총학생회실에서 「고문치사조작규탄및 호헌분쇄」를 위한 단식을시작, 26일현재 이틀째 단식을 벌였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동맹휴업에 대비, 각단과대학장들에게 출결석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휴강하지말것을 지시했다.

李泰昊씨등 2명 출석요구에 不應

民主黨 정강관련

통일민주당정강정책수사와 관련, 검찰의 2차출석 요구서를 받은 李泰昊씨(42·金大中씨비서실전문위원) 安炅律씨(崔炯佑민주당부총재보좌관)등 2명이 26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앞서 25일李協씨(47·전신민당보추간)와 金總斗씨(36·전신민당정책실전문위원)등 2명이 출석하지 않아 이사건수사와 관련, 2차 출석요구서를 받은 4명 전원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검찰관계자는 그러나 『시기가 좋지않아 구인장발부가 당장은 어려울것같다』고 말했다.

拷問조작등 규탄 전국24개大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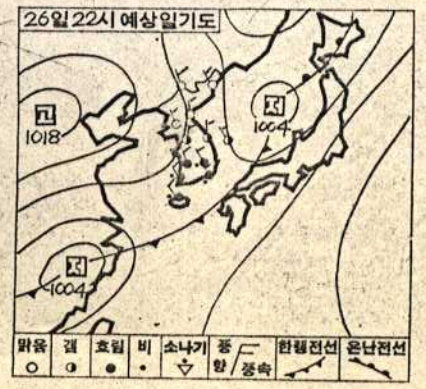
25일 한달동안 전국24개대학에서 7천5백여명의 대학생들이 朴鍾哲군사건조작규탄 호헌철폐등을 주장하며 교내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서울에서는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광운대 경희대등10개대에서 2천7백여명이 지방에서는 고려대조치원캠퍼스 한양대안산캠퍼스 전북대 경상대등 14개대학에서 4천8백여명이 교내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POONGSAN
마크를 확인하십시오.
주택의 가치를 높여주는 —
풍산銅파이프

날씨 <27일>

26일 22시 예상일기도



지역별	온기
서울	13~24
水原	12~24
白翎島	11~16
大田	14~25
淸州	14~25
春川	11~26
江陵	13~23
光州	20~26
全州	19~25
濟州	20~24
釜山	17~22
大邱	16~24
鬱陵島	13~23
平壤	10~24
中江鎭	8~25
咸興	11~20

△일출 06·15 △일몰 20·43 △월출 05·32
※仁川 밀물06·02 18·06 썰물12·07 00·08
※群山 밀물04·08 16·11 썰물10·50 22·47

◇서울·京畿=북서~북동풍 구름조금
◇白翎島=북서~북동풍 구름조금
◇忠淸=북서~북동풍 구름조금
◇江原=북서~북동풍 구름조금
◇全羅=북서~북동풍 흐린뒤 맑음
◇濟州=북서~북동풍 흐린뒤 맑음
◇鬱陵島=북서~북동풍 흐린뒤 맑음
◇西海中部=북서~북동풍 8mm 구름조금
◇西海南部=북서~북동풍 12mm 비온뒤 갬
◇南海西部=북서~북동풍 12mm 비온뒤 갬
◇南海東部=북서~북동풍 12mm 비온뒤 갬
◇東海南部=북서~북동풍 12mm 비온뒤 갬
◇東海中部=북서~북동풍 12mm 구름조금
△항로특기사항=먼바다 파고 2~3m
파고 1·5m 안팎
파고 2·2m 안팎
파고 1·1m 안팎
파고 1·5m 안팎

새內閣서 眞相규명해야

——改閣에 기대하는 국민의 소리

汎洋사건도 파헤쳐길 公權力 신뢰회복 시급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진상은폐축소조작의 회오리속에 26일오전 정부의 부분개각발표가 있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뉴스에 귀를 기울이면서 새로 기용된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들의 면모를 살펴보기도 했다。국민들은 내무 법무 검찰총장 경질이 포함된 이번 개각이 朴군사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은 점부의 인사조치라고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내무 법무 검찰등 朴군사건관련부처는 사건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감을 씻어주어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새내각은 최근 우리사회에 분노와 충격을 던져준 범양사건과 朴군사건범인축소조작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국가공권력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시키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정의로운 사회구현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들은 이번 개각이 朴군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은 있지만 범양사건에 대한 책임추궁에는 미흡한 인상을 주는등 석연치 않다는 반응도 보였다。

◇沈允宗씨(설균관대사회대학장)=이번 개각은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를 회복할수있는 좋은 계기가 돼야 하는데 정부의 기강을 바로잡는다는 의지가 뚜렷하게 보이지않는 내용에 그친 아쉬움이 있다。책임인사라기보다는 또한번 자리바꿈을 한 것에 불과한 느낌이 든다。

새 각료들 가운데도 최근의 범양상선사건이나 朴鍾哲군사건에 연대책임을 져야할 인사들이 끼어있는 것으로보여 「쇄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인상이다。또 형제복지원사건이나 학원사태등에 책임을 져야할 각료들이 유일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金祥根목사(한국기독교회협의회고문목련대책위원장)=개각도 국민에대한 사과의 도덕성이 관바로 회복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선진국에서처럼 정권이 모두 퇴진하는 결단은 어렵다하더라도 최소한 국민의신임을 묻는 과정이나 조치가 선행됐어야한다고 믿는다。

정부는 아직도 움어리져있는 국민의 허탈감과 울분의 심도를 정확히 파악해 이사건에대한 납득할수 있는 수사결과를 보여주어야 할줄 안다。

◇韓完祖교수(서울대사회학과)=이번개각이 朴군고문치사사건의 은폐조작때문이라면 원칙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중폭이건 소폭이건 개각을 통한 민심수습보다 朴군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한 은폐조작의 실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무총리에게 보냈다。

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 마이클 브린)은 25일 외국기자들의 보도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항의하는 서한을 에서「고문치사조작규탄및 호헌분쇄」를 위한 단식을시작, 26일현재 이틀째 단식을 벌였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동맹휴업에 대비, 각단과대학장들에게 출결석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휴강하지말것을 지시했다。

趙경위 부인등 참고인조사

檢察 일단歸家시킨 警察간부 5명도 재소환

朴鍾哲군고문치사축소조작사건의 수사전모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짐에따라 검찰은 26일 일단 귀가조치한 치안본부 고위간부5명을 비롯한 趙漢慶경위의 부인등 참고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를 벌이는등 마지막 마무리 수사에 나섰다。

조작축소사건과 관련, 대공수사단간부 5명을 귀가시킨 25일 오후부터 검찰수사는 소강상태에 빠진듯했으나 25일밤부터 가족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한데 이어 26일오전 개각발표가 있자 수사족결을 위한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또 범인축소조작및 은폐사실을 최초로 발설한 고문경찰관들과 이를 전해들은 가족 변호사및 사건보고서를 작성했던 경찰관등에 대한 주변조사를 통한 관범위한 방증자료 수집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한 관계자는「범인체포의무가 있는 경찰이 범인인줄 알고서 체포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만 범인을 체포하지 않는데 사회적상당성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경찰상급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작, 은폐에 개입하지 않고 사후묵인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범죄성립에 논란이 있을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도 해 주목을 끌기도했다。

현재 田錫麟경무관은 文永皓검사, 劉井邦경정은 裵在旭검사, 朴元澤경정은 李承玖검사, 洪承相경감은 朴商玉검사가 각각 수사를 맡고 있다。

이날 청사에는 鄭鍊永서울지검장이 6층사무실에 남아 수사진전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며 3, 4차례 15층 조사실로 직접올라가 수사검사회의를 주재했다。

外信기자클럽 취재방해 항의

서울외신기자클럽(회장 마이클 브린)은 25일 외국기자들의 보도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항의하는 서한을 국무총리에게 보냈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이 항의서한에서 △정부관리들이 최근 光州에서 발생한 시위때 외신기자완장을 착용하고 활동했으며 △光州시위를 담은 美NBC방송의 비디오테이프중 일부가 검열로 보도되지 못했고 △경찰이 언론인들에게 고의적으로 최루탄을 발사한듯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작」혐의 劉경정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축소조작혐의를 받고있는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劉井邦경정이 25일밤 검찰의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지검청사로 들어가며「괴로운표정」을 짓고있다。

趙경위 면담거부 辯協서 항의성명

"金 前법무 교도소방문도 의혹"

朴鍾哲군고문치사 축소조작 및 은폐사건의 검찰수사에 있어 개입된것이 아닌가하는 깊은 의혹을 풀지 않을수 없다는 변협의 성명이 나왔다。

변협은 25일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朴鍾哲군고문치사 사건 발생직후 金炳朗법무부장관이 교도소를 방문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방문이 사건은폐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혹을 풀기 바란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이번 사건 발생직후 대한변협 등 인권단체들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을 때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 단체를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단체」로 몰아붙인 것은 사건의 은폐를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변협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해한

대학 교수 등 학생 지도에 나서야

교내 소요 등 사태 수습 위해

—現場 지도에 노력 촉구

[第3種郵便物(가)급認可]

전국대학교 24일 전국대학교수단은 교내 소요 등 사태 수습을 위해 현장 지도에 나서야 한다는 결의를 했다. 2일 전국 대학 교수들이 모여 결의한 것이다. 또 학교 측에 대해 학생 지도에 나서야 한다는 결의를 했

警官 5명 모두 拷問가담

朴군사건 「130일만의 現場검증」

"접근금지" 朴군사건 현장검증에 참여한뒤 의정부교도소로 호송되는 고문경찰관들을 촬영하기위해 보도진들이 梨泰院까지 쫓아가 호송차를 가로막았으나 전경들이 동원돼 밀어내고 있다.

趙경위 現場에서 자진자수 후

姜경사는 옥조서 머리눌러

피멍 손가락出血반점 생긴 과정 再演안해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24일아침 7시20분경부터 40분동안 서울지검형사2부 申昌彦 金東鎭부장검사의 지휘로 서울龍山구 漢月동 치안본부대공수사단분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현장검증은 朴군이 지난 1월14일 아침8시10분경(경찰발표)치안본부대공수사2단건물 5층8호실에 연행돼 낮11시20분경 9호실에서 물고문을 받다 숨질때까지의 중요장면만 재연됐다.

이미 구속기소된 趙漢慶경위와 姜鎭圭경사 그리고 추가구속된 黃正雄경위 潘金坤 李正鎬경장은 議政府교도소로부터 버스편으로 호송돼와 지친 표정으로 모든것을 체념한듯 검사의 지휘에 따라 법행당시의 행위를 순순히 재연했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현장검증의 공개방식은 대공수사단건물이 보안구역이라는 점을 고려, 법조출입기자 2명만 입회해 지켜보는가운데 진행됐으며 사진기자들은 들어가지 못했으나 검찰수사팀의 촬영기사가 법행재연장면을 일일이 촬영했다.

이날 현장검증에서 숨진 朴군의 대역은 고문경찰관들을 호송해온 의정부교도소소속 교도관이 맡았다.

이날 현장검증과 물고문은 여러차례 있었던것으로 밝혀졌으며 朴군이 숨진 치명적인 사인은 양손이 등위로 묶인 상태에서 고문경찰관 黃경위와 潘경장이 朴군의 양겨드랑이를 끼고 李경장이 뒤에서 朴군의 바둥거리는 두다리를 들어올린 뒤 姜경사가 욕조안에 들어가 머리를 끌어당겨 물이담겨 있던 기자들에게 마치 설명하듯이 나열한 사망까지의 과정을 추정으로만 짐작하는 부의 뒤잔을 듣기도 했다.

申부장검사는 검증현장에서 『처음에는 姜경사가 범행을 부인하며 버티기도 했으나 이제는 범행일체를 시인했다』며 『가족들에게 체면을 살리기위해 한 변명이 엉뚱한 방향으로 재연됐다』며 『가증적인 사인은 물고문에 의한 치명적인 사인은 물고문에 의한 치명적인 사인은 물고문에 의한 치명

第20196號 【第3種郵便物(가)급認可】 東亞日報

초췌한 모습… 틀린대목 고쳐줘

"뭐라고 위로를…" 朴鍾哲군사건의 범인축소조작사실을 폭로했던 金勝勳신부가 24일오후 朴군의 아버지 朴正基씨(58)와 우연히 대면,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읍니다』고 위로하자 朴씨는 『감사합니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趙경위 변호사 面會 방해
경찰, 이사도 강제로 시켜
"말안듣으면 쏴죽인다" 상급자 협박도

民主黨 진상보고

統一民主黨의 朴鍾哲군고문사건 범인조작진상조사단(단장 睦堯相의원)은 25일오전 趙漢慶경위의 아버지 趙신호씨와 담당 金茂森변호사 및 權태정議政府교도소장등과의 면담내용을 토대로한 조사결과를 黨확대간부회의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趙신호씨의 말을 인용, 『趙경위의 상급자가 교도소로 趙경위를 찾아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5명을 모두 총으로 쏴죽이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히고 『趙경위가 변호사 선임과 접견을 자꾸 번복한 것은 이같은 위협과 공갈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 『趙경위가족들이 서울葛峴洞에서 지금의 城山洞아파트로 이사한것은 경찰의 종용때문이었으며 가족들은 처음에 반대했으나 경찰은 새벽에 차를 가지고 와서 짐을 강제로 실어갔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또 『최근 경찰이 가족들을 찾아와서 제보여부를 묻고 돌아갔다』고 보고하고 『가족들은 「총으로 쏴죽이겠다는 위협도 있고 해서 엄두도 못냈다」며 제보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趙경위의 담당변호사 金茂森씨가 趙경위에 대한 접견을 방해받았음이 金변호사에 의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睦위원장은 이번사건 조사과정 설명을 통해 『朴군고문살해 범인은 당시 현장에 나갔던 의사 吳演相씨의 증언등으로 보아 6명인 것으로 확실히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睦의원은 또 『범인 趙, 姜두사람을 永登浦교도소에서 議政府교도소로 이감시킨것은 법부부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는 검찰과 법부부당국이 사건조작내용을 사전에 알고했던 행위』라면서 『검경당국은 공작차원에서 이사건의 마무리될때까지 가족들과 私選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睦의원은 또 『지난5월초순 임시국회에서 姜三載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朴군고문현장에 경찰관6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총리와 내무 법부장관은 2명뿐이라고 위증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사건진상을 알고 있으면서 국민을 우롱한 사실에 대해 현내각은 정치적 형사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現場검증과 수사 주변

○…자신들이 편소 근무하던 조사실에 포승과 수갑이 차인채 현장검증을 하기위해 나온 5명의 고문치사경찰관들은 초췌한 모습에 기운없는 표정으로 검사의 지시에 따라 고문법행장면을 재연。 이들은 현장검증시 가끔 침묵을 깨고 서로 기억을 되살리며 동료가 서있던 위치나 동작을 바로잡아주기도。

이들은 趙경위를 부를때 옛 상관명칭 그대로 「반장님」이라 불렀으며 현장검증을 도 인사를 꾸벅꾸벅하는 모습들。

○…24일 새벽6시27분 趙漢慶경위등 피의자5명을 태운 의정부교도소소속 경기5가1108 대형호송버스가 들의 모습을 보기어려운 상 영불수있는 앞유리창에는 4

檢證경황에도 前上官보자 人事
朴군代役 의정부교도관이 맡아

부 대공수사단임부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앞에서 차를 가로 막고 사진기셔터를 누르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결국 그게 만들었으며 그나마 안을

지켜보기위해 나온 대공수사단 간부들을 보자 경찰들중에 교도관들이탄 파란색프레스토를 앞세우고 南營洞치안본부 태였다。 호송버스는 앞유리창에 「긴 벽」을 치고 가로막아 완전

~5명의 호송교도관들이 「장급호송」이라고 쓰인 표지를 붙인채 앞유리창을 제외한 모든 유리창에 철판을 붙여 밖에서는 전혀 들여다볼수없

차단。

이같은 모습을 지켜본 취재기자들은 『趙경위등 3명이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구속수감될때 경찰이 편 「기만작전」과 다를게 뭐냐』고 한마디씩。

○…이날 현장검증에는 朴鍾哲군 대역을 미처 구하지 못해 잠시 혼란을 겪었으나 고문경찰관들을 호송해온 의정부교도소의 교도관중 한사람을 급히 대역으로 만들어 현장검증을 실시。 申부장은 검증이 진행되는동안 사진촬영팀에 앞서 구속된 趙漢慶 姜鎭圭 두경관은 순수대공요원인을배려, 『정면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옆모습만 찍으라』고 주문。

姜鎭圭경사는 「물고문」재연도중 『내가 욕조바에 나와있는 장면도 찍어달라』고 검사에게 요청, 潘崑李경장만이 물고문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이때 검사는 『1차, 2차로 물고문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해 여러차례 물고문이 실시됐음을 암시。

○…고문경찰관들의 현장검증을 하루앞둔 23일밤 10시50분경 鄭銶永서울지검장은 검사장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날씨등지시안본부대공수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며 『현장검증이 끝나기 까지는 보도를 보류해달라』고 신신당부。

鄭검사장은 『미국에서 FBI를 시찰할때 미국측에서 다른 장소는 다보여주면서도 조사실만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더라』며 『수사기관의 조사실을 일반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협조를 부탁하기도。

○…현장검증에 앞서 申昌彦부장검사는 대공수사단 1과장실에서 수사단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수사단건물의 내력에 대해 설명하기도。

申부장검사는 『수사단건물은 지난76년 당시 치안본부 3부장이던 金東喆씨에 의해 세워졌다』며 『金씨는 스위스등 10개국의 수사관계건물을 살펴본뒤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조사실이 호텔방처럼 시설이 잘되어있는 편』이라고 강조했는데 조사실의 벽은 방음장치가 되어있고 바닥은 주황색타일이깔려있다。 朴군이 머물렀던 8, 9호실은 3·5평이고 14호실은 6평짜리 조사실。 조사실에 놓인 책상과 의자는 모두 불박이인것이 특징。

침통한 現場검증 40분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의 현장검증이 실시된 24일아침6시경 기자는 서울龍山구 葛月동 대공수사단 근처에 도착해 세겹으로 편 경찰경비망을 지날때마다 신분증을 제시하며 정문앞에 이르렀다。 일요일인데다 이른아침이어서 인적이 드물었다。 전경 3백여명이 삼엄하게 경계중인 대공수사단주변 골목에는 이른아침의 냉기만 느껴질뿐 행인들은 한사람도 눈에띄지않았다。 고문경찰관들을 태운 議政府교도소 호송버스가 나타나자 굳게 잠겨있던 대공수사단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그러나 趙漢慶경위의 지시에따라 경찰관4명이 치명적인 물고문을 재연하는 장면에서는 「공권력폭력화」의 실상을 보는듯해 전율했다。 검찰이 당초 수사를 펼때 이같은 현장검증을 했더라면 『2명이 물고문을 하는 과정에서 朴군이 숨졌다』는 趙경위와 姜경사 자백의 허무성을 충분히 밝힐수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장검증이 40분만에 끝나고 얼마전까지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들이 다시 포승에 묶여 호송버스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대공수사단간부들의 표정은 더없이 무거워 보였다。 현장검증을 지휘한 검사는 검증과정을 시종 취재한 기자와 악수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만난것은 오랫동안 눈에띄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었던 고문경찰관들의 재연을 보는 것을 실감했다。

호송버스에서 내리는 피의자들은 잠기간 외부와 격리된 구금생활과 철야수사에 지친듯 초췌하고 풀기없는 표정이었다。 푸른 수의차림에 포승과 수갑으로 결박된 이들이 한 젊은 대학생을 사망에 이르도록 고문한 범인들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현장검증은 경찰관들이 고문가담사실을 이미 시인했기 때문인지 재연거부나 이의제기를 별로 하지않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지휘검사들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중요장면만을 재연시켜 朴군의 연행부터 고문현장에 이르기까지 고문경찰관들의 지시에따라 경찰관들이 고문가담사실을 재연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趙경위는 팔짱을 끼고 고문에 필요한 부하직원들을 불러오고 고문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차장부터 과장까지 고문범행을 지휘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趙경위는 팔짱을 끼고 고문에 필요한 부하직원들을 불러오고 고문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모습을 재연하는 차장부터 과장까지 고문범행을 지휘하는 장면을 재연했다。

다시 물고문이 있던 李경장까지 黃 姜등은 같은 하고 새로 할 은 朴군의 다리를 붙잡고 들어올림

睦의원은 또 『범인 趙, 姜두사람을 永登浦교도소에서 議政府교도소로 이감시킨것은 법부부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는 검찰과 법부부당국이 사건조작내용을 사전에 알고했던 행위』라면서 『검경당국은 공작차원에서 이사건의 마무리될때까지 가족들과 私選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睦의원은 또 『지난5월초순 임시국회에서 姜三載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朴군고문현장에 경찰관6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총리와 내무 법부장관은 2명뿐이라고 위증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사건진상을 알고 있으면서 국민을 우롱한 사실에 대해 현내각은 정치적 형사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 삼성동 홍실(삼익) 아파트 단지내 투자가치 100%의 최대 수익성이 보장되는
독점상가 분양및 임
대의 상권과 완벽한 시설로 수익성이
실한 이만한 점포를 보셨읍니까?
실(삼익)아파트 단지내 완전 독점상권
장과 동시에 고소득을 보장받을수 있음
자가치로서 또 하나의 황금자산을 탄생
전세점포당 350만
분양점포당 640만
월세점포당 150만

들린대목 고쳐줘

朴군아버지「아들의발자취」따라 보낸 하루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실시된다는 소식을 들은 朴군의 아버지 朴正基씨(58)는 24일 새벽 釜山에서 급히 상경해 검증 모습을 지켜보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한번 안타까와했다.

朴씨는 갈수록 사건의 조작과 은폐의혹이 커지고 수사당국이 발표한 연행시간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등이 가족들이 생각하고있는 사실과는 다른것같아 현장검증장소에서 「무언의 시위」를 벌이기 위해 상경했다는 것.

朴씨는 이날 현장검증 모습을 보지 못하자 아들의 하숙집과 강의실 치안본부대공수사단 碧蹄화장터와 아들의 유골을 뿌린 샛강등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지금까지 가족들이 생각해온 의문점과 사건당시 느꼈던 심정등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마음을 달랬다.

朴군이 처음으로 경찰에 연행된 장소인 冠岳구新林9동246의26 하숙집은 지난 2월말 집주인이 바뀌고 담장과 간판이 새로 단장되는 등 이전 모습과 달라져 있었지만 朴씨는 이날 현장검증 모습을 보지 못하자 아들의 하숙집과 강의실 치안본부대공수사단 碧蹄화장터와 아들의 유골을 뿌린 샛강등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지금까지 가족들이 생각해온 의문점과 사건당시 느꼈던 심정등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마음을 달랬다.

朴군이 처음으로 경찰에 연행된 장소인 冠岳구新林9동246의26 하숙집은 지난 2월말 집주인이 바뀌고 담장과 간판이 새로 단장되는 등 이전 모습을 보지 못하자 아들의 하숙집과 강의실 치안본부대공수사단 碧蹄화장터와 아들의 유골을 뿌린 샛강등을 차례로 둘러보면서 지금까지 가족들이 생각해온 의문점과 사건당시 느꼈던 심정등을 차분히 정리하면서 마음을 달랬다.

朴씨는 아들이 다니던 서울대인문대언어학과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일요일이어서 사무실은 문이 잠긴채 텅 비어있었다.

朴씨는 아들이 2학년때 학과대표를 맡으면서 매우 적극적이었고 지난해7월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받고 출소한 뒤로는 신중하게 행동해왔다고 전했다.

아들은 특히 지난해 구속됐을때 옥중에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집에 보내올 정도로 자신이 욕되고 생각되는 일은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는 성격이어서 경찰에 연행된뒤 더욱 많이 얻어 맞는등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朴군의 유품은 사건직후 경찰이 하숙방을 뒤져 모두 수거한뒤 소각해버려 거의 남아있지않은 상태. 朴씨는 아들 입학식때 학교에서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인화과정에서 못쓰게돼 몹시 아쉽다고 말했다.

「아들의 유품이라도 지니고 싶다는 제 엄마의 희망에 따라 지난3월 치안본부대공분실에 찾아가 아들의 주민등록증과 성적표 렌즈소독기가 들어있는 손가방들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어요」

朴씨는 서울대에서 헛걸음을 하고 이날새벽 현장검증이 실시됐던 치안본부대공분실(현재는 대공수사단)건물주변에서 서성거리다 발길을 다시 돌렸다.

그동안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위해 변호사들과 꾸준히 접촉해오다 이들 대한변협에 일임한 朴씨는 지난4월초 모변호사가 「범인2명이 심경변화를 일으키면 중대한 사건이 터질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사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것을 미리 알았다고 말하고 「가족들은 경찰에 감시당하면서 괴전화 괴편지에 시달려야했다」고 밝혔다.

사건직후 朴씨는 경찰로부터 「아들이 술에 취해 행동이 엉망이었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어 「운수가 사납우면 쉽게 죽을수도 있다」고 체념까지 했으나 지금까지 무수한 거짓말로 가족과 국민들을 우롱해온 경찰에대해 이제 기대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2명이 물고문으로 죽었다 ↓5명이 죽었다는 발표가 계속 바뀌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朴씨는 「거짓말이 금방 탄로되더라도 일단 속이고 보자는 식의 경찰속성에서 나온 발표는 믿을수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족들의 힘만으로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기는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며 내년초쯤 딸(恩淑·24)이 대학을 졸업하면 서울에 사는 큰아들(鍾富·30)네 집으로 이사해 본격적으로 소송에 임하겠어요」

이날 석양무렵 朴씨는 아들을 화장했던 京畿도高陽군 碧蹄읍 화장터를 찾은뒤 또 한번 후회했다.

「아들의 무덤을 만들었어야 하는건데 객사한 아들을 집으로 데려갈수도 없었고…… 당시 서울부근에 적당한 묘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아들의 유품이 남아있지 않아 아쉬운데 시신마저 한줌의 재가 돼 허공에 날려버려 한이 맺힌다고 후회했다.

朴씨는 이날 저녁무렵 아들의 시신이 재가 돼 뿌려진 화장터 부근 냇가를 찾아가 아들의 원혼을 달랬다.

그날 얼어붙었던 샛강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으나 다시 찾은 아버지 朴씨의 호곡에도 응답은 없었다.

朴씨의 눈물이 조용히 흐르는 그 냇물위로 또다시 뿌려지면서 아들의 시신을 한줌의 재로 흩날리던 그날의 마지막 고별의 목소리가 여울져 되울리는 듯 했다.

……철아 잘 가그래이…이 아부지는 아무 할말이 없데이……

<尹相參기자>

朴군 하숙집 주인 바뀌어
유골뿌린 江서 원혼달래

"뭐라고 위로를…" 朴鍾哲군사건의 범인축소조작사실을 폭로했던 金勝勳신부가 24일오후 朴군의 아버지 朴正基씨(58)와 우연히 대면,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읍니다』고 위로하자 朴씨는 『감사합니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현장검증과 수사 주변

○…자신들이 평소 근무하던 조사실에 포승과 수갑이 옛 상관명칭 그대로 「반장님」이라 불렸으며 현장검증을 도 인사를 꾸벅꾸벅하는 모습들.

○…24일 새벽 6시27분 趙漢慶경위등 피의자5명을 태운 의전구교도소소속 경기5가1108 대형호송버스가 부대공수사단입구에 도착하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앞에서 차를 가로 막고 사진기셔터를 누르는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결국 그게 만들었으며 그나마 안을 보여주지 않아 차창에 철관을 붙여 박에서는 전혀 들여다볼수없었던 조사실에 포승과 수갑이 옛 상관명칭 그대로 「반장님」이라 불렸으며 현장검증을

趙경위 변호사 面會 방해
경찰, 이사도 강제로 시켜
民主黨 진상보고
"말안들으면 쏴죽인다" 상급자 협박도

統一民主黨의 朴鍾哲고문사건 범인조작진상조사단(단장 睦堯相의원)은 25일오전 趙漢慶경위의 아버지 趙신호씨와 담당 金茂森변호사 및 權태정議政府교도소장등과의 면담내용을 토대로한 조사결과를 黨화대간부회의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趙신호씨의 말을 인용, 「趙경위의 상급자가 교도소로 趙경위를 찾아와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5명을 모두 총으로 쏴죽이겠다」고 말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히고 「趙경위가 변호사 선임과 접견을 자꾸 번복한 것은 이같은 위협과 공갈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또 「趙경위가족들이 서울麻峴洞에서 지금의 城山洞아파트로 이사한것은 경찰의 종용때문이었으며 가족들은 처음에 반대했으나 경찰은 새벽에 차를 가지고 와 서 짐을 강제로 실어갔다」고 전했다.

조사단은 또 「최근 경찰이 가족들을 찾아와서 제보여부를 묻고 돌아갔다는 보고하고 가족들은 총으로 쏴죽이겠다는 위협도 있고 해서 엄두도못냈다」며 제보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趙경위의 담당변호사 金茂森씨가 趙경위에 대한 접견을 방해받았음이 金변호사에 의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睦위원장은 이번사건 조사과정 설명을 통해 「朴군고문살해 범인은 당시 현장에 나갔던 의사 吳演相씨의 증언등으로 보아 6명인 것으로 확실히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睦의원은 또 「지난5월초 순 임시국회에서 姜三載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朴군고문현장에 경찰관6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총리와 내무 법무장관은 2명뿐이라고 위증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사건진상을 알고 있으면서 국민을 우롱한 사실에 대해 현내각은 정치적 형사적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睦의원은 또 「법인 趙姜두사람을 永登浦교도소에서 議政府교도소로 이감시킨것은 법무부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는 경찰과 법무부당국이 사건조작내용을 사전에 알고했던 행위」라면서 「검경당국은 공작차원에서 이사건이 마무리될때까지 가족들과 私選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睦의원은 또 「지난5월초 순 임시국회에서 姜三載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통해 朴군고문현장에 경찰관6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총리와 내무 법무장관은 2명뿐이라고 위증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사건진상을 알고 있으면서 국민을 우롱한 사실에 대해 현내각은 정치적 형사적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모습을 지켜본 취재기자들은 「趙경위등 3명이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는 것이 마치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듯 한 느낌이 들었으며 경찰이 편「기만작차단

輿論에 쫓긴 신속搜査

檢察움직임 안팎

처음엔 「小幅처벌」분위기 이곳저곳서 터지자 强度높여

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은 고문가담경찰관 3명 추가구속, 범인축소 조작모의에 관련된것으로 알려진 치안본부간부들의 소환조사등으로 숨가쁘게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4개월가까이 숨겨져있던 충격적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검찰수사는 여론에 어깨를 떠밀려 빠른 걸음으로 확대과정을 밟고있다.

검찰은 지난21일오후 전격적으로 고문가담경찰관 3명을 추가구속한 직후「더 이상의 수사확대는 없다」고 수사종결을 예고했다.

범인조작 부분에대한 설명도 「趙漢巖경위의 지시에 따라 부하경찰관 4명이 범인은폐및 조작을 모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2일 오전까지만 밝혔던 검찰은 오후 당정회의를 계기로 조작모의에 개입한 치안본부 간부들의 신병을 금명간 확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향으로 급전했다.

사제단의 성명과 신문보도, 검찰조직의 특성등에 비추어 상급자의 개입여부에 대한 의혹이 짙어지자 민정당에서 검찰에 신속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때도 조작수사는 진행하지만 조사및 형사처벌 범위가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검찰고위 관계자는「범인은폐에 직접 가담한 사람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조작시나리오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하며 여론악화에 따른 수사확대를 미처 예상치 못한 곤혹스러움을 표시했다.

검찰관계자는 23일오후6시경 수사대상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채 3명을 곧 연행할 예정이라고만 말했으나 두 시간만인 밤9시경에는 치안본부5차장 朴處源치안감 당시 대공수사2단장 田錫麟경무관 대공수사2단5과장 劉井邦경정 2단5과2계장 朴元澤경정 5과1계장 洪承相경감등 5명의 신병을 확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련의 검찰움직임에서 살필 수 있듯이 검찰수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가 단호해지고 속도도 빨라졌다. 그러나 울림피아노텔에서 이들째 조사 받고 있는 이들 치안본부 간부5명은 은폐모의 관련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끝가지 부인할 경우에대비,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고문경찰관5명에게 이부분을 질문추궁하는 한편 보강증거수집에 나서고 있다.

한 수사관계자는「경찰조직의 특성상 직속상급자들이 전혀 범인은폐공작을 모르고 있었다는 가정은 있을 수 없다」며 「부인하더라도 별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중 3、4명을 구속할 방침을 정하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건발생후 수시로 열리고 있는 당정회의의 결과에 따라서 형사처벌범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黃鎬澤기자>

朴군사건 현장검증뒤 의정부교도소 호송
들을 촬영하지 못하게 교도관들이 버스

충격의 불꽃…잇따른 目擊論

創設이래 最大의위기 다시 태어날각오 필요

朴鍾哲군고문치사범 축소조작사건은 공권력내부에서 빚어진 범죄 은폐라는 점에서 「한국관경찰워터게이트사건」으로 불릴수 있는 사건이다.

드러난 사건의 내막이 충격적인만큼 국민이나 경찰자신에 던진 충격은 전례가 없을만큼 메가톤급의 엄청난 것이었다. 대부분의 치안본부 간부들은 이번 사건으로 「국립경찰」이 참설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침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제 경찰이 무슨 말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겠는가. 더이상 할말이 없다」「정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어딜가서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히기에도 부끄럽다」 치안본부 간부들은 「국립경찰」이 참설이래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고 침통한 분위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이제 경찰이 무슨 말로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겠는가. 더이상 할말이 없다」「정말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 어딜가서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히기에도 부끄럽다」 치안본부 간부들은 이번 사건으로

民正 전전긍긍… 조속鎭火 총력전

「內閣引責」강력히 요구
政治피해 최소화 焦點
서울출신議員들 集團행동은 不發

조작사건으로 「막심한 정치적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民正黨은 연일 계속되고있는 당정회의에서 내각의 政治的引責을 강력주장하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실질 움직임까지 곁들이고 있어 관심。

그런가운데 民正黨의 서울시출신의원들은 결국 不發로 끝나긴했지만 23일 한때 與도 외부에서 정부관계자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진상조사완료와 동시에 정치도의적 뒷수습책을 내놓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왔다。

李총장이 강력히 추진해온 수습방안은 정부측이 사건진상에대한 의혹을 풀고 그와 때를 같이해서 「신속」「단호」하게 후속대응을 취함으로써 사건의 정치적여파가 최소화될수있도록 해달라는 뜻임。

이와관련 한 관계자는 정부의 후속조치중 「형사책임은 물론이거니와 정치도의적 책임을 묻는데도 혹시 망설임이나 부족함이있어 다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어서는안되겠다」는것이 民正黨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

盧대표도 23일 光州 全州대회에 참석하고 上京한뒤 일요일인 24일 오후늦게 고위층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 입장을 전달한 진비교적 「허심탄회하고 진지한논의를 한것으로 알려져 주목。

이날 모임은 서울鍾路中區지구당개편대회에 참석한 서울시출신의원들중 일부가 『저녁이나 함께하자』고 제의해 개편대회가 끝난뒤에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심각한 뜻을 모아 黨에 전달하자』는 의견과 『정국의 추이를 좀더 지켜보자』는 반대의견이 맞서다 며칠뒤 다시 만나 재론키로 결론。

모임에 앞서 많은 의원은 『총리이하 전국부위원들이 차제에 각성을 해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與圈전체를 재편해야한다』 『분위기가 바뀌지않는한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6·10전당대회가 국민의 신뢰속에 제대로 치러질지 걱정』이라는등 심각한 의견을 개진해 이날 모임이 신상치않은 것임을 시사。여도외부에서 정부관계자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진상조사완료와 동시에 정치도의적 뒷수습책을 내놓기 위한 작업을 서둘러왔다。

이런가운데 盧泰愚대표위원의 지방행사 참석일정때문에 黨務를 전담하다시피한 李春九사무총장은 토요일인 23일은물론 일요일인 24일에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盧대표가 지난22일 盧信永국무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최단시일내에 취해달라고 內閣측에 채근했던것을 미루어 볼때 비슷한 내용이 아니었겠느냐는것이 民正黨관계자들의 짐작。

한관계자는 『盧대표가고위층을 만난자리에서는 향후의 정치일정 수행문제와 대폭적인 인사개편도 언급되지않았겠느냐』고 추측。

民正黨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6월10일의 전당대회행사와 88년2월의 정부이양이라는 「大役事」를 그르칠수는 없지않느냐』는것。

○…民正黨서울시지구당위원장들이 23일오후 朴鍾哲군사건과 관련된 모임을 갖고 사건과 관련된 모임의 성격이 상당히 심각했음을 암시。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지구당개편대회를 하느라 정보를 전혀 갖고있지못해 논의를 뒤로 미루었다」고 말했지만 회의장을 떠날때 표정들이 무척 어두워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었음을 간접시사。

이는 지난 2·12총선이후 서울시출신의원들이 중앙당에 대해 「자성」을 촉구했을 때 받은 黨내외의 「消極的 반응」을 의식한데다 任哲淳정책위의장등 서울출신 당직자들의 간곡한 만류에 논의를 일단 보류했기 때문。

한 참석자는 『행정부의 잘못으로 터진 사건때문에 우리만 피해를 보는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금주내로 우리의 의견을 黨지도부에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

이같이 서울시위원장들의 움직임이 「限時的 不發」로 그쳤지만 이는 현재 民正黨의 일반의원들이 느끼고있는 공감대를 표본적으로 대변했다는 것이 黨주변의 대체적인 시각。

이같은 움직임에대해 民正黨지도부는 당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건대 그런 움직임의 「기미」전도야 있을수있는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容認」의 정도는 두갈래。

즉 하나는 『그정도야 능히 있을수있고 자연스러운것』이라는 반응인데반해 다른측에서는 『최고통치권자가 이미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엄중문책을 지시해놓은 상태면 가만히 지켜봐야지 黨쪽에서 물이 끓어 넘쳐서는 곤란하다』며 그런 움직임 자체를 「정치적 계산과 「人氣영합」적 발상에 따른것으로 해석하고 못마땅해하는 표정。

〈金忠根·金東哲기자〉

증뒤 의정부교도소 호송버스에 타고 있는 고문경찰관은 교도관들이 버스안에서 겹겹이 가리고 서있다。

재검증 拷問과의혹 <3>

警察「힘」모꺼는 檢察「권위」

檢察의 수사지휘권 큰 시련
"경찰과 한통속"비난벗을때
몸조심타성 계속되면 「事後방조」못면해

근래 수년동안 시국치안의 수요에 힘입어 날로 비대해지고 막강해진 경찰에 대해 검찰이 느끼고 있는 상대적 위축감은 적지않다고 검찰관계자들은 말한다。

한 중견검사는 『검찰의 경찰에대한 수사지휘 갈등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경찰을 견제할수 있는 아무런 실질적인 힘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조만간 경찰이 수사권독립을 요구하고 나서도 검찰 독자적으로 이를 막을 능력이 없다』고 속직이 털어놓았다。

시국사건 처리과정에서 현장감과 풍부한 정보를 내세워 감경으로 치닫는 경찰의 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편인 검찰의 입장이 한심 수세에 몰릴수밖에 없다는점도 이같은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1월17일 鄭銖永서울츠럼들면서 「몸조심」하는 폐에 검찰이 사정공모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사후방조 묵인」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마저…』라는 국민적분노를 자아내게 한 이같은 의혹은 초동수사를 경찰에 일임하고 송치후에는 열흘포고도소에서의 출장밀실수사 「얼굴없는 현장검증」등으로 철저한 보안수사를 했을뿐만아니라 오래전부터 진상을 알고있었으면서도 침묵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의 석연찮은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검찰총장등 수뇌부 인책설이 나도는 침통한 분위기속에서 최근의 검찰권행사에 대한 심각한 자성과 함께 이제부터라도 망설이거나 눈치보지 말고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국민앞에 떳떳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내부에서 강하게 일고있다。

검찰이 자꾸 왜소화하고 울츠러들면서 「몸조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들은 또 「검찰의 사건조작은 흔히 있는 일로 그리 놀랄만한게 못된다」면서 「특히 당사자들의 이해가 얽힌 소사건에 대한 경찰송치의견을 액면그대로 믿었다가는 봉변을 당하는 수가많다」고 주장하고있다。

L부장검사는 지난85년8월 회사는 2억원을 유용, 업무상배임혐의로 고소된 회사간부에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해 혐의를밝혀내고 구속해버렸다。

회사간부는 구속되자 「억울하다」며 뇌물공여사실을 털어놓아 L부장검사는 수사경찰관2명과 브로커노릇을 속한 전직경무관을 추가로 구속한 혐의로 줄줄이 붙잡아넣었다。

젊은 검사들중에는 흔히 「듣는 반파제가 없어 소신껏 수사를 벌이지 못하겠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참검사들은 이에대해 「검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투철한 정의감에서 우러나는 의욕과 패기」라고 강조하고 곤란하다며 그런 움직임 자체를 「정치적 계산과 「人氣영합」적 발상에 따른것으로 해석하고 못마땅해하는 표정。

〈金忠根·金東哲기자〉

통역Guide, 해외유학시험, 면세백화점 취업
통역英·日語 반액 장학생
본원은 국내 최초로 설립하여 15년의 역사를 지닌 통역요원 연수원으로 1年에 1回 장학생을 선발 전원 합격, 취업을 목표로 관광통역요원을 선발함
◎선발인원 : 英語 ○○名, 日語 : ○○名(男·女)
◎응모자격 : 高卒이상 대학생, 직장인, 일반인
◎전형방법 : 개인별면접(장학생선발위원회)
※ 국가유공자·유자녀는 우선예택
◎교육기간 : 6개월(개강 : 6月 1日)
◎접수마감 : 5月 29日(金) 20 : 00時까지
◎면 접 : 5月 30日(土) 15 : 00時부터
◎교육방법 : 회화, 청취(L, C), 문법, 작문, 독해, 에
특전 1) 선발된 인원전원 수강료 반액 장학혜택
2) 교육중 성적우수자 외국인관광안내 아르바이트
3) 교육후 국가고시합격, 불합격자 전원 취업추천
◎交通:鄭·서울特別市지정, 東京アカデミ日本語学校
서울통역관광
서울역 전철4호선入口 715-2877-8·717-7009-11

데뷔뻐쥬기법을 이용한 대형작품
지점토
등공예 * 데뷔대
★각과목 졸업 전문적으로 배움
★자격증 취득 집중지도
과정 : 6개월(속성 3개월)
회비 : 만원(도구및기본재료제공)
접수처 : 지하철 강남역 신한은행 (신성 B/D 맞은편)
강남공예 555-1016

民主발언 人權감시

「正義구현」의 깃발

지난 18일저녁 서울明洞성당에서 있었던 「5·18한맺힌 넋자추모미사」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발표한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자 이 사제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제단은 74년 발족된이래 민주화와 인권문제등과관련, 수많은 선언적 성격을 갖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경우처럼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실제 조사활동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사제단은 「正義구현」에 뜻을 같이하는 사제들의 협의체이지 천주교 공식기구는 아니다.

먼저 사제단의 역사를 보면 지난 74년9월23일 민청학련사건으로 구속중이던 池學淳주교에게 징역15년이 구형된 상황에서 原州지區동성당 성직자세미나에 참석한 3백여신부들이 구성한 것이다. 당시 참석자들은 「정치현실에 대한 의사표시를 사회구원원리에 입각, 사목행위의 하나로서 필첩것」을 결의했는데 이 정신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제단 발족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原州모임 사흘후 서울明洞성당에서 열린 한국순교복자축일미사에서 「우리의 자세」란 시국선언문이 발표되면서 부터였다. 선언문의 내용은 「우리는 인간의 위대한 존엄성과 소명을 믿는다」로 시작, 당시 상황에서 상상 할수 없었던 유신헌법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민주헌정 언론 집회등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후 사제단은 그해 말까지 석달동안 63회의 기도회를 갖고 민주헌정회복을 기원했다.

이같은 사제단의 활동에 대해 그해11월19일 당시 金鍾泌국무총리는 한 오찬모임에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하는 강연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외부의 역풍과 함께 1975년2월 주교단의 메시지는 사제단의 사실상 해체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주목됐다. 메시지의 내용은 사제단의 기능을 교회내의 공식기구인 정의평화위원회에 흡수하고 시국문제는 사제단보다 주교단차원에서 직접 대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대해 사제단은 주교단의 의사를 거부할수도 없는 입장에서 순응하기는 했으나 정의평화위원회가 몇달 지나도 사실상 골격조차 갖추지않자 10월하순 주교단에 공개서한을 보내고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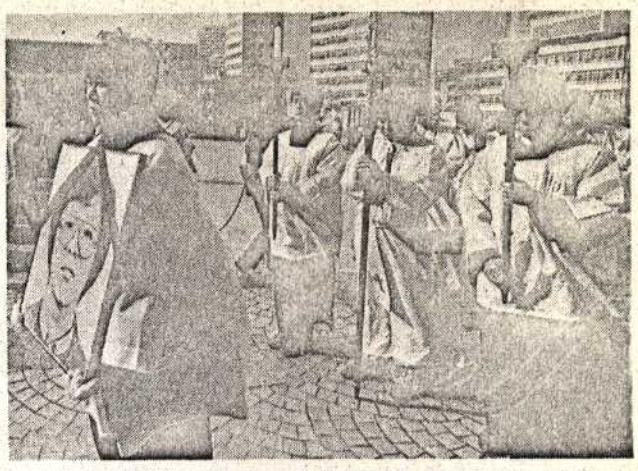
이후 사제단은 대사회적발언을 더욱 강화, △76년 全南 咸平고구마수매사건△같은해 3·1절明洞성당기도회사건 △77년8월 仁川교구 金秉祖신부구속사건 △78년7월 全州교구 朴鍾祥신부 구타사건 등에 직접 간접적으로 간여하거나 발언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활동이 활발해져 지난해 11월17일 「정의와 평화를우한 미사」후 발표된 「현시국에 대한 우리의 기도와 선언」에서는 △우리의 현실은 사실상 계엄이다 △국가보안법의 무차별적 용반대 △민통련 해산명령철회 △金추기경의 「로마」발언지지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반대등을 밝혔다. 그에 앞서 작년 5월6일에는 「민주화 인간화의 복을 선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 특히 언론인의 연행과 KBS의 편파보도를 질책 비판하기도 했다.

올들어서는 朴鍾哲군의 추모미사에 사제단소속 신부들이 앞장서기도 했고 마침내 지난 18일저녁 미사끝에 고문치사사건의 범인이 더 있다는 사실을 밝힌것이다.

이같은 활동을 13년동안 펼치면서도 사제단측은 소속신부가 몇명인지, 조직은 어떻게 돼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있는데 그동안 성명서를 발표했던 사제들만 이름이 알려져있을뿐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8일 미사후 성명서를 낭독했던 金勝勳신부 (서울 弘濟洞성당)가 현재 대표이고 총무에 S신부가 있다. 이와함께 咸世雄신부(서울대교구홍보국장)吳泰淳신부(서울우戶洞성당)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천주교의 한 관계자는 「군이 연락과 모임을 주관하는 핵심신부를 숫자로 말한다면 14개교구의 중견사제 40여명을들수있다」고 밝혔다.

정의구현사제단활동의 신학적 근거에 대해 한 관계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들며 강도당한 행인을 구한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람임에 틀림없으나 더욱 적극적인 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강도들을 없애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구조적인 사회악에 도전, 사회구원을 이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林然哲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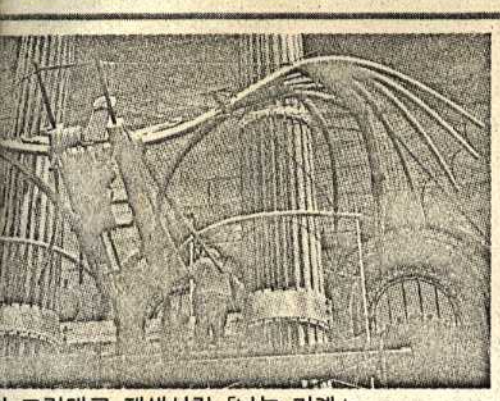


지난 2월7일 엄수된 故 朴鍾哲군 추도미사에 입장하는 서울지역 사제들.

74년 池學淳주교사건때 발족…큰사건때마다 聲明

「고문致死」경우처럼 직접 조사활동도

소속神父 조직 베일속…"핵심 40명線"



의 그림대로 재생시킨 「나는 기계」。

明品 再現 캐나다서 전시회

해외문화

「나는 기계」 기중기등 당시工程 그대로

르네상스시대의 위대한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1452~1519)는 오늘날 우리에게 「모나리자」를 그린 훌륭한 화가로 잘 알려져있지만 실제로 그는 「만능의 천재」였다.

「이탈리아」「피렌체」근교에서 태어난 「다빈치」는 미술뿐아니라 기계학 해부학 流體역학 항공역학 지도제작 군사공학 건축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또 그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과 「퀘벡」관에서는 그의 전생애에 관한 전시회가 있었다. 「캐나다」기술진이 곧 들여 재창조해낸 발명품들은 「다빈치」의 천재성이 결코 헛된 공상의 소산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

이미 5백년전에 그는 비행기의 원리를 착안, 「나는 기계」를 구상했고 그밖에도 기중기등 당시로서는 신기한 아이디어를 수없이 남겼는데 이가운데 중요한 품목을 직접 모델로 만들어 전시하게된것. 모델을 만든데는 현대화된 기계를 사용하는 손쉬운 공정을 활용하지 않고 그당시 방법대로 재현한것이 특징.

지금까지도 「다빈치」는 마치 20세기라서 인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경우 그는 자신의 근육과 뼈를 직접 관찰한것은 물론 당시 교회가 인체를 터부시하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직접 내면을 들여다보고 사물이 움직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었다.

그의 활동목표는 『모든 사물의 근원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의 활동목표는 『모든 사물의 근원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농청년에게 둘러싸이기를 좋아하고 한시라도 게으르게 보내지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다빈치」는 생전에도 환상과 전설적 존재로 평가받았으며 일부에서는 그를 「마술사나 「악마」라며 두려워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농달을 즐기며 멋지게 차려입은 젊은

불의나라 <352>

朴範信 作
金永惠 畵

떡 ⑫

『길수헌티 얘기듣고 몇날며칠 잠을 못잤다. 그것이 돈좀 있다고 그렇게 너헌티 위세를 부렸다면서?니가 누군디?위면 자식인디? 난 아까먹새 그 샥시가 그여자인 줄 알고…보자마자 속이 뒤집어지는거여.그 샥시헌틴 거시기하게 되얏다.허나,얌식당헌다는 그것을 만나보긴 만나봐야겄어.나,서울귀경은 안헌다 잉.서울귀경 시켜줄려고 헐거 읎어.그 대신말여,그 대신 그 여자를 내 앞에 안 데려오면 시골 안갈겨.예서 죽을겨!』

『지말 못믿으세유?안 만난당게유』

『만나고 안만나고간에 그려. 그것헌티 직접 뭔 얘기가 되얏든,들어봐야쓰겄어. 분허고 원통허지.안 만난당게 내 속이 더 뒤집어지네,더 뒤집어져. 너헌티 궂은 일까지 다 시켰다면서 그래,저 이득만 챙기고 널 내치더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유,엄니…』

『늙었다고 눈치도 읎는줄 아냐.나도 저간의 사정 손바닥보듯 알어.내가 워찌 여길 왔간디?』

『그 여자 만나러 왔유?』

『만나기 전엔 안가!』

어머니가 마침내 벌렁 누웠다.

길수가 찬뉴의 매운 시선을 피해 슬그머니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다. 길수가 무슨 말을 어떻게 떠벌렸는지는 알수 없으되,어머니의 반응으로 미루어 보건대, 안종의 남자 꾐에 빠진 순진한 여자들이 흔히 그렇듯,이 경우는 그 반대로,자신이 정숙하게 흔한 말로 몸도 주고 돈도 주고 정도 주고,줄 건 다 주고 결국은 버림받았다고,어머니는 상상하고 있는가 보았다.그러나 저러나 어머니가 이렇게 억지소리 앞세워 싶을을 부리기 시작하면 살아 생전의 아버지조차 그 싶술 막지 못했던 바,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었다. 시집갈 날 등창난다더니,전혀 생각지도 않은 액운이었다.

『아무튼 엽니,진지나 잡수세유』

『쓸개윤는 놈이나 많이 먹어라 잉』

『엽니 자식인디 쓸개가 워찌 읎겄유? 그 여자가 내

관광기사·안내양 모집
유경험자·자격증 소지자 환영
☎ 322—2621

효도관광 제주特急
5/21~23, 28~30, 6/11~13
호텔숙식 왕복항공 115,000원

매일 울릉도·홍도·한려수도

숙박 경주고적 부곡온천 해금강 설악산 부곡온천 경주 무주구천동 백암온천 성류굴

5/24 당일 속리산 계룡산 화양계곡 남한강 대섬 오륜대 부곡온천 고수동굴

광화문 739-0101, 0011
영동백화점內 548-7921

경남관광

에스콰이아 전국지점 및 대리점에서 실시합니다

특별판매·특별기회·16일간

정고바겐이

第20197號 【第3種郵便物(가)급認可】 東亞日報

造作」심증 가지만 증거없어 엉거주춤

제자리 걸음 搜査언저리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의 상급자 5명이 범인축 소조작 모의에 개입한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벽에 부닥쳐 다소 주춤해지는 것같다.

증거찾기의 어려움 때문에 수사의 진전속도가 현저히 느려지자 검찰은 수사가 굴절되고있다는 의심을 받지않기위해 무척 조심스러운 태도다.

검찰은 일단 가족 변호인 고문경찰관들에대한 참고인 진술과 면회일지등의 조사등으로 주변부터 좁혀들어가 자백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수사방법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고위관계자가「사후에 조작사실을 알고 이를 은폐하기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처벌이 곤란하다」고 말한것도 이번 사건의 처리방향을 시사해준다.

이같은 맥락에서 25일 오후 일단 귀가했다 다시 소환된 劉井邦경정과 朴元澤경정이 「적극행위자」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설명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이번 수사의 어려움은「말로만 이루어진 범죄」라는데 있다는 것이다. 劉경정등 상급자들이 범인의 축소 조작에 개입한 실증은 충분하지만 피의자의 자백이외에는 메모나 문서등 객관적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 검찰은 劉·朴경정과 구속경찰관의 가족들을 수갑중인 趙漢慶경위등 5명과 대질시켜 상급자의 개입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그러나 구속된 고문경찰관들이 심경변화를 일으켜 상급자의 개입사실을 진술하더라도 정작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경우 공소유지에 크게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하는 견사도 있다.

이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사검사들은 劉경정등이 축소조작의 폭로를 막기위해 고문경찰관및 그가족들과 4개월여에 걸쳐 꾸준히 접촉해온 사실이 고문사건축 소조작모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범인 은폐 조작모의에 대해서 金勝歎신부의 협조를 얻어 「함께 진실을 밝혀보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러나 金신부를 정식으로 소환할 경우 「폭로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기때문에 서면 참고인 진술을 요청하는등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 동참해달라는 형식으로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 고문경찰관가족들이나 천주교사제단의 성명가운데 「趙경위는 처음 朴군조사가 시작될때 「혼내주라고 지시한뒤 밖으로 나갔다가 사고소식을 알고 朴군을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현장검증에서는 趙경위 스스로가 이와 상치되는 「고문지휘」를 재연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趙경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문범행을 지휘한 「중죄인」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현장검증에서 趙경위는 검사가 미처 모르는 고문상황을 설명해주기도했다.

검찰은 또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는 姜銀圭경사의 가족에 대해서도 「억울한 점을 모두 이야기해주면 우리가 설명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고문경관 5명을 대동한 현장검증을 통해서 朴군을 숨지게 한 고문치사범죄는 그 진상이 거의 드러난 것으로 보여졌다. 이제 남아있는 문제는 이 가증스러운 고문범행을 감추기 위해 누가 어떻게 조작에 가담했느냐는 것이다. 검찰이 이 대목에서 주저하며 불충분한 수사끝에 미온적인 발표를 할 경우 제2의 폭로」「제3의 폭로」가 어디에서 터져나올지 아무도 알수 없다.

검찰이 「金신부의 협조를 받고싶다」고 흘리는 배경에는 지금까지의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고싶은 의도도 담겨있는것같다. 한 검찰관계자는 金신부에게 이런 제의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부님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모두 제공해주십시오. 신부님이 제시하는 의문점을 우리도 규명해보겠습니다. 망신당할대로 당한관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감추겠읍니까」

〈黃鎬澤기자〉

檢察 또 오해받을까 전전긍긍

周邊서 증거찾은뒤 범행추궁

金신부에 수사협조 부탁키로

「조작 은폐」수사 檢察 주변

○…朴鍾哲군사건축 소은폐 조작과 관련, 치안본부 대공수사단간부들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들이 오랜 기간 대공분야에서 일해온 수사베테랑들이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풍문에 대해 애써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

26일 새벽 조사실을 나선 한 검사는「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하고 불리한 사실은 털어놓지않는것이 기본속성이니만큼「이들 경찰간부들도 이같은 피의자의 기본속성때문에 수사의 어려움이 있는것이지 수사베테랑이기때문에 수사를 못하는것은 아니다」고 주장.

○…대공수사경찰간부들의 朴군고문진상조작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은 이들에 대한 환기로한 사실이 기자들에게 알려지자 기자들을 따돌릴수 있는 시간으로 재출부시간을 조정하려고 백방으로 뛰었으나 연락이 제대로 안돼 성과를 거두지못하고 실패했다는 후문.

○…검찰청사로 재소환된 劉井邦경정은 25일밤9시반경 서울2모2914호 프레스토승용차편으로 청사에 도착, 15층 조사실로 올라가려다 대기하고있던 보도진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질문공세와 플래시세례를 퍼붓자 5분정도 승강을 벌이다 검찰측으로부터 「일단 돌아가라.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듣고 청사를 황망히 떠나기도. 검찰은 이날밤 劉경정을 소환하는데는 결국 실패.

劉경정은 고문진상조작관련여부를 묻는 기자들에게 「하늘이 알고 내가 안다. 나는 결코 죄를 짓지않았다」고 딱 잡아떼기도.

○…25일밤9시10분경 재소환을 받고 검찰청사로 나온 洪承相경감은 15층조사실로 향하던중 엘리베이터안에서 시종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허공에 둔채 초조하고 지친 모습. 洪경감은 왜 재소환됐느냐고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에서 몇가지 더 알아볼 것이 있는 모양」이라고 덤덤하게 대답.

대공수사단에서 경리서무 업무를 맡고 있는 洪경감은 기자들이 고문경찰관가족들에게 위로금 이외에 거액의 무마비를 준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사실무근」이라고일축.

○…치안본부 대공간부들이 지난18일 자정경 서울新吉洞특수수사2대에 나타났으며 이곳에서 수사관들이 자리를 비켜준 가운데 제1조사실에서 한시간반가량 범인들을 만난사실이 알려지자 간부들은 「본부내에 기자프락치가 있음이 틀림없다」면서도 「당시 20여명의 수사관들이 현장에 있었으니 비밀유지가 안되는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당시 특수수사2대는 朴군고문치사건을 조사하기위해 15층조사실 앞에와 대기중이던 기자들에게 「이것은 무슨 조작과 관련, 치안본부 대공수사단간부들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과정을 파악하는 기자들

30년搜査베테랑 조사에 檢事 애먹을듯

"모두 귀가시켰다"記者따돌리기 연막전

장들은 물론 특수수사2대장기획계장등 간부들이 모두 있었다는것.

○…검찰이 범인축소조작 직접개입여부를 가리지 못한채 25일 대공간부들을 귀가조치하자 치안본부간부들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앞으로의 수사진척여부에 큰 관심을 쏟기도.

한 간부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나서니 검찰이 어려움을 겪을것이라고 예상하기도.

○…鄭銖永 서울지검장은 25일밤 9시50분경 소환한 劉井邦경정과 洪承相경감등 2명이 조사도 받지못하고 돌려보내졌다는 보고를 받고 15층조사실 앞에와 대기중이던 기자들에게 「이것은 무슨 조작과 관련, 치안본부 대공수사단간부들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과정을 파악하는 기자들

제자리 걸음 搜査언저리

의 재수사를 통해 朴군 고인의 환령연이 11억여원에 사건의 「조용한 처리」를 희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에서 11억여원이 사실을 밝혀냈으나 6억8천 여만원의에는 사용처가 확실

우수상「산업의 역군」

26일 발표된 제6회 대한민국사진전 심사결과 영예의 大賞은 崔辰淵씨(34)의 유화중 김명석 신철성 이순윤 조찬환 김용헌 최희상 김장훈 김승렬 김등홍 마상철 서경희 정영준 이선우 백진길 정애숙

鄭銖鍾씨(영남대교수)상배

24일오후5시 大邱경북대부속병원서 발인 27일오전10시 大邱 ㊀ 05589

유유산업

40代후의 심장체크!

카디라트로
심장에 활력

당신의 생명인 당신
예기치 못한 생명의
이후의 심장을 카디
카디라트는 생약성
갈릭오일(Garlic o
토코페롤의 약효로
혈관과 심장의 기능
활발하게 해주는데
좋습니다.

*문의전화 : 서울 862-1141, 745-2311/부산 42-8661/대구 755-4613/광주 55-6591/대전 72-2269/전주 2-2872/원주 42-2788/마산 56-0828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전국대리점 모집

특히,
'호남·영동지역에 살고계신 분'
마으드드하 평생사업으 찬기 의체

휴전안내

(심 야)

일자	구 별	지 역 명	시 간	문의전화	사
5	강 서 구	화곡 5 동, 등촌 1 동각일부(우장국교앞-모리도앞-경일빌딩-남영공업-신영전기-대덕전자-순흥고무간)	00시~06시	602) 3111	전주교
	고 양 군	신도읍(삼송리, 오금리)벽제읍(벽제리, 고양리, 선유리, 대자리)원당읍(신원리)	00시~05시	353) 6891-5	루트변
	구 리 시	수택동일부(구리시장주변300m)수평동일부(남양시장			

警協 眞相조사단 구성

성명 발표 "檢察도 개입의혹 있다"

政府側에 조사활동 협조촉구

대한변협(회장 文仁龜변호사)은 23일 서울鍾路구 唐珠동 변호사회관에서 상임이사회와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은폐조작진상조사단(단장 柳絃錫변호사)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성명을 발표, 『국민을 우롱하는 범행은폐책동이 고문살인범행 못지않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범행은폐기도의 전모를 남김없이규명하라』고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변협은 이 성명에서 『朴군 사망이후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지휘권포기등 그동안의 수사경위와 밖으로 드러난 여러 사실은 경찰은 물론 검찰까지도 범행은폐기도에 관련됐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심을 품게하고 있다』며 『실추된 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변협조사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활동에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에앞서 22일오후 4시 서울中구西小門동 법원 변호사 대기실에서 文仁龜회장과 柳絃錫인권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집행부회의를 열고 은폐조작진상조사단 구성을 결정하고 柳위원장을 조사단장으로 趙準熙 裴喆善 洪性孚 曺仁喆 河炅喆 趙英來변호사등 인권위원 7명으로 조사단을 23일 정식발족시켰다.

변협은 또 23일오후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앞으로 변협조사단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조사단은 25일 일단 議政府교도소에 수감돼있는 趙漢慶경위와 姜鎭圭경사를 면담하고 이들이 처음에 수감되었던 永登浦교도소에서의 검찰 가족 경찰과의 면담기록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작 규탄」 6월10일 國民대회

在野人士준비위 발족

朴炯圭목사 宋建鎬씨 成來運교수등 재야인사 1백34명은 23일오전 서울鍾路구 龍池동 기독교회관903호 인권위사무실에서 모임을갖고 「朴鍾哲군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범국민대회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규탄대회를 오는6월10일에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위원회는 「2·7추도집회와 「3·3국민평화대행진을 주최하고 지난 3월4일 해체했던 「朴鍾哲군 국민추도회준비위원회」에 참가했던 재야인사 1백35명중 李敏雨신민당총재를 제외한 전원이 다시 모여 구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온국민의 분노를 현정권에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오는 6월10일 범국민규탄대회를 개최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에는 金大中씨 金壽煥추기경 金泳三민추당총재등 고문12명 桂燾梯 成來運 朴炯圭 宋建鎬씨등 공동위원장 35명, 金祥根 吳忠一목사 性然스님등 집행위원 87명이 참가하고 있다.

國庫보조금으로 4億짜리牧場사

형제복지원 朴원장

【蔚山=裴承求기자】釜山형제복지원장 朴仁根 피고인(58)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골프회원권과 호화아파트 콘도미니엄 개인목장등을 구입하고 가족들의 명의로 釜山시내 각은행에 거액을 예금시켜놓은것으로 밝혀졌다.

朴피고인의 국고금 횡령사용용도를 추적중인 釜山지검 蔚山지청의 한 관계자는 22일 『朴피고인은 5천8백만원을 주고 釜山해운대 H맨션 40평형을 구입, 金모씨 앞으로 등기해놓았고 한국콘도미니엄회원권을 1천만원을주고 매입했으며 1천9백50만원을 주고 재일교포 田모씨의 명의로 골프회원권을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작 모의 몰랐다

李치안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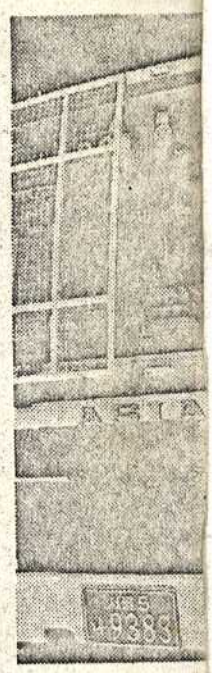
李永昶치안본부장은 22일오후 朴鍾哲군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경찰자체 수사에서 「범인을 축소, 조작모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본인은 그런 주장에 대해 아는바도 없고 또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할말도 없다』고 말했다.

李본부장은 이번사건은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펴고 있어 한 는 주장했다.

이 성명은 또 지금까지 의혹스러웠던 카부사 金용권군의 죽음을 위시한 여타의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됐고 공원은 이 하루 폐쇄돼 시민들의 출입이 금지됐다.

한편 경찰은 桂燾梯민통련 의장대행등 민통련간부 10여명에 대해서는 22일부터 가택연금했다.



버스로

아침부터 경
다공원을 폐
중심으로 경찰병력을 배치
사전봉쇄에 나섰으며 오후에
는 병력을 시내중심가로 분
산이동시켰다.

경찰은 또 대회장소인 파고다공원을 중심으로한 종로 일대와 청계천로 을지로등

『그런 주장에 대해 전혀 아는바 없다.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므로 말할입장도 안된다』

—지난1월18일 조작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관련 간부들에게 확인해 보았는가.

『확인하지 않았다. 그들을 불러 물어 볼 필요도 없다.

날씨 <24일>

◇西海中部=북서~북동풍 대체로 맑음
◇西海南部=북서~북동풍 대체로 맑음
◇南海西部=남동~남서풍 구름조금
◇南海東部=북서~북동풍 대체로 맑음
◇東海南部=북서~북동풍 구름조금
◇東海中部=남동~남서풍 구름조금
△항로특기사항=먼바다 파고 1·5~2·5m

◆서울·京畿=북서~북동풍 대체로 맑음
◆白翎島=북서~북동풍 대체로 맑음
◆清州·忠淸=북서~북동풍 대체로 맑음
◆羅州·全羅=남동~남서풍 구름조금
◆原州·江原=남동~남서풍 구름조금
◆慶尙·濟州=북서~북동풍 구름조금
◆鬱陵島=남동~남서풍 구름조금

23일22시 예상일기도

지역별 기온	
서울	13~25
水原	12~25
白翎島	11~20
大田	13~26
清州	13~26
春川	10~26
江陵	12~24
光州	15~28
全州	14~27
濟州	16~25
釜山	14~25
大邱	14~28
鬱陵島	11~23
平壤	12~24
中江鎭	7~26
咸興	9~23

맑음 ○ 갬 ◑ 흐림 ● 비 • 소나기 ▽ 풍향 풍속 한랭전선 온난전선

△일출 06·17 △일몰 20·41 △월출 04·08 △월몰 09·45
※仁川 밀물03·45 16·01 썰물22·10 09·45
※群山 밀물01·51 14·08 썰물20·50 08·29

檢察 왜 搜査 미뤘나

朴군拷問致死사건 搜査발표때마다 「축소흔적」드러나

극소수만 알고 있었을리 없어

趙경위 面會때마다 "無關"주장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과관련, 범인은폐및 축소공작이 법부부 검찰 경찰고위책임자들의 방조와 묵인하에 진행돼왔을것이라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지난 1월14일 朴군의 고문치사사건발생 이후 경찰과 검찰이 수차례 발표한 이른바 사건전모는 한결같이 사건을 최소화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마련한 발표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있다.

또 사건조작이 4개월여동안 대공관련 극소수 상급경찰관들만의 비밀로 숨겨질수 있었겠느냐는데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구속된 趙漢慶경위와 姜鎭圭경사의 가족들은 지난 2월부터 이들을 면회, 「범인이 따로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같은 사실은 일부 교도관 및 경찰관에 의해 기록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경찰의 직무및 조직체계상 당시에 인지된 趙姜두사람의 「범인조작」내용을 검 경의 실무자선에서 묵살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교정국등을 통해 법부부 검찰에, 치안본부 역시 5차장을 통해 상층부에까지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것.

특히 趙경위와 姜경사의 가족들은 구치소에 면회를 갔었는데 지난2월부터 계속 자신들은 고문치사에 직접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는 것이다.

면회때마다 구치소에서는 구치소직원들이 이들의 주장은 물론 모든 대화내용을 기록, 상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검찰과 법부는 이를 인지하게 됐었다.

또 사건이후 한동안 趙경위가족들은 치안본부장을 찾아가 趙경위가 무관하다며 끝까지 진상을 밝히겠다고 직접 말했던 사실도 가족들의 진술로 뒤늦게 밝혀지고 있다.

이같은 정황들은 법부부 검찰 경찰등의 고위층까지 사건조작의 가능성을 파악했다는 실증을 갖게 하는것들로 지적되고있다.

검찰은 21일오후 고문경찰관추가구속발표에서 趙姜두사람이 이달초 검사면담을 요청해와 수사를 확대한것이라고 밝혔으나 趙姜두사람이 고문가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당초의 조작경위를 밝히지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년간 수사업무에 종사해온 趙경위등이 「또다른 3명이 더 고문치사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朴치안감및 劉경정등과의 사건축소경위만은 계속 숨겼으리라고 믿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소한 검찰이 21일 재수사에 인지돼 고위관계자들에게까지 보고됐을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 검찰의 21일 추가구속발표내용은 「그때는 검찰이 이렇게 빨리 조작사실을 시인하게될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당국에서 「그런 경찰관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최악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내가 구속되면 감옥에 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도할 각오를 했었다」고 술회했다.

金신부는 또 「재판과정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믿지만 만일 이번같은 은폐와 조작이 또다시 있을경우에는 그때가서 새로운 확증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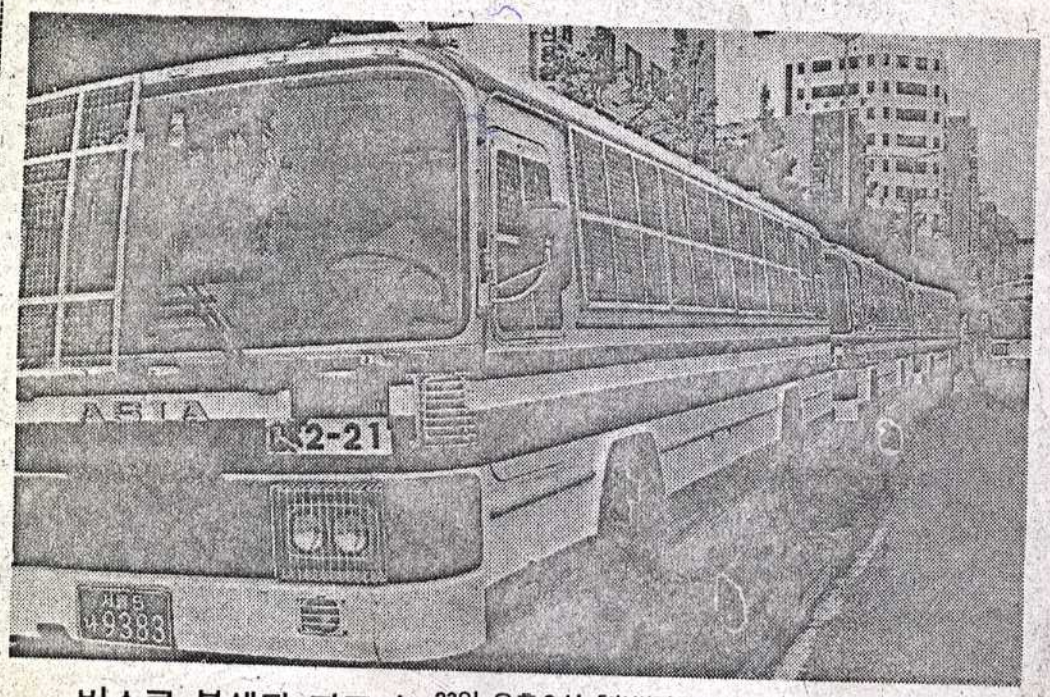
재판 잘못돼갈땐 새眞相 밝히겠다

金勝勳신부 밝혀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의 법인축소조작사실을 처음 폭로했던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대표 金勝勳신부는 22일오후 피정을 끝내고 弘濟洞성당으로 돌아온후 「아직은 朴군 고문치사사건 조작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상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밝히고 「피고인들에 대한 1차재판이 모두 끝날때까지는 당국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金신부는 성명발표 당시의 심경에 대해 「그때는 검찰이 인하게될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당국에서 「그런 경찰관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도할 각오를 했었다」고 술회했다.

金신부는 또 「재판과정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믿지만 만일 이번같은 은폐와 조작이 또다시 있을경우에는 그때가서 새로운 확증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버스로 봉쇄된 파고다 23일 오후 3시 「光州민중항쟁 7주년 민주영령 추모대회」가 열리기로돼있는 파고다공원정문앞에 23일 아침부터 경찰이 버스에탄채 가두시위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하룻동안 파고다공원을 폐쇄, 시민입장을 금지시켰다.

「5·18」追悼 파고다集會 萬5千경관 동원 봉쇄

民統聯 개최예정

서울시경은 23일오후3시 파고다공원에서 열릴 예정인 민통련주최 「光州민중항쟁7주년범국민 민주영령추도회」와 관련, 이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경찰병력 1백30개중대 1만5천여명을 동원했다.

경찰은 이날오전 대학가 중심으로 경찰병력을 배치, 사전봉쇄에 나섰으며 오후에는 병력을 시내중심가로 분산이동시켰다.

경찰은 또 대회장소인 파고다공원을 중심으로한 종로일대와 청계천로 을지로등 중심가에 50개중대 6천여명을 집중배치했다.

경찰은 민통련및 이단체산하 21개단체가 주관하는 이날 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 원천봉쇄에 나선것이라고 밝혔다.

대회가 열릴 예정인 파고다공원주변에는 이날오전9시 경찰병력 1천여명이 배치됐고 공원은 이날하루 폐쇄돼 시민들의 출입이 금지됐다.

한편 경찰은 桂勳梯민통련의장대행등 민통련간부 10여명에 대해서는 22일부터 가택연금했다.

國調權 발동하라

政治犯동지회 聲明

한국정치범동지회(회장 尹鑾熊)는 22일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의 조작사실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 「국회는 시급히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야당들 막론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은 또 「지금까지 의혹스러웠던 카투사 金용권군의 죽음을 위시한 여타의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조사도 동시에 추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작 모의 몰랐다

李치안본부장

李永鎭치안본부장은 22일 점점에 대한 온국민의 분노를 현 식발족시켰다. 해 오는 6월10일 법무민

喆 趙英來변호사등 인권위원 7명으로 조사단을 23일 점

어 숨김없이 모두 파헤쳐질 것이라고 말하고 「경찰은 검찰조사진행에 따라 그때그때 넘겨받은 기록을 확인하고있으나 은폐 또는 조작등에 대한 자체조사는 현재로는 전혀 펴지않고있다」고 밝혔다.

李본부장과의 일문일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이 당초 사건을 은폐, 조작했다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 전혀 아는바 없다. 검찰이 현재 수사를 진행중이므로 말할입장도 아닌데다」

—지난1월18일 조작회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관련 간부들에게 확인해 보았는가.

「확인하지 않았다. 그들을 불러 물어 볼 필요도 없다.

휴지통

▼…水原지법민사2부는 22일 기도밭에 말려 7천2백만원을 잃은 金모씨(33·京畿도 水原시 梅橋동)가 李모씨(安養교도소 복역중)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李씨는 金씨에게 3천6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水原발 연합통신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기도박에 가담한 원고에 비해 피고의 불법성이 더 인정된다」며 「그러나 원고도 사행심에 이끌려 도박을 했으므로 원고청구액의 50%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시.▼…金씨는 지난해1월 京畿도安養시내 모여관에서 李씨등과 도박을 하던중 李씨의 사기수법에 말려 7천2백만원을 잃고 이를 되찾으려다 강도상해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경찰관의 철부수사실이 드러나 무혐의로 풀려난뒤 李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던것….

KBS
10 배달의 기수
40 빨강머리
30 쇼 특급
00 (계속)

查 미뤘나

마다 「축소흔적」드러나

趙경위 面會때마다 "주장 無關"

극소수만 알고 있었을리 없어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과관련, 범인은폐및 축소공작이 법부부 검찰 경찰고위책임자들의 방조와 묵인하에 진행돼왔을것이란는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지난 1월14일 朴군의 고문치사사건발생 이후 경찰과 검찰이 수차례 발표한 이른바 사건전모는 한결같이 사건을 최소화하는데 촛점을 맞추어 마련한 발표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있다.

또 사건조작이 4개월여동안 대공관련 극소수 상급경찰관들만의 비밀로 숨겨질수 있었겠는냐는데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있다.

구속된 趙漢慶경위와 姜鎭圭경사의 가족들은 지난 2월부터 이들을 면회,「범인이 따로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같은 사실은 일부 교도관 및 경찰관에 의해 기록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 경찰의 직무및 조직체계상 당시에 인지된 趙 姜두사람의 「범인조작」내용을 검 경의 실무자선에서 묵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교정국등을 통해 법부부 검찰에, 치안본부 역시 5차장을 통해 상층부에까지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는것.

특히 趙경위와 姜경사의 가족들은 구치소에 면회를 갔었는데 지난2월부터 계속 자신들은 고문치사에 직접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는 것이다.

면회때마다 구치소에서는 구치소직원들이 이들의 주장은 물론 모든 대화내용을 기록,상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검찰과 법부부는 이를 인지하게 됐었다.

또 사건이후 한동안 경찰은 趙경위와 姜경사의 가족들을 따라다니기도 했으며 특히 趙경위가족들은 치안본부장을 찾아가 趙경위가 무관하다며 끝까지 진상을 밝히던다고 직접 말했던 사실도 가족들의 진술로 뒤늦게 밝혀지고 있다.

추영령 추모 앞에 23일 론등안 파고

趙경위는 실무책임자이고 자신은 누구보다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다 검찰수사과정등에서 趙경위의 진술내용과 자신의 진술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삼사들이 믿고 책임을 지게한 것이라고 (黃正雄경위 潘金坤경장 李正熙경장)이 가족들을 자주 찾아 趙경위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 등을 보여주며 「남편도 공범자로 몰렸다는 것이다」

사건조작의 가능성을 파악했다는 심증을 갖게 하는것들로 지적되고있다.

검찰은 21일오후 고문경찰관추가구속발표에서 趙 姜두사람이 이달초 검사면담을 요청해와 수사를 확대한것이라고 밝혔으나 趙 姜 두사람이 고문가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당초의 조작경위를 밝히지않은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다년간 수사업무에 종사해온 趙경위등이 「또다른 3명이 더 고문치사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朴치안감및 劉경정등과의 사건축소경위만은 계속 숨겼으리라고 믿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위관계자들에게까지 보고했을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같은 점으로 미루어 검찰의 21일 추가구속발표내용은 「축소만 알고 있었을리 없어」

재판 잘못돼갈땐 새眞相 밝히겠다

金勝勳신부 밝혀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의법축소조작사실을 처음 폭로했던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대표 金勝勳신부는 22일오후 피정을 끝내고 洞성당으로 돌아온후 「아직은 朴군 고문치사사건 조작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상을 밝힐 단계가 아닌데」고 밝히고「피고인들에 대한 조작이 모두 끝날때까지 진상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金신부는 성명발표 당시의 심경에 대해 「그때는 검찰이 이렇게 빨리 조작사실을 시인하게될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당국에서 「그런 경찰관이 없다」고 발뺌하거나 최악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내가 구속되면 감옥에 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도할 각오를 했었다」고 술회했다.

金신부는 또 「재판과정에서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 믿지만 만일 이번같은 은폐와 조작이 또다시 있었다면 은폐와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은 고문치사사건 범인은닉죄 및 증거인멸죄 등 중죄를 범한 것이다」고 말했다.

言辯종아 조작에 뽑혀

나는 朴군에 손안댔다

收監 姜경사, 부인에 밝혀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관련자 축소조작모의결과에따라 지난1월 趙漢慶경위와함께 범인으로 구속된 姜鎭圭경사(29)의 부인 金모씨(29)는 남편이 구속된 이후 면회할때마다 나와 趙경위는 朴군치사사건에 직접 연루돼 있지 않다고 계속주장해왔다고 밝혔다.

金부인은 지난 21일 오후 검찰이 발표한 내용중 「姜경사가 朴군의 목을 욕조로 끌어당겨 물속에 집어넣었다」는 부분은 그동안 남편과의 면회때마다 들었던 얘기에 비추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姜경사는 또 趙경위와 자신등 두명만 구속된데 대해 趙경위는 실무책임자이고 자신은 누구보다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다 검찰수사과정등에서 趙경위의 진술내용과 자신의 진술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삼사들이 믿고 책임을 지게한 것이라고 (黃正雄경위 潘金坤경장 李正熙경장)이 가족들을 자주 찾아 趙경위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 등을 보여주며 「남편도 공범자로 몰렸다는 것이다」

姜경사는 또 趙경위와 자신등 두명만 구속된데 대해 趙경위는 실무책임자이고 자신은 누구보다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데다 검찰수사과정등에서 趙경위의 진술내용과 자신의 진술을 일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삼사들이 믿고 책임을 지게한 것이라고 (黃正雄경위 潘金坤경장 李正熙경장)이 가족들을 자주 찾아 趙경위가 옥중에서 보낸 편지 등을 보여주며 「남편도 공범자로 몰렸다는 것이다」

있는것으로 평가돼 朴군치사사건 범인으로 뽑힌것이라고 부인 金씨에게 말했다는 것.

金부인은 남편이 朴군 사건 이틀후인 지난1월16일 밤 집에돌아왔을때도 「나는 관련돼있지 않다」고 말했으며 구치소 면회때는 「新吉洞 특수수사대로 내일로 걸어가 조사를 받으면서 구속될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털어놨었다고 전했다.

金부인은 또 남편으로부터 어떤 「비밀약속」하에 자신이 구속돼있다는 말을 직접 전해 들은 적은 없지만 최근 議政府교도소 면회때 세사람 (黃正雄경위 潘金坤경장 李正熙경장)이 가족들에게 해왔다는것.

이와함께 姜경사는 「내가 趙경위 소속반원(1반)도 아닌데 왜 손을 댔겠느냐」「내가 법정에 서서 진실을 밝혀내면 朴군을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고문치사사건과는 무관해 특가법 적용은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는 주장을 가족들에게 해왔다는것.

(金부인은 남편이 구속된 지난 2월부터 계속 면회를 갔었는데 지난2월부터 계속 자신들은 고문치사에 직접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는 것이다.)

면회때마다 구치소에서는 구치소직원들이 이들의 주장은 물론 모든 대화내용을 기록,상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검찰과 법부부는 이를 인지하게 됐었다.

또 사건이후 한동안 경찰은 趙경위와 姜경사의 가족들을 따라다니기도 했으며 특히 趙경위가족들은 치안본부장을 찾아가 趙경위가 무관하다며 끝까지 진상을 밝히던다고 직접 말했던 사실도 가족들의 진술로 뒤늦게 밝혀지고 있다.

원만했었다고 털어놨다.

매번 면회당시 배석교도관외에 경찰관2명이 면회장에 입회해 대화내용을 엿들는듯 감시가 심해 남편이 가족들에게 모든것을 터놓고 말할 분위기는 못됐으나 틀림이 「진실은 진실로 밝혀져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고 金부인은 밝혔다.

또 구치소 안에서 姜경사는 운동이나 식사시간때 만난 趙경위로부터 「너한텐 정말 미안하다. 나를 도와주러 왔다가 되레 이렇게 얽매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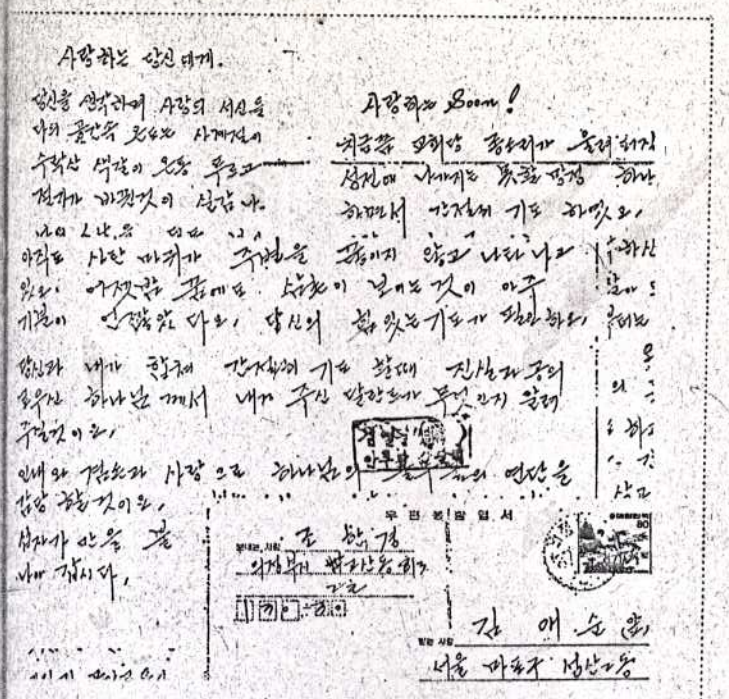
이와함께 姜경사는 「내가 趙경위 소속반원(1반)도 아닌데 왜 손을 댔겠느냐」「내가 법정에 서서 진실을 밝혀내면 朴군을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을지 모르지만 고문치사사건과는 무관해 특가법 적용은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는 주장을 가족들에게 해왔다는것.

(金부인은 남편이 구속된 지난 2월부터 계속 면회를 갔었는데 지난2월부터 계속 자신들은 고문치사에 직접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는 것이다.)

면회때마다 구치소에서는 구치소직원들이 이들의 주장은 물론 모든 대화내용을 기록,상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검찰과 법부부는 이를 인지하게 됐었다.

또 사건이후 한동안 경찰은 趙경위와 姜경사의 가족들을 따라다니기도 했으며 특히 趙경위가족들은 치안본부장을 찾아가 趙경위가 무관하다며 끝까지 진상을 밝히던다고 직접 말했던 사실도 가족들의 진술로 뒤늦게 밝혀지고 있다.

"司祭團성명 없었으면



趙漢慶경위가 옥중에서 부인에게 보낸 편지。1주일에 2～3통 그동안 30여통을 보내왔다。

범양사건및 통일민주당정강정책수사에 이어 이번 건까지 겹쳐 영일이 없는 서울지검 간부들은 民正黨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에 신경이 쓰이는듯 「공문들에게 누를 끼치게됐다」며 곤혹스런운 표정들。

○…22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비공식으로 열린 고위당정회의는 朴鍾哲군 고문치사경관의 추가구속사태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 검찰은 오전회의에서 공범3명 등이 있던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범양상선사건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난들에 이번에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의 범인추가구속때도 검찰이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는 여론이 거세게일자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이 크게 떨어질것을 우려하는 눈치。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인관심이 쏠리는 대형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문치사경관과 관계기관과의 협조를거쳐 수사방향이 조정되는등 독자적으로 검찰권행사를 할수없는 것이나 검찰도 경찰과 똑같다는 등의 비관적인 여론이 세차게 일자 몹시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들。

검찰은 「범인조작및 은폐사실은 없다」고 발표한뒤 하루만에 이를 번복,「치안본부 상급자들에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발췌이 계속 바뀌는데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할말이 없는듯 함구。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의 항의전화가 잇달아 걸려와 괴롭다」면서 「고문을 한것은 경찰인데 수사를 맡은 검찰이 욕을 먹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추가구속된 고문치사사건의 공범 潘金坤경장(44)의 집인 서울銅雀구上道1동713의2에는 사건진상이 발표될 무렵인 21일 오후7시경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등 20여명의 보도진이 몰려들어 큰혼잡。

潘경사가 20일밤 집에 돌아오지 않아 극심해하던 가족들은 몰려온 취재진을 보자 「아직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朴군고문치사사건 범인(40)의 권유로 집에서 1백여m 떨어진 상도동 천주교회에 나가기 시작, 지난 2월초 영세를 받았다。

李錫민주당신부에 따르면 潘경장은 朴군사건이후 번민하는 모습이었으나 영세를 받고나서 안정을 되찾는듯 했으며 매주 성당에 나왔다고 말했다。

○…朴군고문치사사건 범

李본부장은 이날 아침 모처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일은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범이 더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추가구속된 고문치사사건의 공범 潘金坤경장(44)의 집인 서울銅雀구上道1동713의2에는 사건진상이 발표될 무렵인 21일 오후7시경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등 20여명의 보도진이 몰려들어 큰혼잡。

潘경사가 20일밤 집에 돌아오지 않아 극심해하던 가족들은 몰려온 취재진을 보자 「아직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朴군고문치사사건 범인(40)의 권유로 집에서 1백여m 떨어진 상도동 천주교회에 나가기 시작, 지난 2월초 영세를 받았다。

李錫민주당신부에 따르면 潘경장은 朴군사건이후 번민하는 모습이었으나 영세를 받고나서 안정을 되찾는듯 했으며 매주 성당에 나왔다고 말했다。

○…朴군고문치사사건 범

高大 송추운동장 開場

고려대 송추운동장개장식이 23일오후2시 京畿도楊州군長興면송추리 송추운동장에서 金相力고려중앙학원이사장 李準範고려대총장등 학교관계자들 비롯,鄕世永현대자동차회장등 각계인사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텔레비전 프로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따라 변경될수 있읍니다.
프로문의=KBS783—0513・MBC789—3300
※ 은 음성다중방송

23일 土 오후 밤

KBS 1	KBS 2	MBC	KBS 3	AFKN-TV
10 배달의 기수	00 KBS 뉴스	10 출동 에어울프	30 중3 수학	◇23일 오후
40 빨강머리 앤	10 KBS 권투	00 한국 영화 우수작	50 중학 가정	6・00 CNN/AFKN News
30 쇼 특급	00 디즈널랜드	45 토요일 토요	10 진로 지도	7・20 AFKN Classic
00 (계속)	50 유머 1번지		30 고교 수학	
	40 애정의 조건		00 교사의 시간	

「슈 8・0 누르 퍼보 한 인에 다。

警官 拷問致死 역두 焦點

"혼내주라 지시뿐 가담 안했다" 주장

3명 起訴안된 상태…병합심리 의문

검찰과 법원은 4개월이라는 시차를 두고 구속된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 관련 경찰관 5명에 대한 재판을 한꺼번에 진행할 방침이다。이사건 첫공판기일은 일단 오는 6월13일로 잡혔으나 추가구속된 3명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않았고 1차구속된 2명에 대해서는 사실변경에 따른 공소장수정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병합심리방침이 가능하고 타당한지가 의심스럽다。

또 1차구속된 趙漢慶경위와 姜鎭圭경사가 고문치사에 대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검찰이 치안본부상급자들의 범인축소조작및 은폐행위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착수, 수사자체가 원점으로 되돌아가 사건의 전개양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재판등의 절차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같다。

뒤늦게 전면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趙경위와 姜경사에 대한 공소유지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하지못할 경우 이사건 재판진행은 의외의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

만일 검찰과 피고인들간에 법정공방이 치열, 趙경위와 姜경사의 구속만기인 오는7월18일까지 재판부가 유무죄 결론을 내리지못할 경우 이들을 석방,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하기때문이다。

법정다툼이 예상되는 것으로는 우선 『고문지시만 했지 고문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趙경위에게 고문치사죄의 책임을 지울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고문치사는 고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치사」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結果的加重犯)」。

따라서 趙경위가 사건당시 『말안하면 혼내주라는 엄포만놓고 고문에 의해 朴군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고문치사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연행 조사 고문의 전과정이 조직적으로 趙경위의 지시에의해 이루어진이상 趙경위가 「치사」에대한 인식을 가지지않았더라도 「치사」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할수 없었던 데대한 과실이 인정돼 고문치사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재관장인 孫晋坤서울형사지법합의10부수석부장판사는 조직범죄인 『서울 江南서진폭력배집단살해사건 재판에서 張津碩피고인도 지시만하고 살인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는않았지만 중형을 선고받았다』고말했다。

다음 趙경위의 지시에 따라 고문행위에 직접 가담한 崔正雄경위등의 형사책임이 문제된다。

관례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부하가 따랐을 경우 범죄책임을 면제해주지 않고있다。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따랐는냐 소극적 피동적으로 따랐는냐는 정상참작사유가 될수는 있어도 책임면제사유는 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사건에 있어서 姜경사는 서류조사만 했을 뿐 고문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가족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姜경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치안본부 상급자들의 범인축소조작및 은폐행위가 밝혀질경우 어떤 형사책임을 지울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범인체포의무가 있는 경찰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체포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범인도피죄」가 성립된다。

또 이사건관련 구속경찰관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불위반(고문치사)혐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수사에 종사하는 치안본부상급자들의 범인축소조작 은폐사실이 드러나면 이 법상의 특수직무유기죄가 인정된다。

범인축소조작 은폐과정에서 증거를 인멸 은닉했거나 위조 변조했다면 증거인멸죄도 성립된다。

이사건공판과정에서 있을 검찰과 변호인의 법리상 논쟁, 피고인 고문경찰관사이의 「지시와 행위」및 「조작모의」에 대한 공방이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林彩齊기자〉

"없으면 묻혔을뻔"

"檢察도 警察과 똑같다" 電話빗발

黨政회의뒤 확대수사로 급선회

"세상에 비밀없다는것 다시 증명"

○…법부와 검찰간부들은 22일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의 파장이 크게 번져나가자 법부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책임문제가 대두될것을 신각하게 우려。22일오전 民正黨긴급당직자회의가 끝난 뒤 민정당金正男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수사책임문제가 거론되자 법부부와 검찰에는 긴장감마저 감도는 분위기。

범양사건및 통일민주당정강정책수사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겹쳐 영일이 없는 서울지검 간부들은 民正黨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에 신경이 쓰이는듯 『우리들에게 누를 끼치게됐다』며 곤혹스러운 표정들。

○…22일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비공식으로 열린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태가 이렇게 번져 나가기 시작, 지난 2월초 영세를 받았다。

李錫悳주임부에 따르면 潘경장은 朴군사건 관련 고문경찰관3명을 뒤늦게추가구속한뒤일반국민들로부터 『검찰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검찰도 경찰과 똑같다』는 등의 비관적인 여론이 세차게 일자 몹시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들。

검찰은 『범인조작및 은폐사실은 없다』고 발표한뒤 하루만에 이를 번복, 『치안본부 상급자들에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침이 계속 바뀌는데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번 일은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록, 22일 검찰이 한동속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고있다』고 푸념하기도。

한편 신문사에는 『사제단성명이 없었으면 사건조작사실은 묻혔을게 아니냐』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기도。

○…李永和치안본부장은 22일오후 범인축소조작에 치안감등 대공간부가 배후조종한 혐의에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런 수사는 검찰이 할일이 아니냐』며 『경찰은 당사자인만큼 더 할말이 없다』고 대답을 회피。

李본부장은 이날 아침 모처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일은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는 부당의결로 기록, 22일 검찰과 법원간의 추가구속결정을 밝혔다가 오후회의에서는 분위기가 싹 바뀌어 「상급자의 축소조작 모의여부 수사로 급선회했다는 것。이는 이날 석간신문에 치안본부 대공간부들의 범인축소 은폐조작모의 관련기사가 나면서 민정당측이 청저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기 때문이었던것으로 알려지기도。

○…검찰 관계자들은 범양상선사건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난끝에 이번에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의 범인추가구속 때도 검찰이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는 여론이 거세게일자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이 크게 떨어질것을 우려하는 눈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제단의 한 관계자와 제약때문에 검찰만이 떨게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도 최종적인 수사책임은 검찰이 질수밖에 없는 사정이 답답하다』고 푸념하면서 『관계기관을 원망』。

○…검찰간부들은 朴군사건관련 고문경찰관3명을 뒤늦게추가구속한뒤일반국민들로부터 『검찰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검찰도 경찰과 똑같다』는 등의 비관적인 여론이 세차게 일자 몹시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들。

검찰은 『범인조작및 은폐사실은 없다』고 발표한뒤 하루만에 이를 번복, 『치안본부 상급자들에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침이 계속 바뀌는데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번 일은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록, 22일 검찰이 한동속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고있다』고 푸념하기도。

한편 신문사에는 『사제단성명이 없었으면 사건조작사실은 묻혔을게 아니냐』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기도。

○…李永和치안본부장은 22일오후 범인축소조작에 치안감등 대공간부가 배후조종한 혐의에대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그런 수사는 검찰이 할일이 아니냐』며 『경찰은 당사자인만큼 더 할말이 없다』고 대답을 회피。

李본부장은 이날 아침 모처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일은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록, 22일 검찰이 한동속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고있다』고 푸념하면서 『이번 사건은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었다』고 한마디。

拷問警官 3인 주변

○…고문치사공범 黃正雄경위(41)는 지난12일오후 大邱시내 경북대병원에 당뇨병치료를 위해 입원, 20일 오후 7시경 수사관으로 보이는 2명이 병원에 찾아와 연행돼갔다。병원측에 따르면 黃경위는 심한 당뇨병에 시력까지 악화되는 합병증세로 이 병원 신관 7601호 입원실에 입원, 주사및 약물치료와 식이요법 운동치료를 받다 연행돼가 진료카드 기록, 22일 오후 수사관이 입원실에 나타나 『잠깐 얘기를 나눈뒤 칠흑한 표정으로 일어서면서 『이번 사건은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었다』고 한마디。

○…추가구속된 고문치사사건의 공범 潘金坤경장(44)의 집인 서울銅雀区上道1동 713의2에는 사건진상이 발표될 무렵인 21일 오후7시경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등 20여명의 보도진이 몰려들어 큰혼잡。

潘경사가 20일밤 집에 돌아오지 않아 『금명해한번 가족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범양상선사건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난끝에 이번에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의 범인추가구속 때도 검찰이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는 여론이 거세게일자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이 크게 떨어질것을 우려하는 눈치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제단의 한 관계자와 제약때문에 검찰만이 떨게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도 최종적인 수사책임은 검찰이 질수밖에 없는 사정이 답답하다』고 푸념하면서 『관계기관을 원망』。

○…검찰간부들은 朴군사건관련 고문경찰관3명을 뒤늦게추가구속한뒤일반국민들로부터 『검찰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검찰도 경찰과 똑같다』는 등의 비관적인 여론이 세차게 일자 몹시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들。

검찰은 『범인조작및 은폐사실은 없다』고 발표한뒤 하루만에 이를 번복, 『치안본부 상급자들에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침이 계속 바뀌는데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이번 일은 검찰이 사건을 송치 받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록, 22일 검찰이 한동속으로 몰려 곤욕을 치르고있다』고 푸념하면서 『이번 사건은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었다』고 한마디。

〈林彩齊기자〉

3회 東亞국악콩쿠르 大賞에 朴桓永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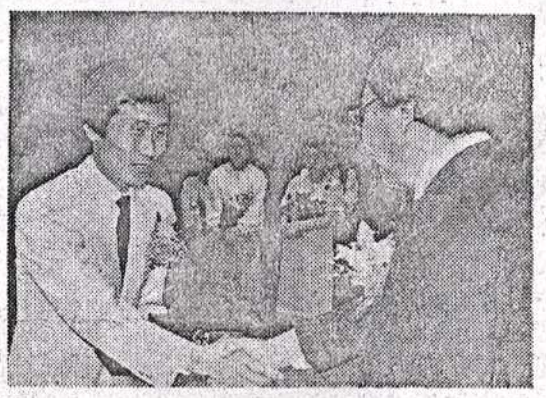
학생부 特賞못내

東亞日報社주최 제3회 동아국악콩쿠르에서 「대금산조」를 연주한 피리대금해금부의 朴桓永씨(30·추계예술학교 졸)가 일반부 최고상인 大賞(상금 3백만원)을 차지했다。화생부 최고상인 特賞은 수상자를 내지 못했다。

21, 22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린 이 콩쿠르의 본선에는 관소리, 정가, 가야금 거문고, 피리대금해금, 전통무용등 5개부문에 걸쳐 각각 일반부와 화생부로 나누어 경쟁, 예선(11~13일·국악고강당)을 거친 54명이 출연, 모두 29명의 입상자(관소리일반부 銅賞못냄)가 나왔다。

이들은 오는 7월4일 국립극장대극장에서 입상자 발표공연을 갖는다。

22일 저녁 대상특상선발발표회직후 열린 시상식에서 동아일보사 金炳琯부사장과 이행사의 협찬회사인 태평양화학 黃英奎사장이 입상자에게 상금과 상장 트로피를 전달했다。



본사 金炳琯부사장이 대상수상자 朴桓永씨(왼쪽)에게 상장과 트로피를 수여한후 격려하고 있다。

입상자29명 7월4일 國立劇場공연

◇판소리△일반부=금상 金陽淑(23·한양대4년)은상 南宮貞愛(25·국악예고를)용상없음 △화생부=금상 朴美愛(20·이화여대3년) 은상 吳貞孩(15·국악예고2년)동상 崔英蘭(19·중앙대2년) ◇정가△일반부=금상 洪昌男(22·서울대4년) 은상 趙一夏(21·〃 3년)동상 車明元(23·추계예술학교2년)△화생부=금상 金光燮(20·한양대3년)은상 姜權洵(17·서울대1년)동상 朱東燮(17·국악고3년)◇가야금 거문고 △일반부=吳慶熙(27·한양대졸)은상 趙恩姬(24·경북대졸)동상 李惠京(26·서울대졸)△화생부=금상 全銀珠(18·한양대1년) 은상 韓眞(20·서울대3년)동상 許胤晶(19·〃 2년)◇피리 대금 해금△일반부=금상 朴桓永(大賞) 은상 鄭琇年(22·서울대졸)동상 印英子(22·서울대4년) △화생부=금상 孫春植(20·한양대1년)은상 李鎔九(18·추계예술학교1년) 동상 鄭昌順(20·서울대3년) ◇전통무용 △일반부=금상 金眞善(30·추계예술학교4년) △은상 洪雄基(27·〃) 동상 成京淑(25·청주사대졸) △화생부=금상 金美淑(19·중앙대2년)은상 吳承芝(20·세종대4년) 동상 金珠榮(17·국악고3년)

연결될수 있읍니다。
MBC789—3300
중방송

AFKN TV
◇23일 오후
6·00 CNN/AFKN News
7·20 AFKN Classic

週末 TV 하이라이트

어린이

「슈퍼보이」〈MBC 日 오전 8·00〉「여왕의 밤나들이」。「아누르」여왕대관식에 초대된 슈퍼보이는 왕위를 노리던 음흉한「모르」장관이 정체불명의 범인에의해 피살됐음을 알게된다。성안에는 1백년전 이성

國校生 동요부

드라마

「TV문학관」〈KBS1土밤 9·30〉「생명채집」。강유일원작。종합병원의 방사선특수촬영기사인 형주는 인체의 신비로운 내부를 탐색해 불수의

애거사 6·25때

6·25때 헤어진 아들이 같은 등네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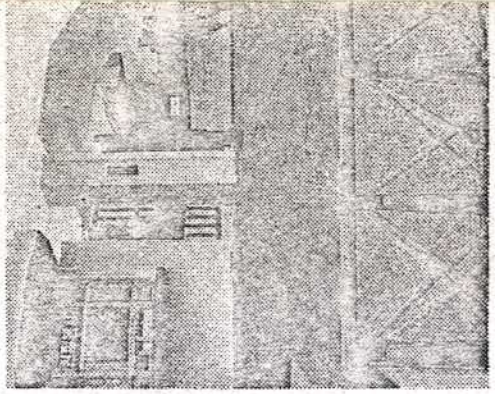
「사랑과 야망」〈MBC土밤 9·30〉미자는 홍조의 전화를

일요특선

「미녀첩보원」〈KBS2 日 밤9·20〉「밀실의 그림자」。「리」는 30년전에 사고로 사망한 부모가 적국의 이중첩자였다는 인사기록을 보고 의혹을 품는다。「리」는 실험중인 약을 자진해 먹고「아만다」를 시켜 자신에게 최면을 걸도록 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서머타임 악요

국수주의 배격하고 대중과 결합하자



가 차례로 도착하여 수사진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3명의 범인들이 수사 차에 나누어 타고 오전 9시 반 경 서울 시내 각 경찰서로 출발하였다.

<서울신문사진=共同>

차군사건 檢警발표의 상이점

구 분	경찰발표 (1월19일)	검찰1차 발표(1월24일)	검찰2차 발표(5월21일)
차군 하숙집 도착시간	08시10분	06시40분	07시30분
범인 도착시간	08시40분	07시10분	08시경
사 망 시 각	09시20분	10시50분	10시50분
연행경관수	3명	6명	11시20분
조사경관수	2명	2명	4명 (또는 4명 그 이상)
고문치사 경관수	2명	2명	5명 (趙 포함 5명 중 4명)

※연행, 조사착수, 사망시각등은 모두 1월14일자

이들 범인들이 차군 하숙집에 도착하여 사건을 일으키고 사라진 때로부터 경찰과 검찰 사이에 발표한 사건 경과에 있어 서로 상이한 점이 있어 이 점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범인들이 차군 하숙집에 도착한 시각=경찰은 1월19일 발표에서 범인들이 차군 하숙집에 도착한 시각은 08시10분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검찰은 1월24일 발표에서 06시40분이라고 하였고 5월21일 발표에서는 07시30분이라고 하였다.

◎범인들이 차군 하숙집을 떠난 시각=경찰은 1월19일 발표에서 08시40분이라고 하였고 검찰은 1월24일 발표에서 07시10분이라고 하였고 5월21일 발표에서는 08시경이라고 하였다.

◎차군 사망 시각=경찰은 1월19일 발표에서 09시20분이라고 하였고 검찰은 1월24일 발표에서 10시50분이라고 하였고 5월21일 발표에서도 10시50분이라고 하였다.

◎연행경관 수=경찰은 1월19일 발표에서 3명이라고 하였고 검찰은 1월24일 발표에서 6명이라고 하였고 5월21일 발표에서는 11시20분 현재 4명 그 이상이라고 하였다.

◎조사경관 수=경찰은 1월19일 발표에서 2명이라고 하였고 검찰은 1월24일 발표에서 2명이라고 하였고 5월21일 발표에서는 4명이라고 하였다.

◎고문치사 경관 수=경찰은 1월19일 발표에서 2명이라고 하였고 검찰은 1월24일 발표에서 2명이라고 하였고 5월21일 발표에서는 5명 중 趙 포함 4명이라고 하였다.

이상 사건 경과에 있어 서로 상이한 점은 모두 사건 발생 초기에 있어 경찰과 검찰 사이에 수사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하겠다.

<서울신문사진>

고문치사 경관 5명 모두 구속

차군사건 검찰 발표 후 고문치사 경관 5명 모두 구속되었다. 23명의 범인들이 수사 차에 나누어 타고 오전 9시 반 경 서울 시내 각 경찰서로 출발하였

갈수록 짙어지는 「默認의 혹」

朴鍾哲군 拷問致死사건 전면再搜査 안팎

檢察추가발표때 「背後」침묵

교도소面會室 대화내용 몰랐을리 없어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은 검찰의 범인축소 은폐공작이 새로운 「범죄」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검찰의 전면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이와함께 경기도 치안본부 및 검찰최고위 간부들이 오래전에 수사상황을 (認知)하고 있었으면서도 수사지휘를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늑장수사 및 은폐공작 묵인의혹이 짙어지는등 갈수록 확대되고있다.

검찰이 박군고문치사사건을 관련경찰관3명을 추가구속하면서도 『지난12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사제단의 성명이 추가구속의 계기가 됐음을 애써 부인하려고 했다. 검찰은 또 『5월초순경 수사 관계자들이 범행은폐및 조작의 기미를 알아차린것은 발표상의 「5월초순」보다 3개월이나 앞선 2월초순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은 3월초순 사제단에 정보가 흘러들어가기 한달전의 일이다.

이때부터 검찰은 극비의 보안속에 「남모르는 고민」을 해오며 경찰의 루마작업에 기대를 걸었으리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중앙공보와 가족들의 앞날을 걱정한 나머지 공판정에서 폭로하고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공판기일이 임박해오면서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검찰이 진상공개를 주저하며 결정을 미루고있는 사이에 사제단의 성명이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성명이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검찰은 재야세력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리라고 자신했으나 사제단이 정확하게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치밀한 증거수집력에 성명을 터뜨리자 더이상의 은폐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하고 공개수사의 길을 선택한것이라고 해석해 볼수 있다. 검찰은 진실이 드러나는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워했으나 공판기일이 다가오며 진실은폐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됨에따라 진상공개란는 「쓴잔」을 들지 않을수 없었다고 봐야할것이다.

朴군의 고문치사를 위장한 마당에 범인 몇사람을 숨기려든 경찰의 발상이 현시국의 여야간 攻守관계를 역전시킬만큼 중대한 사태로 악화되자 수사책임문제가 여권에서 심각하게 거론되는것 같다. 실각하게 거론되는것은 한다는 지적과 이는 고문치사사건 수사착수 30분도안돼 부터 시작해 朴군이 죽음에 이르게 됐을까, 아니면 폭행등 정도가 낮은 고문부터 하다가 물고문까지 했을까.

고문관련 경찰관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진 현재에도 朴군사체에서 확인된 15곳의 상처 대부분이 물고문과정에서 朴군의 반항을 제지하다 생긴것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경찰내부 C급수배자라고 주장했다.

朴군가족은 집행유예기간중이라 朴군이 시종하게 행동했다면서 수배받고 있었다면 반항중인데도 왜 일본어 감좌를 듣기위해 학교에 계속 나갔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朴鍾哲군의 은신처를 추궁당하다 변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참고인조사를 하다가 고문치사까지 했다면 주요시국사범이나 학생사범의 경우 경찰이 어떤 수법으로 수사를 하고있을까하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참고인이나 피의자나 피의자나는 구분은 朴군고문치사사건 진상규명은 물론 고문근절대책 마련에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문제다.

◇고문가담경찰관수=연행 때 동원된 경찰관수가 경찰발표와 검찰 1, 2차발표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있는데다 고문에 직접가담한 경찰관수도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더구나 고문경찰관으로 구속된 趙경위와 姜鎭圭경사는 각각 면회온 자신의 가족들에게 「朴군에게 절대로 손대지 않았다」고 주장한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고문경찰관은 누구이며 실제로 몇명이 되는것인가, 왜 이들 두사람이 진범으로 몰리게 됐는가, 고문수사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

검찰발표(1월19일)	검찰1차발표(1월24일)	검찰2차발표(5월21일)
08시10분	06시40분	07시30분
08시40분	07시10분	08시경
09시20분	10시50분	10시50분
11시20분	11시20분	11시20분
3명	6명	4명 (또 이 그 상)
2명	2명	5명 (趙 포 위 경 함)
2명	2명	4명

사착수, 사망시각등은 모두 일자

「朴군致死」 물拷問뿐이었나…

「피멍」15곳…檢察설명 납득안돼

손가락사이 出血斑 電氣고문 의문

다리 타박상은 「심한 구타」의 흔적

〈2〉

재검증·拷問과 의혹